

《方藥合編》中 <活套鍼線>에 관한 板本學的 考察

오병건·박경남·맹웅재*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A xylographical study on the Hwaltuchimsun
(活套鍼線: Manual for usualadaptability) in Bangyakhappyeon
(方藥合編: Compilation of prescriptions and medicines)

Oh, Byung-Gun, Park Kyoung Nam, Maeng Woong Jae*
Dept. of Oriental Medicine Graduate school of Wonkwang University.

《Bangyakhappyeon(方藥合編)》 was written by Hwang Do-Yeon (黃度淵) and his son Hwang Pil-Soo (黃泌秀) in the late days of Chosun Dynasty, when the country was in a state of social confusion by the first introduced western civilization and invasion of the foreign powers. In response to this situation where realistic knowledge and solution was of importance than theological review, Hwang and his son wrote the book to satisfy the needs. The book, 《Bangyakhappyeon(方藥合編)》 furthered new publication of abstract asian medical science in a more compact form, emphasizing more realistic means of it. This new publication were a significant counter-measure to cope with the inflow of practical western medicine, which the move has moreover enhanced popularization of Han Medicine(韓醫學). After reviewing 《Bangyakhappyeon(方藥合編)》 in xylographical approach, I have acquired conclusions as below.

Key Words : Bangyakhappyeon, Hwang Do-Yeon, Hwang Pil-Soo,
traditional korean medicine, Hwaltuchimsun.

I. 서론

우리 民族은 古代로부터 中國의 醫學을 담습하지 않고 우리 현실에 맞는 우리 醫書를 저술하여 자주적인 방법을 도모하였다. 일찍이 高句麗時代부터 독창적인 민족 고유의 醫學을 발전시키기 시작하였고 百濟時代에 《百濟集成方》, 新羅時代에는 《新羅法師方》 《新羅法師流觀秘密要術方》 《新羅法師秘密方》 등으로 독창적 民族醫學 발전의 토대를 갖추었고¹⁾ 高麗時代에는 《濟衆立效方》 《新集御醫撮要方》 《鄉藥救急方》 《三和子鄉藥方》 《鄉藥古方》 《鄉藥惠民經

驗方》 《鄉藥簡易方》 《診脈圖訣》 등의 醫書가 출간되었는데 특히 국산 鄉藥에 대한 鄉藥方書들이 많이 발행되었다.²⁾ 이와 같은 民族醫學의 발달은 朝鮮時代에 이르러 통치자의 적극적 지원 하에 많은 독창적인 방법들이 모색되었는데 《鄉藥集成方》 《醫方類聚》 등이 그것이고 마침내 許浚에 의해 《東醫寶鑑》이 완성됨으로써 완전한 民族醫學의 기반을 수립하게 된다. 그 후로도 周命新的 《醫門寶鑑》이나 康命吉의 《濟衆新編》, 李濟馬의 《東醫壽世保元》 등이 간행되었고 朝鮮末期에 의학적인 내용을 더욱 簡易化한 《方藥合編》이 간행되었다.

《方藥合編》이 출간된 朝鮮末期는 日本을 위시한 列強帝國 등 외세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서양문명이 유입되어 점차적으로 세계물정을 알게 되는 轉換點이었지만 ‘開化’와 ‘自主’의 양자를 동시에 만족해야 하는 혼란과 전환의 역사적인 시련을 겪어야 하는 時

* 교신저자 : 맹웅재 전라북도 익산시 신용동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063-850-6838

1) 金斗鍾, 東西醫學史大綱, 探求堂, 1981, pp.240-248.

2) 金斗鍾, 上揭書, p.263-274.

代的 激變期라 볼 수 있다. 그러한 와중에서 우리 민족의 주체성이 담긴 전통 韓醫學이 말살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³⁾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양문명의 유입과 외세의 침략으로 혼란과 전환의 와중에 처하였던 사회적 양상은 심오한 이론의 추구보다 급격한 현실적 해결을 요구한 사회적 추세였기에 이에 부응하여 바로 時宜와 簡便을 지향한 의학적 추세가 등장하였다. 그 대표적인 方書가 바로 《方藥合編》이다. 이로 인해 새로이 도입된 실증적인 西洋醫學에 대응하여 방대하고 추상적인 東洋醫學을 보다 簡易케 하고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시대적 조류에 並進하면서 한국 韓醫學의 大衆化에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된다.

이런 《方藥合編》은 學理가 부족한 常醫들의 출현을 가능케 한 역작용을 함께 하였지만 쇠운에 처한 東洋醫學의 활용도를 높여 東洋醫學의 簡易大衆化에 큰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 그 의학사적 의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方藥合編》은 한국 最近世 簡易醫學 開發의 결정적 方書가 되었던 것이다.⁴⁾

《方藥合編》의原本인 《醫方活套》는 종래 실용되어왔던 많은 처방들을 上(179方), 中(214方), 下(201方) 三品三段으로 나눔으로써 醫方과 藥物의 지식을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러한 편집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中國 및 日本에서도 유래를 찾기 힘든 독창적인 시도인데, 이 책에 채택된 醫方들을 보면 새로운 지식을 전개한 것은 아니지만 繁用되는 594개 處方들을 三統으로 나누어서 알기 쉽게 하였다는 특색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方藥合編》은 간편하고도 실용에 알맞으며 또한 臨症施治에 빠뜨릴 수 없는 韓方의 便覽書가 되어왔으며 그것은 그 후로 오늘날까지 약 수십여 종의 《方藥合編》이 增補되어 出刊되었다는 사실 하나 만으로도 능히 그 활용도를 짐작케 한다.⁵⁾

이렇게 《方藥合編》은 近世以後에 그 韩醫學의 중요성에 걸맞게 수십여 종의 增補板들이 간행되면서 발전해왔는데 각 板本마다 다양한 특징들을 지니고 있으며, 또한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그 내용과 형식이 변화되어왔다. 따라서 《方藥合編》의 내용도 黃度淵이 처음 저술했던 《醫方活套》의 내용과는 板本別로 많은 변화가 있었고 이런 《方藥合編》의 變化像에 대해서는 그 동안의 연구가 부족했음을 알 수 있었다.

우선 다양한 板本의 《方藥合編》 중에서 최근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은 1977년 南山堂編輯局에서 간행한 《對譯證脈方藥合編辨證增補板》이다. 그런데

이 板本의 底本이 되는 板本이 조사결과 黃度淵의 제자인 玄公廉이 저술한 《證脈方藥合編》임을 알 수 있었고 따라서 현재 다용되는 《對譯證脈方藥合編辨證增補板》과原本이 되는 《醫方活套》 외에 《證脈方藥合編》을 비교하면 《方藥合編》의 變化像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되었다.

이에 著者は 《方藥合編》을 먼저 그 構成과 內容에 대하여 概括的으로 정리하고 《方藥合編》의 增補概略에 대하여 서술하고 그 중에서 의미 있는 세 개의 板本인 原本 《醫方活套》 즉, 《惠庵心書古今三統醫方活套鍼線》과 《證脈方藥合編》, 그리고 《對譯證脈方藥合編辨證增補板》에서 〈活套鍼線〉을 비교하여 變化像에 대해 항목별 변화, 처방별 변화, 순서변화, 誤脫字 등에 대해 서술하였고 그 下段에 변화된 내용에 대해 도표로 정리하여 기재하였다. 이런 《方藥合編》의 變化象에 대하여 研究한 결과를 보고하는 바이다.

II. 본론

1. 《方藥合編》의 構成과 內容

黃度淵은 《東醫寶鑑》을 주축으로 하여 《醫門寶鑑》 《濟衆新編》 《醫學入門》 《景岳全書》 등 가운데서 많이 활용되는 名方만을 추려 간결하게 나열하여 編制한 것을 《醫方活套》라 하였고 그의 아들 黃泌秀에 이르러 《損益本草》에 用藥綱領·救·急·禁忌·製造門 등을 合編하여 《方藥合編》이라 이름 붙여 刊行하였다.⁶⁾

構成은 워 上段에 《損益本草》를 두었는데 총 514種의 藥物을 草木에서 金石에 이르기까지 차례로 배열하여 찾기 쉽게 하였고 또한 《萬病回春》 등에서 藥性歌를 추려 암송하기 용이하게 노래용으로 七句로 하여 詠讀하기에 편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국산 약제(鄉藥)가 아닌 외국산 약제는 그 약명을 陰刻으로 표시하였다.⁷⁾

下段에는 《醫方活套》를 두었는데 《醫方活套》는 임상에서 효과가 좋은 처방만을 골라 上中下 세단계로 분류하여 편성하였다. 이를 三統이라 하는데 이중에서 上統은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저하된 생리기능을 보충시키는 補劑의 처방으로 구성되어 있고 中統은 보충시키기는 못하되 기능의 항진과 저하를 조화시켜 균형 있는 생리기능을 유지토록 하는 和劑의 처방으로 묶여져 있으며 下統은 질병의 상태가 強實하여 성질이

3) 李基白, 韓國史新論, 一潮閣, 1978. p.318.

4) 申載鏞, 方藥合編解說, 成輔社, 1988 , p.4.

5) 廉泰煥, 國譯方藥合編, 杏林書院, 1975 , p.6.

6) 黃度淵, 對譯證脈方藥合編辨證增補板, 南山堂編輯局, 1977, p. 3.

7) 金亨泰, <方藥合編에 대한 연구>, 大田大 大學院, 1991.

맹렬하고 효능이 강한 약물로 질병을 攻伐하여 정상적 생리기능을 조속히 찾도록 하는 攻劑의 처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뒤에는 製造門이 배열되어 있다. 이 製造門에는 일반적으로 실용되는 약물에 대하여 修治法 및 法制服用法 등에 관해 상세히 기술하였다.

또한 원본 말미에는 《石隱補遺方》을 실었는데 15개의 痘症에 따라 각각 사용빈도가 높고 효과가 좋은 처방을 해당되는 병증에 맞게 총 19개의 처방을 실었다.

그리고 辛巳년 (高宗 18年, 1881年) 이후의 輪症과 霍亂에 대한 集驗方을 실었는데 痘源, 脈法, 初症의 순으로 나열하여 병증에 맞는 8개의 經驗方을 실어 應急을 要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輪症霍亂에 대해 예방할 수 있는 방법과 주의해야 할 禁忌事項도 첨가하였다.⁸⁾

이러한 《方藥合編》의 構成과 內容에 관해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方藥合編의 構成 도표⁹⁾

上段		損益本草	山草 및 金石 : 34類 514種
下段	醫方活套	上統	原方(123方), 附方(32方), 諸傷(8方), 解毒(2方), 雜方(14方), 製造門(26門)
		中統	原方(181方), 附方(33方)
		下統	原方(163方), 附方(38方), 諸種禁忌(5件), 石隱補遺方(19方), 輪症霍亂門(19方)

2. 《方藥合編》의 增補概括

《方藥合編》은 간편하고도 실용에 알맞으며 또한 臨症施治에 빠뜨릴 수 없는 韓方의 便覽書이다. 그것은 발행된 이후로 오늘날까지 약 수십여 종의 《方藥合編》이 增補되어 出刊되었다는 사실 하나 만으로도 능히 그 활용도를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方藥合編》은 그 韓醫學의 중요성에 걸맞게 수십여 종의 增補板들이 간행되면서 발전해왔는데 각자 板本마다 다양한 특징들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그 모습과 형식이 변화되어왔다. 그래서 《方藥合編》의 내용은 黃度淵이 처음 저술했던 《醫方活套》의 내용과는 板本別로 많은 변화가 보인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方藥合編》의 增補史에 관한 정리가 필요함을 알 수 있고 여기서 《方藥合編》의

增補에 대한 年譜와 그 增補板들에 대해 살펴본다.

1) 《方藥合編》의 年譜¹⁰⁾

- 1) 1807年(純祖7年, 丁卯): 原著者 黃度淵 出生.
- 2) 1855年(哲宗6年, 乙卯): <附方便覽>14券 編述.
- 3) 1868年(高宗5年, 戊辰): <醫宗損益>12권, 附錄<損益本草>1권 編述.
- 4) 1869年(高宗6年, 乙巳): <醫方活套>1권 編述.
- 5) 1884年(高宗21年, 甲申): 黃度淵 卒.
- 6) 1884年(高宗21年, 甲申): <方藥合編> 編輯 終.
- 7) 1885年(高宗22年, 乙酉): <方藥合編> 開刊.
 - 黃度淵의 原著<醫方活套>를 全載하고, 그 上欄에 <損益本草>를 合附하여 <方藥合編>이라 呼稱. 그의 아들 黃泌秀가 編述.
- 8) 1885年(高宗22年, 乙酉): 9월 <重訂方藥合編> 刊行.
- 黃度淵의 제자 玄公廉이 活套鍼線比舊加詳 重訂版으로 編述.
- 9) 1887年(高宗24年, 丁亥): <證脈方藥合編> 玄公廉 編述.
- 10) 1907年(隆熙元年, 丁未): <新訂方藥合編> 光東書局版.
 - <新訂大方藥合編> 文尚堂 版.
- 11) 1918年(日帝 大正7年, 戊午): <證脈方藥合編> 木版影印本 高裕相 編輯發行.
- 12) 1923年(日帝 大正12年, 癸亥): <原本證脈方藥合編> 博文書館 版.
- 13) 1926年(日帝 昭和2年, 丁卯): <增訂方藥合編> 大昌書館 版.
- 14) 1926年(日帝 昭和2年, 丁卯): <新校重訂方藥合編> 高裕相 編述. 汇東書館 版.
- 15) 1926年(日帝 昭和2年, 丁卯): <辨證方藥合編> 李常和 編述. 現世昌書館 版.
- 16) 1948年(大韓民國30年, 戊子): <新校方藥合編> 德興書林 版.
- 17) 1953年(大韓民國35年, 癸巳): <增訂方藥合編> 三中堂 版.
- 18) 1961年(大韓民國43年, 辛丑): <辨證方藥正傳> 朴炳浩 編著. 杏林書院.
- 19) 1963年(大韓民國45年): <辨證方藥正傳> 李泰浩 編著. 杏林書院.
- 20) 1975年(大韓民國57年): <增註國譯方藥合編> 廉泰煥 編著. 杏林書院.

10) 黃度淵, 對譯證脈方藥合編辨證增補板, 南山堂編輯局, 1977, p. 5.

8) 黃度淵, 上揭書, pp 364-366

9) 金亨泰, <方藥合編에 대한 연구>, 大田大 大學院, 1991.

- 21) 1976年(大韓民國58年): 〈增補國譯最新方藥合編〉 金義乾 編譯. 綜合通信教育院.
- 22) 1977年(大韓民國59年): 〈新訂對譯大方藥合編〉 李泰浩 編著. 杏林書院.
- 23) 1977年(大韓民國59年): 〈對譯證脈方藥合編〉 辨證增補版 南山堂編輯局 譯編.
- 24) 1978年(大韓民國60年): 〈對譯證脈方藥合編〉 辨證增補懷中版 南山堂編輯局 譯編.
- 25) 1978年(大韓民國60年): 〈辨證論治方藥合編〉 南山堂編輯局.
- 26) 1988年(大韓民國70年): 〈方藥合編解說〉 申載鏞 編著. 成輔社.

2) 《方藥合編》의 增補板

黃度淵이 78세로 作故하기 전에 醫業을 이어 받을 아들 黃泌秀¹¹⁾에게 著書인 《醫方活套》와 《損益本草》를 내주면서, 清 汪訥庵의 《本草備要》와 《醫方集解》를 合編한 것과 같은 방법을 본따서 上, 中, 下 三 統으로 된 《醫方活套》에 《損益本草》를 합하여 책을 만들되 머리에 本草를 싣고, 거기에 用藥綱領·救急·禁忌 등 십여 가지를 보태어 《方藥合編》이라는 책명을 붙이라고 命하고¹²⁾ 編纂刻板中 下世한 후 그 해 연말에 책이 開刊된 후로 여러 형태로 增補板으로 출간되었다. 이에 수차에 걸쳐 增補板으로 나온 책들에 대하여 알아본다.

(1) 方藥合編의 原本

上段에 《損益本草》의 山草(43種)에서부터 金石(35種)에 이르기까지 34類 總514種의 藥物을 차례로 배열하였다.

그리고 下段에 《醫方活套》의

上統-(原方 123方, 附方 32方, 諸傷 8方, 解毒 2方, 雜方 14方, 製造法 26方)

中統-(原方 181方, 附方 33方)

下統-(原方 161方, 附方 38方, 諸種禁忌 5件)

11) 恒村 黃泌秀 : 高宗朝 韓方界의 第一人者로 高名하였던 惠庵 黃度淵先生의 아들로 本貫은 昌原, 號는 恒村이다. 漢學에 達通, 文章에 能숙하였다. 이의 著書로 新式儒胥必知와 達道集註大全이 있고 奎章全韻과 方藥合編을 編述하였다. 孝誠이 지극하여 末尾의 惠庵을 잘 도와 서기 1885년 1월에 家親의 遺志인 方藥合編을 板刊한 이래 儒醫로서도 일려졌다. 高宗朝에서 郡守를 지낸 일이 있다고 한다. 方藥合編의 内력을 살펴 본 결과로는 후손 없이 서기 1885년 경에 他界한 것 같다. (黃度淵, 對譯證脈方藥合編辨證增補板, 南山堂編輯局, 1977, p. 5.)

12) 金義乾, 增補 國譯最新方藥合編, 東洋綜合通信教育院 1976. p. 9.

을 배열하였다.

(2) 重訂 方藥合編 (美隱 玄公廉 編述,¹³⁾)

原本에 證脈要訣을 重訂하였는데 《醫學入門》의 내용을 인용하여 雜病諸綱을 節目에 따라 본문을 간략히 하였으며 風門, 寒門, 濕門, 燥門, 火門 등 外氣와 內傷宿食, 氣, 血, 火, 鬱, 虛, 實 등에 대하여서도 언급하였다. 또한 積熱, 諸虛, 沈寒痼冷 등에 대한 痘症와 痘症에 대한 치방도 제시하였다. 臟腑本脈, 雜病吉凶脈, 癰疽脈, 求嗣脈, 男女老脈, 婦人經脈, 妊娠脈, 死脈 등 《醫學入門》의 脈法을 간략히 알기 쉽게 실은 것이 특징이다.

(3) 證脈 方藥合編 (美隱 玄公廉 編述.)

《方藥合編原本》과 《重訂方藥合編》에 活套鍼線을 加하여 운용하기 쉽게 하였고 痘症에 따라 藥方을 쉽게 운용할 수 있도록 隨症用藥 부분을 舊版에 비하여 상세하게 加筆하였다.

(4) 新訂大方藥合編 (文尚堂板)

臟腑總說을 침가하였고 藥性綱領 總論을 일목요연하게 실은 것이 특징이며, 평소 携帶하기 용이하고 찾아보기 쉽도록 目次에 쪽수를 정하였다.

(5) 辨證方藥合編 (李常和:活字本)

本書는 臟腑理知(參看解剖圖說), 臟腑字義及主病(風氣血虛冷熱), 經絡起止, 奇經部, 痘機外感, 五運主病樞要目, 診脈要訣, 保生大通, 須識扶陽說, 醫有微始從之理, 內傷外感致病十九字, 火字解, 寒熱虛實表裏陰陽辨, 醫門入法, 論汗法, 論和法, 論下法, 論消法, 論吐法, 論清法, 論溫法, 論補法 등 八法, 傷寒綱領, 主治四字, 經脈論, 陰症有三說, 論瘟疫, 六氣相雜須辨論, 論中風, 寒熱辨, 不語辨, 賢中類中辨, 雜病主治四字, 入門辨證訣, 色, 鼻, 脣, 口, 耳, 目, 身, 胸, 腹, 小腹, 四象論小

13) 美隱 玄公廉 : 惠庵 黃度淵先生의 首弟子로 字를 美隱, 號를 西齋라고 하였다. 黃泌秀 儒醫와는 同僚之間으로 생각된다. 黃度淵先生 卒 後에 黃必秀先生의 編述로 된 方藥合編이 高宗 21年 開刊되자 黃泌秀 儒醫의 지시를 받아 重訂하여 西紀 1885년 9월에 重訂方藥合編을 板刊하였고 계속 이의 增補를 꾀하여 西紀 1887년에는 證脈方藥合編을 發刊하였다. 그 후에 空齋 李常和先生이 辨證方藥合編을 西紀 1927년에 發刊하였으나 오늘날 方藥合編이라고 하면 책명이야 어쨌든 실제 내용으로서는 證脈方藥合編을 말하는 것으로 通하고 있다. (黃度淵, 對譯證脈方藥合編辨證增補板, 南山堂編輯局, 1977, p. 5.)

兒夭壽辨, 小兒面部形色賦, 簡易辨症治, 傷寒類傷寒辨主治, 傷寒六經見症及兼症外 七十種類別 痘症에 대하여 論하였다.

또한, 增補方 362方에 대해 수록하였는데 原本의 말미에 보충하였다. 대개 이 처방들은 《石室秘錄》에서 인용하였는데, 원래 《石室秘錄》에는 처방명이 없는 것을 李常和가 命名하여 삽입하였다. 즉 《石室秘錄》의 처방 내용은 《方藥合編》의 方들이 大經大法인데 反하여 대부분이 특수한 병을 모아 놓은 것들이 많으므로 《方藥合編》의 실용적인 方들과 부합이 되지 않는 面도 있다. 또한, 《方藥合編》은 《神農本草經》의 형식인 上品上通에서 인용하여 上, 中, 下統式으로 나열한 반면 《辨證方藥合編》의 增補方들은 이런 형식을 따르지 않고 그대로 배열되었다.

(6) 辨證 方藥正傳 (李常和:石板本)

前面部에 原道論, 攝生論, 陰陽論, 臟腑論 등 原理論을 실었고 中風, 內傷 및 五勞七傷, 六極, 婦人門, 小兒門 등을 덧붙여 첨가하였다.

또한 《辨證方藥合編》의 增補方에 488方을 더 첨가하여 總850方을 增補하였으며 ‘四物湯’, ‘六味湯’, ‘補中益氣湯’ 등 다용되는 병에 대해 加減法을 보충하였다.

(7) 增補國譯 最新方藥合編 (金義乾 編譯)

《原本方藥合編》의 上, 中, 下統의 처방을 찾기 쉽게 가나다순으로 目次를 정하였고, 또한 原文대로 처방순서를 배열하여 원문을 첨가하였다. 또한 李常和先生의 增補方 850方은 그대로 나열하였으며 책 말미의 加減法에 ‘四君子湯’, ‘二陳湯’, ‘平胃散’의 加減法을 첨가하였다. 또한 이 책의 특징은 어려운 한자를 國譯하여 어려운 낱말과 痘症에 대해 낱말을 풀이함에 있어 《東醫寶鑑》 및 著名한 先賢들의 著書를 동원하여 설명을 첨가하여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하였으며, 앞면에 韓方 生藥의 產地別 分布圖를 실었고, 生藥을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실었다.

그리고 衡量換算表를 실어 古代와 現代의 衡量을 비교하였다.

(8) 增註國譯 方藥合編 (康泰煥 編譯)

本書는 《方藥合編》의 意譯本으로 原本의 板形을 그대로 살리면서 곳곳에 增補文과 註文을 加入하여 《增註國譯 方藥合編》이라 名하였다.

本書의 특징은 약물의 분량을 규정하는 衡量에 對

하는 一錢이 3.75g이나 本書에는 4g으로 통일하여 표시하였으며 錢重도 함께 并用表示하여 알기 쉽게 하였다. 本書에서는 모든 약물명 위에 일련번호를 記하고 또한 가나다순 藥物索引表, 가나다순 處方索引表를 卷頭에 게재하여 索引에 편리하도록 하였다. 《方藥合編》의 藥性歌에 나오는 540種의 약물에 간혹 現用되는 약물을 첨가하여 增補하였다.

또한 用藥諸綱에 있어서도 약물의 修治加工法을 增補하였다.

(9) 訂正增補 方藥合編 (明文堂 編纂)

《新增證脈 方藥合編》에 韓方, 洋方의 痘名을 비교할 수 있는 병명 對照一覽表를 게재한 것이 특징이다.

(10) 新訂對譯 大方藥合編 (李泰浩 編著)

《新訂 大方藥合編》을 原文과 對譯으로 原文의 각 條文下에 우리말 意譯을 달아놓아 韓方에 초보적인 일반인들도 알기 쉽도록 하였다. 藥性分量比交에 있어서는 一錢이 3.75g인 것을 4g으로 환산하였으나 極性藥은 제대로 환산하여 염중을 기하였다.

(ll) 對譯證脈 方藥合編 (南山堂 板)

《方藥合編》의 原文을 上段과 右側에 놓아 原文을 살리면서 그 譯文을 下段과 左側에 두어서 原文을 보고 활용할 수도 있고 譯文을 보고도 알기 쉽고 이해하기 용이하도록 對譯式으로 편집한 것이 특징이다.

譯文은 간결하게 직역하였고 병명이나 증상 등의 해설에는 西洋醫學의 용어를 가미하여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특히 原文에 없는 適應症 項을 각 처방의 옆에 첨가하여 처방을 활용하는데 용이하도록 하였다. 또한 藥性歌 밑에 발음을 달아놓아 초보자도 쉽게 暗誦할 수 있도록 하였다.

(12) 辨證論治 方藥合編 (南山堂 板)

本書는 《對譯證脈 方藥合編》의 原方에다 새로이 《黃帝內經》의 〈素文〉, 〈靈樞〉를 비롯한 역대의 가의論述중에서 그 精粹를 拔萃하여 卷頭에 辨證論治 提要를 실었는데 陰陽五行의 變化, 인체 생성의 구조, 臟腑經絡組織, 氣血精神 化生 등 韓醫學의 原理論, 解剖學과 또한 察色論, 聞聲音論, 問診論, 診脈論 등의 四診要訣을 실었는데 이는 診斷學의 精粹이다.

또한 五運六氣, 痘機, 內傷, 外感辨證, 陰陽, 虛實,

表裏, 寒熱의 八綱辨證, 汗, 和, 吐, 下, 消, 清, 溫, 補 등의 八法, 本草論 등은 임상에 불가결한 부분들로서 그들을 原典대로 충분히 詳譯하여 실었다.

그리고 活套鍼線(辨證 方藥指鍼)에는 本方 附方外에 611方, 增補方 855方, 總 1476方을 綱羅하여 실었는 데 症候別로 分류함으로써 隨症施藥에 대응하였다.

또, 增補方 말미에는 상용되는 ‘四物湯’ ‘六味地黃湯’ ‘二陳湯’ ‘平胃散’ ‘補中益氣湯’의 加減法을 상세히 실었고 隨證治之 百病治療要領을 실어 정확한 방약과 그 이론체계를 습득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13) 方藥合編 解說 (申載鏞 編著)

本書는 기초이론 부분인 雜病諸綱등 이론분야를 생략하고 처방과 약물해설에 주력하여 임상치료에 큰 비중을 둔 것이 특징이다.

또한 增補方 855方과 그 밖의 국내외 臨床가들의 經驗方이나 새로이 創方되어 效驗이 확인된 처방 특히 저자의 愛用方 등 新增補方 340方을 신고 각 처방에 따르는 수천 개의 加減方을 수록하였다.

3. 세 板本에서의 〈活套鍼線〉에 대한 比較

여기서 세 板本이란 앞의 序論에서도 언급했듯 原本 《醫方活套》인 《惠庵心書古今三統醫方活套鍼線》과 《證脈方藥合編》, 그리고 《對譯證脈方藥合編辨證增補板》을 가리킨다. 세 板本에서 〈活套鍼線〉을 비교하면 항목별 변화, 처방별 변화, 항목기재순서변화와 처방기재순서변화로 나뉘는 순서변화, 誤脫字변화 그리고 그 외의 변화로 크게 다섯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다.

痰飲門을 예로 들어 항목별 변화와 처방별 변화를 살펴보자.

痰飲門 (原本)		
疾	咳 (喘)	痰 (嗽)
寒熱 (內外解)	寒熱 (喘嗽)	寒熱 (嗽)
通治六君子湯 (中四十九)	正傳加味二陳湯 (中八十四)	小青龍湯 (中九十九)
深覆加味二陳湯 (中九十九)	流注桂枝湯 (中九十九)	痰塊 (喘)
寒熱 (氣) (中四十三)	寒熱 (氣) (中四十三)	氣痰 (嗽)
通治六君子湯 (中四十九)	正傳加味二陳湯 (中八十四)	食痰 (食)
寒熱 (氣) (中四十三)	寒熱 (氣) (中四十三)	痰塊 (食)
通治六君子湯 (中四十九)	正傳加味二陳湯 (中八十四)	流 (注)
寒熱 (氣) (中四十三)	寒熱 (氣) (中四十三)	酒

痰飲門 (證脈方藥合編)		
疾	咳 (喘)	痰 (嗽)
寒熱 (內外解)	寒熱 (喘嗽)	寒熱 (嗽)
通治六君子湯 (中四十九)	正傳加味二陳湯 (中八十四)	小青龍湯 (中九十九)
深覆加味二陳湯 (中九十九)	流注桂枝湯 (中九十九)	痰塊 (喘)
寒熱 (氣) (中四十三)	寒熱 (氣) (中四十三)	氣痰 (嗽)
通治六君子湯 (中四十九)	正傳加味二陳湯 (中八十四)	食痰 (食)
寒熱 (氣) (中四十三)	寒熱 (氣) (中四十三)	痰塊 (食)
通治六君子湯 (中四十九)	正傳加味二陳湯 (中八十四)	流 (注)
寒熱 (氣) (中四十三)	寒熱 (氣) (中四十三)	酒

痰飲門 (惠庵心書)		
疾	咳 (喘)	痰 (嗽)
寒熱 (內外解)	寒熱 (喘嗽)	寒熱 (嗽)
通治六君子湯 (中四十九)	正傳加味二陳湯 (中八十四)	小青龍湯 (中九十九)
深覆加味二陳湯 (中九十九)	流注桂枝湯 (中九十九)	痰塊 (喘)
寒熱 (氣) (中四十三)	寒熱 (氣) (中四十三)	氣痰 (嗽)
通治六君子湯 (中四十九)	正傳加味二陳湯 (中八十四)	食痰 (食)
寒熱 (氣) (中四十三)	寒熱 (氣) (中四十三)	痰塊 (食)
通治六君子湯 (中四十九)	正傳加味二陳湯 (中八十四)	流 (注)
寒熱 (氣) (中四十三)	寒熱 (氣) (中四十三)	酒

<原本>의 痰飲門

<證脈本>의 痰飲門

항목변화를 보면 <原本>에는 痰厥이 맨 처음이지만 <證脈本>과 <對譯本>은 風痰이 맨 앞으로 오고 痰厥은 뒤쪽으로 밀려 流注와 痰塊사이에 위치한다. 그리고 <證脈本>의 濕痰과 酒痰, 그리고 驚痰은 <原本>에 없던 것이 추가로 삽입된 것이다. 또, <證脈本>의 痰飲通治는 <原本>에서는 항목명이 通治로 되어 있던 것이 바뀐게 사진에서 확인된다.

처방변화를 보면 <證脈本>의 風痰에서 小青龍湯(中27)이 <原本>보다 추가되고 寒痰에서 五積散(中13), 理中湯(上6), 二陳湯(中99), 八味元(上40)이 痰飲通治에서 是導痰湯(下3), 小青龍湯(中27) 두 처방이 <原本>보다 추가되어 있는 게 사진에서 확인된다.

다음으로 暑門을 예로 들어 순서변화에 대해 살펴보자.

<原本>의 暑門

<證脈本>의 暑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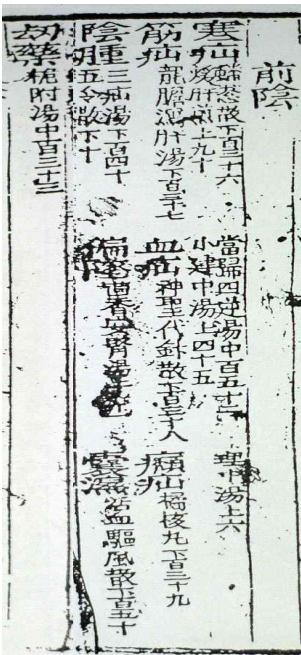
<對譯本>의 暑門

순서변화에는 條文 내 항목기재순서변화와 항목 내 처방기재순서변화로 나뉜다. 먼저 條文 내 항목기재순서변화를 보면 暑門 안에서 <證脈本>에서는 暑風이 暑滯, 補氣보다 뒤에 자리하지만 <對譯本>에서는 <證脈本>과 다르게 暑風이 暑滯, 補氣보다 먼저 나오는 점이 사진 상에서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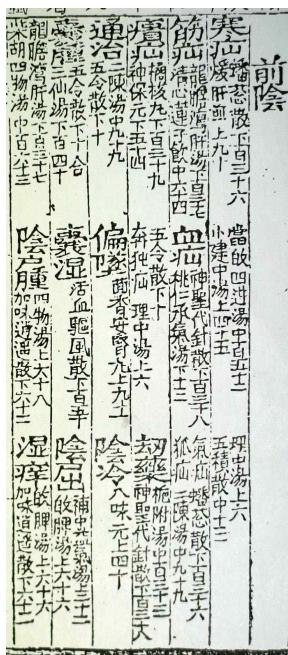
다음 항목 내 처방기재순서변화를 보면 <對譯本>의 吐瀉에서 처방기재순서가 六和湯(中36), 清暑六和湯

(中36), 縮脾飲(中37), 茄藿湯(中14), 理中湯(上6)의 순서인데 <證脈本>에서는 六和湯(中36), 縮脾飲(中37), 清暑六和湯(中36), 茄藿湯(中14), 理中湯(上6)의 순서로 <證脈本>과 <對譯本> 사이에 좀 차이를 보이는 게 사진에서 확인된다.

다음으로 前陰門을 예로 들어 誤字가 있는 것과 글자들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자.



<原本>의 前陰門



<證脈本>의 前陰門

前陰		原書	對譯本
寒症(14)	通治(中14)	寒症(14)	血症(寒症)
通治(中14)	筋症(14)	通治(中14)	筋症(14)
筋症(14)	氣症(14)	筋症(14)	氣症(14)
氣症(14)	瘡症(14)	氣症(14)	瘡症(14)
瘡症(14)	劫症(14)	瘡症(14)	劫症(14)
劫症(14)	寒症(14)	劫症(14)	寒症(14)
寒症(14)	血症(寒症)	寒症(14)	血症(寒症)

<對譯本>의 前陰門

前陰門에서는 誤字가 발견된다. <證脈本>과 <對譯本>의 囊腫의 처방에서 三仙湯(下140)이 보이는데 <原本>에는 陰腫에 三疝湯(下140)으로 되어 있는 게 사진에서 확인된다.

그리고 五苓散(下10)을 보면 <原本>과 <證脈本>에는 五令散으로 <對譯本>에는 五苓散으로 되어 있는 게 사진에서 확인된다.

이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活套鍼線> 全文에 걸친變化像을 도표로 정리하여 다음에 서술하였다.

1) 風

風門에서 세 가지 板本을 비교해보면 일단 항목변화는 <證脈本>(14)과 <對譯本>(15)에서 17번 破傷風이 <原本>과 비교해 추가삽입 되었다. 다음으로 처방변화는 <證脈本> 6번의 暴瘡에서 앞에 없었던 滷瘻湯(下3), 十全大補湯(上33), 凉膈散(下21)이 추가되었고 9번의 癰瘻에서도 앞에 없었던 十全大補湯(上33), 四物湯(上68), 六君子湯(上69), 獨活寄生湯(上88)이 추가되었고 10번의 痰盛에서는 凉膈散(下21)이 추가되었다. 14번 通治에서는 <原本>(16)에 없던 烏藥順氣散(中10), 八味元(上40), 六味元(上40)이 추가되었다.

그 외의 변화에는 <證脈本> 8번의 鼻額痛을 <對譯本>에서는 鼻頭痛으로 되있는 게 눈에 띠고 14번 通治

14) 本論文에서 <證脈本>은 1887년 黃度淵의 제자인 美隱玄公廉이 編述한 <證脈方藥合編>中 隨症用藥比舊加詳의 活套鍼線부분을 指稱한다.

15) 本論文에서 <對譯本>은 南山堂編輯局에서 1977년 刊行한 <對譯證脈方藥合編辨證增補板>中 活套鍼線을 指稱한다.

16) 本論文에서 <原本>은 黃度淵先生이 1869年 著述한 <惠庵心書古今三統醫方活套鍼線>을 指稱한다.

에서 <證脈本>의 六味元이 <對譯本>에서 六味地黃元으로 바뀐 것이 확인된다. 또한 특이하게도 12번의 虛症에서는 <原本>에서는 있던 萬金湯뒤의 亦治手足風이라 는 글귀가 <證脈本>과 <對譯本>에서는 삭제되었다.

이를 도표로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다.

<原本>

1	中風	小續命湯(中1)
2	中腑	疎風湯(中2)
3	中臟 二便閉 閉	滋潤湯(下1)
4	中腑 中臟	羌活愈風湯(中3)
5	救急	牛黃清心元(中7) 星香正氣散(中4)
6	暴瘡	腎瀝湯(上1) 地黃飲子(上2) 滌痰湯(下3) 涼膈散(下21) 十全大補湯(上33)
7	喝斜	牽正散(下2) 理氣祛風散(中8)
8	鼻額痛	犀角升麻湯(中9)
9	癱瘓	加味大補湯(上3) 四物湯(上68) 十全大補湯(上33) 六君子湯(上69) 獨活寄生湯(上88)
10	痰盛	導痰湯(下3) 涼膈散(下21) 導痰君子湯(下3)
11	熱症	防風通聖散(下4)
12	虛症	萬金湯(上4)亦治手足風 八寶迴春湯(上5)
13	調氣	烏藥順氣散(中10)
14	通治	木香保命丹(下5)
15	風痺	行濕流氣散(下18)
16	歷節風	大羌活湯(下6) 疏風活血湯(中5) 靈仙除痛飲(中6)
17	破傷風	瓜蔞枳實湯(下69) 九味羌活湯(中11)

<證脈本>

1	中風	小續命湯(中1)
2	中腑	疎風湯(中2)
3	中臟 二便閉 閉	滋潤湯(下1)
4	中腑 中臟	羌活愈風湯(中3)
5	救急	牛黃清心元(中7) 星香正氣散(中4)
6	暴瘡	腎瀝湯(上1) 地黃飲子(上2)
7	喝斜	牽正散(下2) 理氣祛風散(中8)
8	鼻額痛	犀角升麻湯(中9)
9	癱瘓	加味大補湯(上3)
10	痰盛	導痰湯(下3) 導痰君子湯(下3)
11	熱症	防風通聖散(下4)
12	虛症	萬金湯(上4)亦治手足風 八寶迴春湯(上5)
13	調氣	烏藥順氣散(中10)
14	通治	木香保命丹(下5)
15	風痺	行濕流氣散(下18)
16	歷節風	大羌活湯(下6) 疏風活血湯(中5) 靈仙除痛飲(中6)
17	破傷風	瓜蔞枳實湯(下69) 九味羌活湯(中11)

<對譯本>

1	中風	小續命湯(中1)
2	中腑	疎風湯(中2)
3	中臟 二便閉 閉	滋潤湯(下1)
4	中腑 中臟	羌活愈風湯(中3)
5	救急	牛黃清心元(中7) 星香正氣散(中4)
6	暴瘡	腎瀝湯(上1) 地黃飲子(上2) 滌痰湯(下3) 十全大補湯(上33) 涼膈散(下21)
7	喝斜	牽正散(下2) 理氣祛風散(中8)
8	鼻頭痛	犀角升麻湯(中9)
9	癱瘓	加味大補湯(上3) 十全大補湯(上33) 四物湯(上68) 六君子湯(上69) 獨活寄生湯(上88)
10	痰盛	導痰湯(下3) 導痰君子湯(下3)
11	熱症	防風通聖散(下4)
12	虛症	萬金湯(上4)亦治手足風 八寶迴春湯(上5)
13	調氣	烏藥順氣散(中10)
14	通治	木香保命丹(下5) 烏藥順氣散(中10) 六味地黃元(上40) 八味元(上40)
15	風痺	行濕流氣散(下18) 香蘇散(中17) 萬金湯(上4)
16	歷節風	大羌活湯(下6) 疏風活血湯(中5) 靈仙除痛飲(中6)
17	破傷風	瓜蔞枳實湯(下69) 九味羌活湯(中11)

<對

2) 寒

寒門에서 세 개의 板本을 보면 <原本>과 <證脈本>은 비교적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고 <證脈本>과 <對譯本>은 차이점이 적었다.

먼저 항목변화를 보자면 <證脈本>을 기준으로 10번 半表裡, 11번 陰極似陽, 12번 陽極似陰, 17번 發狂, 20번 戴陽, 25번 痘氣, 26번 吐蛔, 27번 結胸, 28번 臟腑停寒, 38번 大頭瘡이 <原本>에서는 안보이지만 통째로 추가되었다.

다음으로 처방변화는 32번 孕婦傷寒에서 <原本>에서는 안 보이는 凉膈散(下21)과 理中湯(上8) 두 개의 처방이 더해졌고 35번 內傷外感에서는 <原本>에는 있던 陶氏補中益氣湯(上22)이 <證脈本>과 <對譯本>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그 외의 변화는 37번 瘫疫에서 특이 한 점이 발견된다. <原本>에서는 瘫疫뒤에 大頭瘡이 존재하지 않고 瘫疫이 제목에 해당하는 寒과 같은 크기의 글씨로 한 줄을 모두 채우고 있어 마치 寒門과 暑門사이에 瘫疫門이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證脈本>과 <對譯本>을 살펴보면 瘫疫뒤에 大頭瘡¹⁷⁾이 추가되어지고 瘫疫과 大頭瘡도 寒門에 포함되는 것으로 기재되었다.¹⁸⁾ 그리고 <證脈本>과 <對譯本>을 비교해 볼 때 처방들의 기재순서가 달라진 것이 확인된다.¹⁹⁾

이를 도표로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다.

17) 大頭瘡 : 瘫疫의 일종. 大頭風, 大頭痛, 時毒, 大頭傷寒, 蝦蟆瘡, 摶頭瘡, 大頭天行, 疫毒이라고도 함. 즉 頭面部가 벌 걸게 붓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瘫病을 가리킨다.

18) 대부분의 韓醫書에서 六氣를 순서대로 표현하는 慣例를 볼 때 이는 <原本>에서 錯誤가 있었던듯하고 <證脈本> 저술시에 바로잡은 것으로 사료된다.

19) 古書에서는 책을 쓸때 순서를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우측에서 좌측으로 써내려간다. 처방을 기재하는 순서도 마찬가지 순서인데 <對譯本>에서 이 순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 그냥 근래의 인쇄본 책을 보는 순서대로 처방을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모든 韓醫書가 그렇듯 처방순서는 질환별로 처방의 활용도도 포함된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처방순서의 기재는 신중해야 할 부분일 것이다.

<原本>

1	太陽	九味羌活湯(中11)
2	陽明	葛根解肌湯(中12) 白虎湯(下7)
3	少陽	小柴胡湯(中25)
4	太陰	理中湯(上6)
5	少陰	真武湯(上7)
6	三陰	四逆湯(上8)
7	陰症	五積散(中13) 人參養胃湯(中16) 藿香正氣散(中14) 不換金正氣散(中15) 理陰煎(上11) 地黃湯(上40)
8	表症	香蘇散(中17) 十神湯(中18) 人參敗毒散(中19) 香葛湯(中20) 參蘇飲(中26) 小青龍湯(中27)
9	裡症	大柴胡湯(下9) 小承氣湯(下8) 大承氣湯(下8) 調胃承氣湯(下8)
10	煩躁	梔豉湯(下11)
11	煩渴	五令散(下10) 四令散(下10)
12	煩熱	辰砂五令散(下10)
13	動悸	陶氏升陽散火湯(中28)
14	譫語	黃連解毒湯(下12) 辰砂益元散(下16)
15	血結	桃仁承氣湯(下13)
16	自利	柴苓湯(下14)

<證脈本>

1	太陽	九味羌活湯(中11)
2	陽明	葛根解肌湯(中12) 白虎湯(下7)
3	少陽	小柴胡湯(中25)
4	太陰	理中湯(上6)
5	少陰	真武湯(上7)
6	三陰	四逆湯(上8)
7	陰症	五積散(中13) 不換金正氣散(中15) 人參養胃湯(中16) 理陰煎(上11) 藿香正氣散(中14) 地黃湯(上40)
8	表症	香蘇散(中17) 十神湯(中18) 人參敗毒散(中19) 香葛湯(中20) 參蘇飲(中26) 小青龍湯(中27)
9	裡症	大柴胡湯(下9) 大承氣湯(下8) 調胃承氣湯(下8)
10	半表裏	小柴胡湯(中25)
11	陰極似陽	四逆湯(上8) 理中湯(上6)
12	陽極似陰	大柴胡湯(下9) 白虎湯(下7)
13	煩躁	梔豉湯(下11)
14	煩渴	五苓散(下10) 四苓散(下10)
15	煩熱	辰砂五苓散(下10)
16	動悸	陶氏升陽散火湯(中28)
17	發狂	大承氣湯(下8) 辰砂五苓散(下10)
18	譫語	黃連解毒湯(下12) 辰砂益元散(下16)調胃承氣湯(下8)
19	血結	桃仁承氣湯(下13)
20	戴陽	理中湯(上6)
21	戰慄	理中湯(上6) 四逆湯(上8)
22	自利	柴苓湯(下14)
23	虛痢	錢氏異功散(上19) 白朮散(上120)
24	壞症	蓼芽芍藥湯(下15)

<對譯本>

1	太陽	九味羌活湯(中11)
2	陽明	葛根解肌湯(中12) 白虎湯(下7)
3	少陽	小柴胡湯(中25)
4	太陰	理中湯(上6)
5	少陰	真武湯(上7)
6	三陰	四逆湯(上8)
7	陰症	五積散(中13) 不換金正氣散(中15) 人參養胃湯(中16) 理陰煎(上11) 藿香正氣散(中14) 地黃湯(上40)
8	表症	香蘇散(中17) 十神湯(中18) 人參敗毒散(中19) 香葛湯(中20) 參蘇飲(中26) 小青龍湯(中27)
9	裡症	大柴胡湯(下9) 大承氣湯(下8) 調胃承氣湯(下8)
10	半表裏	小柴胡湯(中25)
11	陰極似陽	四逆湯(上8) 理中湯(上6)
12	陽極似陰	大柴胡湯(下9) 白虎湯(下7)
13	煩躁	梔豉湯(下11)
14	煩渴	五苓散(下10) 四苓散(下10)
15	煩熱	辰砂五苓散(下10)
16	動悸	陶氏升陽散火湯(中28)
17	發狂	大承氣湯(下8) 辰砂五苓散(下10)
18	譫語	黃連解毒湯(下12) 辰砂益元散(下16)調胃承氣湯(下8)
19	血結	桃仁承氣湯(下13)
20	戴陽	理中湯(上6)
21	戰慄	理中湯(上6) 四逆湯(上8)
22	自利	柴苓湯(下14)
23	虛痢	錢氏異功散(上19) 白朮散(上120)
24	壞症	蓼芽芍藥湯(下15)
25	痞氣	桔梗枳殼湯(中134)
26	吐蛔	安蛔理中湯(上70) 小柴胡湯(中25)
27	結胸	五積散(中13)
28	臟腑停寒	附子理中湯(上9) 四柱散(上72)

17	虛病	錢氏異功散(上19) 白朮散(上120)	25	痞氣	桔梗枳殼湯(中134)	29	勞復	麥門冬湯(中29)
18	壞症	參胡芍藥湯(下15)	26	吐蛔	安蛔理中湯(上70) 小柴胡湯(中25)	30	食復	陶氏平胃散(下29)
			27	結胸	五積散(中13)	31	女勞復	人蔘逍遙散(中30)
			28	臟腑停寒	附子理中湯(上9) 四柱散(上72)			芎蘇散(中21)
19	勞復	麥門冬湯(中29)	29	勞復	麥門冬湯(中29)	32	孕婦傷寒	紫蘇飲(中160) 涼膈散(下21) 理中湯(上8)
20	食復	陶氏平胃散(下29)	30	食復	陶氏平胃散(下29)	33	中寒	附子理中湯(上9)
21	女勞復	人蔘逍遙散(中30)	31	女勞復	人蔘逍遙散(中30)			九味羌活湯(中11) 和解飲(中23)
22	孕婦傷寒	芎蘇散(中21) 紫蘇飲(中160)	32	孕婦傷寒	芎蘇散(中21) 紫蘇飲(中160) 涼膈散(下21) 理中湯(上8)	34	感冒	升麻葛根湯(中22) 正柴胡飲(中24) 麻桂飲(中31)
23	中寒	附子理中湯(上9)	33	中寒	附子理中湯(上9)	35	內傷外感	補中益氣湯(上22) 白朮散(上120) 地黃湯(上40) 補陰益氣煎(上10) 理陰煎(上11) 雙和湯(上31)
24	感冒	九味羌活湯(中11) 升麻葛根湯(中22) 和解飲(中23) 正柴胡飲(中24) 麻桂飲(中31)	34	感冒	九味羌活湯(中11) 和解飲(中23) 升麻葛根湯(中22) 正柴胡飲(中24) 麻桂飲(中31)	36	食積類傷寒	陶氏平胃散(下29)
25	內傷外感	補中益氣湯(上22) 陶氏補中益氣湯(上22) 白朮散(上120) 補陰益氣煎(上10) 理陰煎(上11) 地黃湯(上40) 雙和湯(上31)	35	內傷外感	補中益氣湯(上22) 白朮散(上120) 地黃湯(上40) 補陰益氣煎(上10) 理陰煎(上11) 雙和湯(上31)	37	瘟疫	荊防敗毒散(中19) 十神湯(中32) 神契香蘇散(中33) 麻桂飲(中31)
26	食積類傷寒	陶氏平胃散(下29)	36	食積類傷寒	陶氏平胃散(下29)	38	大頭瘟	荊防敗毒散(中19) 防風通聖散(下4)
27	瘟疫	荊防敗毒散(中19) 神契香蘇散(中33) 十神湯(中32) 麻桂飲(中31)	37	瘟疫	荊防敗毒散(中19) 十神湯(中32) 神契香蘇散(中33) 麻桂飲(中31)			
			38	大頭瘟	荊防敗毒散(中19) 防風通聖散(下4)			

3) 暑

暑門에서 세 板本을 비교하면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原本>과 <證脈本>은 비교적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고 <證脈本>과 <對譯本>은 차이점이 별로 발견되지 않는다.

먼저 항목변화는 <證脈本>을 기준으로 1번 中暑와 2번 中渴 이 <原本>에 없던 것이 통째로 추가되었다.

처방변화는 5번 暑風에서 蕁香正氣散(中14), 六和湯(中36), 香薷散(中35), 人蔘羌活散(中119) 네 개의 처방이 추가되었고 6번의 煩渴에서는 人蔘白虎湯(下7)이 추가되었다. 그리고 7번 吐瀉에서 理中湯(上6)과 9번 注夏에서 補中益氣湯(上22), 生脈散(上12)이 추가되었다.

暑門에서는 순서변화도 눈에 띠는데 <對譯本>에서 <證脈本>과 다르게 暑風이 暑滯, 補氣보다 먼저 나오는 점이 확인된다.²⁰⁾ 또, 여기서도 <對譯本>에서 처방기재순서가 <證脈本>과 좀 차이를 보인다.

그 외의 변화는 醒醐湯 뒤에 있는 글귀인데 <原本>에서는 그냥 雜方이라고만 되어 있던게 <證脈本>에서는 上 한 글자가 추가되어 醒醐湯上雜方로 바뀌었고 <對譯本>에서는 286面上이라는 글귀가 들어가 있는 게 다르다.²¹⁾

이를 도표로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다.

<原本>			<證脈本>			<對譯本>		
			1 中暑	二香散(中34) 六和湯(中36) 茹薷湯(中14)		1 中暑	二香散(中34) 茹薷湯(中14) 六和湯(中36)	
1 暑滯	香薷養胃湯(中16)		2 中渴	人蔘白虎湯(下7) 蒼朮白虎湯(下7)		2 中渴	人參白虎湯(下7) 蒼朮白虎湯(下7)	
2 補氣	生脈散(上12) 清暑益氣湯(上13)		3 暑風	二香散(中34) 消暑敗毒散(中19) 藿香正氣散(中14) 六和湯(中36) 香薷散(中35) 人蔘羌活散(中169)		3 暑滯	香薷養胃湯(中16)	
3 暑風	二香散(中34) 消暑敗毒散(中19)		4 暑滯	香薷養胃湯(中16)		4 補氣	生脈散(上12) 清暑益氣湯(上13)	
4 煩渴	益元散(下16) 醍醐湯雜方 春澤湯(下10)		5 補氣	生脈散(上12) 清暑益氣湯(上13)		5 暑風	二香散(中34) 消暑敗毒散(中19) 藿香正氣散(中14) 香薷散(中35) 六和湯(中36) 人蔘羌活散(中119)	
5 吐瀉	六和湯(中36) 清暑六和湯(中36) 縮脾飲(中37) 茹薷湯(中14)		6 煩渴	益元散(下16) 春澤湯(下10) 人蔘白虎湯(下7) 醍醐湯(286面上)		6 煩渴	益元散(下16) 春澤湯(下10) 人參白虎湯(下7) 醍醐湯上雜方	
6 伏暑	酒蒸黃連丸(下17)		7 吐瀉	六和湯(中36) 清暑六和湯(中36) 縮脾飲(中37) 茹薷湯(中14) 理中湯(上6)		7 吐瀉	六和湯(中36) 縮脾飲(中37) 清暑六和湯(中36) 茹薷湯(中14) 理中湯(上6)	
7 注夏	參歸益元湯(上14)		8 伏暑	酒蒸黃連丸(下17)		8 伏暑	酒蒸黃連丸(下17)	
8 通治	香薷散(中35) 香平散(下22) 四君子湯(上64)		9 注夏	蓼歸益元湯(上14) 補中益氣湯(上22) 生脈散(上12)		9 注夏	蓼歸益元湯(上14) 補中益氣湯(上22) 生脈散(上12)	
			10 通治	香薷散(中35) 四君子湯(上64) 香平散(下22)		10 通治	香薷散(中35) 香平散(下22) 四君子湯(上64)	

20) <對譯本>에서 暑風이 暑滯, 補氣보다 먼저 나오는 점은 일 반적으로 外感이 内傷보다 먼저 기재되는 韓醫書의 특징에

4) 濕

濕門에서 세 개의 板本을 보면 <原本>과 <證脈本>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고 <證脈本>과 <對譯本>은 차이점이 적었다.

우선 항목변화는 <證脈本>을 기준으로 4번 瘴濕, 5번 濕溫, 6번 濕熱, 8번 通治 네 개의 항목이 <原本>과 비교했을 때 통째로 추가되었다.

다음 처방변화는 2번 中濕에서 五苓散(下10) 한 개의 처방이 추가되었다.

그 외에 순서변화도 보이는데 항목기재순서는 세 판본 모두 변화가 없지만 항목 내 처방기재순서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對譯本>에서 <證脈本>보다 조금 변화되었다.

이를 도표로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다.

<原本>			<證脈本>			<對譯本>		
1 露霧	神朮散(中38)		1 露霧	神朮散(中38)		1 露霧	神朮散(中38)	
2 中濕	勝濕湯(上15)		2 中濕	勝濕湯(上15) 五苓散(下10)		2 中濕	勝濕湯(上15) 五苓散(下10)	
3 風寒濕	三氣飲(上16) 五積散(中13)		3 風寒濕	三氣飲(上16) 五積散(中13)		3 風寒濕	三氣飲(上16) 五積散(中13)	
			4 瘴濕	不換金正氣散(中15) 藿香正氣散(中14) 柴苓湯(下14) 平胃散(下22) 補中益氣湯(上22)		4 瘴濕	不換金正氣散(中15) 平胃散(下22) 藿香正氣散(中14) 補中益氣湯(上22) 柴苓湯(下14)	
			5 濕溫	蒼朮白虎湯(下7) 白虎湯(下7) 五苓散(下10)		5 濕溫	蒼朮白虎湯(下7) 五苓散(下10) 白虎湯(下7)	
			6 濕熱	防風通聖散(下4)		6 濕熱	防風通聖散(下4)	
4 濕痺	行濕流氣散(下18)		7 濕痺	行濕流氣散(下18)		7 濕痺	行濕流氣散(下18)	
			8 通治	升陽除濕湯(下88) 平胃散(下22) 五苓散(下10)		8 通治	升陽除濕湯(下88) 五苓散(下10) 平胃散(下22)	

5) 燥

燥門은 간단하고 변화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原本>에서 항목명이 治燥였던 것이 <證脈本>과 <對譯本>에서 通治로 바뀐 것만 눈에 띈다.

처방변화와 순서변화 등의 다른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이를 도표로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다.

<原本>

1 治燥	當歸承氣湯(下19) 生血潤膚飲(中39)
------	--------------------------

<證脈本>

1 通治	當歸承氣湯(下19) 生血潤膚飲(中39)
------	--------------------------

<對譯本>

1 通治	當歸承氣湯(下19) 生血潤膚飲(中39)
------	--------------------------

따라 <對譯本>에서 순서가 바뀐 것으로 추측된다.

21) <原本>과 <證脈本>에서는 醒肺湯이 雜方에 있다고 한 것이고 <對譯本>에서는 286페이지에 있다고 표시한 것이다.

6) 火

火門에서 세 개의 板本을 보면 앞에서와 같이 <原本>과 <證脈本>은 비교적 많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고 <證脈本>과 <對譯本>은 차이점이 적었다. 먼저 항목변화는 <證脈本>을 기준으로 2번 下焦熱, 8번 氣虛熱, 9번 血虛熱, 10번 陽虛惡寒, 11번 陰虛惡寒, 13번 陰虛火動이 <原本>에 없던 항목인데 <證脈本>에서 추가된 것이다.

다음으로 처방변화는 역시 <證脈本>을 기준으로 5번 潮熱에서 參蘇飲(中26), 人參養榮湯(上35), 伏令補心湯(中93), 人參清肌散(中41) 네 개의 처방이 추가되고 6번 骨蒸에서 四物湯(上68)이 그리고 7번 虛熱에서 十全大補湯(上33)이 <原本>보다 <證脈本>에서 추가되었음이 확인된다.

그 외에 순서변화도 눈에 띠는데 <原本>의 骨蒸과 潮熱의 항목기재순서가 <證脈本>에서 바뀌어 潮熱이 먼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도 앞서와 같이 5번 潮熱에서 처방기재순서가 <證脈本>과 <對譯本>간에 차이점이 보인다.

이를 도표로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다.

<原本>			<證脈本>			<對譯本>		
1	上焦熱	九味清心元(下20)	1	上焦熱	九味清心元(下20)	1	上焦熱	九味清心元(下20)
2	心熱	醒心散(中40)	2	下焦熱	八正散(下79) 五苓散(下10)	2	下焦熱	八正散(下79) 五苓散(下10)
3	積熱	涼膈散(下21)	3	心熱	醒心散(中40)	3	心熱	醒心散(中40)
4	骨蒸	人參清肌散(中41)	4	積熱	涼膈散(下21)	4	積熱	涼膈散(下21)
5	潮熱	逍遙散(中166) 補中益氣湯(上22)	5	潮熱	逍遙散(中166) 參蘇飲(中26) 補中益氣湯(上22) 人參養榮湯(上35) 伏令補心湯(中93) 人參清肌散(中41)	5	潮熱	逍遙散(中166) 補中益氣湯(上22) 參蘇飲(中26) 人參養榮湯(上35) 茯苓補心湯(中93) 人參清肌散(中41)
6	虛熱	當歸補血湯(上17) 鎮陰煎(上67) 理陰煎(上11)	6	骨蒸	人參清肌散(中41) 四物湯(上68)	6	骨蒸	人參清肌散(中41) 四物湯(上68)
7			7	虛熱	當歸補血湯(上17) 鎮陰煎(上67) 理陰煎(上11) 十全大補湯(上33)	7	虛熱	當歸補血湯(上17) 鎮陰煎(上67) 理陰煎(上11) 十全大補湯(上33)
8			8	氣虛熱	補中益氣湯(上22) 四君子湯(上64)	8	氣虛	補中益氣湯(上22) 四君子湯(上64)
9			9	血虛熱	滋陰降火湯(中42)	9	血虛	滋陰降火湯(中42)
10			10	陽虛惡寒	四君子湯(上64)	10	陽虛惡寒	四君子湯(上64)
11			11	陰虛惡寒	二陳湯(中99)	11	陰虛惡寒	二陳湯(中99)
12			12	陰虛	滋陰降火湯(中42) 清離滋坎湯(上18)	12	陰虛	滋陰降火湯(中42) 清離滋坎湯(上18)
13	陰虛	滋陰降火湯(中42) 清離滋坎湯(上18)	13	陰虛火動	六味地黃元(上40) 四物湯(上68)	13	陰虛	六味地黃元(上40)

7) 内傷

内傷門에서는 앞에서와 같이 <原本>과 <證脈本>은 비교적 많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고 <證脈本>과 <對譯本>은 차이점이 적었다.

우선 항목변화에는 <證脈本>을 기준으로 12번 嘒雜과 13번 噁氣가 <原本>에 없던 것이 추가되었다.

다음으로 처방변화는 <證脈本>의 4번 宿滯에서 <原本>에서 保和湯인 것이 保和丸으로 바뀌었고 7번 補益

에서 六君子湯(上69), 補中益氣湯(上22) 두 개 처방과 8번 酒傷에서 小調中湯(下68), 大調中湯(下68), 八物湯(上32) 세 개의 처방, 그리고 9번 勞傷에서 黃芪健中湯(上45), 雙和湯(上31) 두개 처방이 <原本>과 비교해 추가되었다.

그 외의 변화에는 앞의 조문과 마찬가지로 항목 내 처방기재순서가 변한 것이 있다.

이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原本>	<證脈本>	<對譯本>
1	食傷	平胃散(下22) 人參養胃湯(中16)大和中飲(下25) 香砂平胃散(下24) 內消散(下26) 枳朮丸(下23) 消滯丸(下27) 千金廣濟丸(下30)立效濟衆丹(下31)	平胃散(下22) 香砂平胃散(下24) 人參養胃湯(中16) 內消散(下26) 大和中飲(下25) 枳朮丸(下23) 消滯丸(下27) 立效濟中丹(下31) 千金廣濟丸(下30)	平胃散(下22) 人參養胃湯(中16) 大和中飲(下25) 香砂平胃散(下24) 內消散(下26) 枳朮丸(下23) 消滯丸(下27) 千金廣濟丸(下30) 立效濟衆丹(下31)
2	痰滯	正傳加味二陳湯(下71) 枳朮丸(下23)	正傳加味二陳湯(下71) 枳朮丸(下23)	正傳加味二陳湯(下71) 枳朮丸(下23)
3	冷滯	厚朴溫中湯(中143) 五積散(中13)	厚朴溫中湯(中143) 五積散(中13)	厚朴溫中湯(中143) 五積散(中13)
4	宿滯	保和湯(下39)	保和丸(下39)	保和丸(下39)
5	脾虛	異功散(上64) 香砂養胃湯(中43)	異功散(上64) 香砂養胃湯(中43)	異功散(上64) 香砂養胃湯(中43)
6	倒飽	香砂六君子湯(上20)	香砂六君子湯(上20)	香砂六君子湯(上20)
7	補益	錢氏異功散(上19) 參朮健脾湯(上21)	錢氏異功散(上19) 參朮健脾湯(上21) 六君子湯(上69) 補中益氣湯(上22)	錢氏異功散(上19) 六君子湯(上69) 參朮健脾湯(上21) 補中益氣湯(上22)
8	酒傷	對金飲子(下28)	對金飲子(下28) 小調中湯(下68) 大調中湯(下68) 八物湯(上32)	對金飲子(下28) 大調中湯(下68) 小調中湯(下68) 八物湯(上32)
9	勞傷	補中益氣湯(上22) 益胃升陽湯(上23)	補中益氣湯(上22) 益胃升陽湯(上23) 黃芪健中湯(上45) 雙和湯(上31)	補中益氣湯(上22) 益胃升陽湯(上23) 黃芪健中湯(上45) 雙和湯(上31)
10	久熱	凝神散(上24) 保和丸(下39)	凝神散(上24) 保和丸(下39)	凝神散(上24) 保和丸(下39)
11	吞酸	增味二陳湯(下32)	增味二陳湯(下32)	增味二陳湯(下32)
12	調補	參令白朮散(上25) 太和丸(上26) 九仙王道糕(上27)	參苓白朮散(上25) 太和丸(上26) 九仙王道糕(上27)	參令白朮散(上25) 太和丸(上26) 九仙王道糕(上27)
13	類傷寒	陶氏平胃散(下29)	陶氏平胃散(下29)	陶氏平胃散(下29)

8) 虛勞

虛勞門에서도 앞의 條文과 같이 <原本>과 <證脈本>은 비교적 많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고 <證脈本>과 <對譯本>은 차이점이 거의 없었다.

이 條文에서는 항목의 변화는 보이지 않고 처방변화만 확인되는데 1번 階虛에서 四物湯(上68), 滋陰降火湯(中42), 清離滋坎湯(上18), 2번 陽虛에서 四君子湯(上64), 益胃升陽湯(上23), 3번 階陽虛에서 古庵心腎丸(上36), 究原心腎丸(上37), 5번 肝虛에서 四物湯(上68), 雙和湯(上31), 6번 脾虛에서 參苓白朮散(上25), 8번 通治

에서 瓊玉膏(上61) 가 추가된 것이 확인된다.

순서변화도 처방기재순서에만 각 板本별로 약간의 변화를 보이고 있고 다른 차이점은 보이지 않는다. 이를 도표로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다.

<原本>			<證脈本>			<對譯本>		
1	陰虛	大造丸(上28) 四物湯(上68) 滋陰降火湯(中42) 清離滋坎湯(上18)	1	陰虛	大造丸(上28) 滋陰降火湯(中42) 四物湯(上68) 清離滋坎湯(上18)	1	陰虛	大造丸(上28)
2	陽虛	茸附湯(上29) 鹿茸大補湯(上30) 四君子湯(上64) 益胃升陽湯(上23)	2	陽虛	茸附湯(上29) 鹿茸大補湯(上30) 四君子湯(上64) 益胃升陽湯(上23)	2	陽虛	茸附湯(上29) 鹿茸大補湯(上30)
3	陰陽虛	雙和湯(上31) 八物湯(上32) 十全大補湯(上33) 人蔘養榮湯(上35) 固真陰子(上34) 古庵心腎丸(上36) 究原心腎丸(上37)	3	陰陽虛	雙和湯(上31) 十全大補湯(上33) 八物湯(上32) 人蔘養榮湯(上35) 固真陰子(上34) 究原心腎丸(上37) 古庵心腎丸(上36)	3	陰陽虛	雙和湯(上31) 八物湯(上32) 十全大補湯(上33) 固真陰子(上34) 人蔘養榮湯(上35)
4	心虛	古庵心腎丸(上36) 究原心腎丸(上37)	4	心虛	古庵心腎丸(上36) 究原心腎丸(上37)	4	心虛	古庵心腎丸(上36) 究原心腎丸(上37)
5	肝虛	供辰丹(上38) 四物湯(上68) 雙和湯(上31)	5	肝虛	供辰丹(上38) 雙和湯(上31) 四物湯(上68)	5	肝虛	供辰丹(上38)
6	脾虛	橘皮煎元(上39) 參苓白朮散(上25)	6	脾虛	橘皮煎元(上39) 參苓白朮散(上25)	6	脾虛	橘皮煎元(上39)
7	腎虛	六味地黃元(上40) 八味元(上40) 腎氣丸(上40) 增益歸茸丸(上41)	7	腎虛	六味地黃元(上40) 腎氣丸(上40) 八味地黃元(上40) 增益歸茸丸(上41)	7	腎虛	六味地黃元(上40) 八味地黃元(上40) 腎氣丸(上40) 增益歸茸丸(上41)
8	通治	雙補丸(上42) 小建中湯(上45) 二神交濟丹(上43) 右歸飲(上46) 大營煎(上47) 貞元飲(上49) 兩儀膏(上48) 瓊玉膏(上61)	8	通治	雙補丸(上42) 小建中湯(上45) 二神交濟丹(上43) 大營煎(上47) 兩儀膏(上48) 右歸飲(上46) 貞元飲(上49) 瓊玉膏(上61)	8	通治	雙補丸(上42) 二神交濟丹(上43) 小建中湯(上45) 右歸飲(上46) 大營煎(上47) 兩儀膏(上48) 貞元飲(上49)

22) 嘁(희) : 嘁氣라고도 한다. <景岳全書 雜證謨>에서 “噫란
飽食啖을때의 氣息인데 바로 嘁氣이다.”라고 했다.
(하락) (傳統醫學研究所, 東洋醫學大辭典, 成輔社, 2000,
p 2782.)

9) 霍亂

霍亂門에서도 마찬가지로 <原本>과 <證脈本>은 차이점들을 발견할 수 있고 <證脈本>과 <對譯本>은 차이점이 적었다.

항목변화는 <證脈本>을 기준으로 4번 食痺吐食²³⁾이 <原本>보다 추가되었다.

처방변화는 <證脈本>의 2번 轉筋에서 平胃散(下22), 理中湯(上6), 四物湯(上68) 세 개의 처방이 추가되었다.

그 외에 순서변화는 항목기재순서는 변화없고 처방기재순서가 <對譯本>에서 조금 변화된 게 확인된다.

이를 도표로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다.

<原本>

1	吐瀉	回生散(中44)
2	轉筋	木黃散(中45)
3	暑霍	六和湯(中36) 香薷散(中35)

<證脈本>

1	吐瀉	回生散(中44)
2	轉筋	木黃散(中45) 理中湯(上6) 平胃散(下22) 四物湯(上68)
3	暑霍	六和湯(中36) 香薷散(中35)
4	食痺吐食	不換金正氣散(中15)

<對譯本>

1	吐瀉	回生散(中44)
2	轉筋	木黃散(中45) 平胃散(下22) 理中湯(上6) 四物湯(上68)
3	暑霍	六和湯(中36) 香薷散(中35)
4	食痺吐食	不換金正氣散(中15)

10) 嘔吐

嘔吐門에서도 마찬가지로 <原本>과 <證脈本>은 차이점들을 발견할 수 있고 <證脈本>과 <對譯本>은 차이점이 적었다.

우선 항목변화는 <證脈本>을 기준으로 3번 惡心과 4번 反胃가 새로 추가된 것이 확인된다.

다음 처방변화는 <證脈本>의 2번 乾嘔에서 二陳湯(中99), 理中湯(上6), 六君子湯(上69) 세 개의 처방이 <原本>과 비교해 추가되었다.

그 외에 순서변화는 항목기재순서는 변화가 없고 항목 내 처방기재순서는 변화가 보인다.

이를 도표로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다.

<原本>

1	虛嘔	比和飲(上50)
2	乾嘔	生薑橘皮湯(中46)
3	噎膈	神香散(中47)

<證脈本>

1	虛嘔	比和飲(上50)
2	乾嘔	生薑橘皮湯(中46) 理中湯(上6) 二陳湯(中99) 六君子湯(上69)
3	惡心	二陳湯(中99)
4	反胃	蘇感元(下98)
5	噎膈	神香散(中47)

<對譯本>

1	虛嘔	比和飲(上50)
2	乾嘔	生薑橘皮湯(中46) 二陳湯(中99) 理中湯(上6) 六君子湯(上69)
3	惡心	二陳湯(中99)
4	反胃	蘇感元(下98)
5	噎膈	神香散(中47)

23) 食痺吐食 : <素門, 脈要精微論>,<素門, 至真要大論>에서 “食痺而吐”라고 하였는데 王冰은 注에서 “食痺란 음식을 먹은 후 心下에 정체되어 은근하게 아프지만 무어라 이름불일 수 없으며 참을 수 없는데 吐하면 멎는다. 이것은 胃氣가 上逆하여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하략) (傳統醫學研究所, 東洋醫學大辭典, 成輔社, 2000, p 1301.)

11) 咳嗽

咳嗽門에서는 <原本>과 <證脈本>과의 많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證脈本>에 이전과는 다르게 많은 부분이 추가되어졌고 <證脈本>과 <對譯本>은 차이점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먼저 항목변화에는 <證脈本>을 기준으로 2번 風嗽, 3번 寒嗽, 6번 热嗽, 7번 濕嗽, 8번 乾嗽, 9번 火嗽, 12번 肺脹肺痿, 14번 夜嗽, 15번 食積及痰嗽, 16번 酒嗽久嗽, 19번 火喘, 20번 陰虛喘, 21번 胃虛喘, 22번 風寒喘이 <原本>에 없던 게 추가되었다. 또, 18번 痰喘氣喘에서는 <原本>에는 痰喘으로 되어있는 것이 痰喘氣喘으로 항목이름이 바뀌었다.

다음으로 처방변화에는 <證脈本> 기준으로 1번 勞嗽에서 四物湯(上68), 瓊玉膏(上61)과 5번 鬱嗽에서 白散(下33), 腎氣丸(上40)과 10번 氣嗽에서 蘇子降氣湯

(中87), 加味四七湯(下70)과 11번 血嗽에서 四物湯(上68)과 23번 哮吼에서 千繙導痰湯(下35)이 <原本>에서 안 보이는 처방이 추가되었다. 그리고 18번 痰喘氣喘에서 蘇子降氣湯(中87), 三拗湯(中48), 神保元(下54), 四七湯(中82) 네 개의 처방이 <原本>보다 추가 된게 확인된다.

그 외에 순서변화를 보면 항목기재순서는 <原本>의 7번 痰喘, 8번 水咳의 순서가 <證脈本>에서는 17번 水咳, 18번 痰喘氣喘으로 순서가 바뀌었고 <證脈本>에서 18번 痰喘氣喘, 19번 火喘의 순서가 <對譯本>에서 18번 火喘, 19번 痰喘氣喘으로 순서가 바뀐게 확인된다. 처방기재순서도 각 板本별로 항목 내에서 변화가 조금씩 보이는데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옮겨 적는 과정에서의 착오로 보인다.

이를 도표로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다.

<原本>			<證脈本>			<對譯本>		
1	勞嗽	六味元(上40) 拱辰丹(上38) 古庵心腎丸(上36) 六君子湯(上69)	1	勞嗽	六味元(上40) 拱辰丹(上38) 四物湯(上68) 古庵心腎丸(上36) 六君子湯(上69) 瓊玉膏(上61)	1	勞嗽	六味地黃元(上40) 古庵心腎丸(上36) 拱辰丹(上38) 六君子湯(上69) 四物湯(上68) 瓊玉膏(上61)
2	風寒嗽	三拗湯(中48) 金水六君煎(上51) 六安煎(中49) 杏蘇湯(中50) 五果茶(中52)	2	風嗽	參蘇飲(中26)	2	風嗽	參蘇飲(中26)
3	鬱嗽	清金降火湯(下34) 滋陰降火湯(中42)	3	寒嗽	二陳湯(中99) 理中湯(上6) 三拗湯(中48) 參蘇飲(中26)	3	寒嗽	二陳湯(中99) 三拗湯(中48) 理中湯(上6) 參蘇飲(中26)
4	氣嗽	三子養親湯(中53)	4	風寒嗽	三拗湯(中48) 六安煎(中49) 杏蘇湯(中50) 金水六君煎(上51) 五果茶(中52)	4	風寒嗽	三拗湯(中48) 金水六君煎(上51) 六安煎(中49) 五果茶(中52) 杏蘇湯(中50)
5	血嗽	人參百合湯(中54)	5	鬱嗽	清金降火湯(下34) 瀉白散(下33) 滋陰降火湯(中42) 腎氣丸(上40)	5	鬱嗽	清金降火湯(下34) 滋陰降火湯(中42) 瀉白散(下33) 腎氣丸(上40)
6			6	熱嗽	辰砂益元散(下16) 小調中湯(下68)	6	熱嗽	辰砂益元散(下16) 小調中湯(下68)
7			7	濕嗽	五苓散(下10) 不換金正氣散(中15)	7	濕嗽	五苓散(下10) 不換金正氣散(中15)
8			8	乾嗽	四物湯(上68)	8	乾嗽	四物湯(上68)
9			9	火嗽	清金降火湯(下34)	9	火嗽	清金降火湯(下34)
10			10	氣嗽	蘇子降氣湯(中87)三子養親湯(中53)加味四七湯(下70)	10	氣嗽	蘇子降氣湯(中87)加味四七湯(下70)三子養親湯(中53)
11			11	血嗽	人參百合湯(中54) 四物湯(上68)	11	血嗽	人參百合湯(中54) 四物湯(上68)
12			12	肺脹肺痿	小青龍湯(中27) 四物湯(上68)	12	肺脹肺痿	小青龍湯(中27) 四物湯(上68)

6	肺實	瀉白散(下33)
7	痰喘	千繙導痰湯(下35) 定喘化痰湯(下36) 蘇子導痰降氣湯(下37)
8	水咳	小青龍湯(中27)
9	哮吼	定喘湯(中55) 解表二陳湯(中56) 清上補下丸(上52)
10	咳逆	丁香柿蒂散(上54) 橘皮竹茹湯(中57) 人參復脈湯(上53)
11	痢後寒噦	補中益氣湯(上22)

13	肺實	瀉白散(下33)
14	夜嗽	六味地黃元(上40)
15	食積及痰嗽	二陳湯(中99)
16	酒嗽久嗽	腎氣丸(上40)
17	水咳	小青龍湯(中27)
18	痰喘氣喘	千繙導痰湯(下35) 蘇子降氣湯(中87)三拗湯(中48) 定喘化痰湯(下36) 蘇子導痰降氣湯(下37) 神保元(下54) 四七湯(中82) 白虎湯(下7) 滋陰降火湯(中42)導痰湯(下3)
19	火喘	白虎湯(上68)
20	陰虛喘	生脈散(上12)
21	胃虛喘	理中湯(上6)
22	風寒喘	三拗湯(中48) 八味元(上40) 小青龍湯(中27) 藿香正氣散(中14)
23	哮吼	定喘湯(中55) 解表二陳湯(中56) 清上補下丸(上52) 千繙導痰湯(下35)
24	咳逆	丁香柿蒂散(上54) 人參復脈湯(上53)橘皮竹茹湯(中57)
25	痢後寒噦	補中益氣湯(上22)

13	肺實	瀉白散(下33)
14	夜嗽	六味地黃元(上40)
15	食積及痰嗽	二陳湯(中99)
16	酒嗽久嗽	腎氣丸(上40)
17	水咳	小青龍湯(中27)
18	火喘	白虎湯(下7) 導痰湯(下3) 滋陰降火湯(中42)
19	痰喘氣喘	千繙導痰湯(下35) 定喘化痰湯(下36) 蘇子降氣湯(中87) 蘇子導痰降氣湯(下37) 三拗湯(中48) 神保元(下54) 四七湯(中82)
20	陰虛喘	四物湯(上68)
21	胃虛喘	生脈散(上12) 理中湯(上6)
22	風寒喘	三拗湯(中48) 八味元(上40) 小青龍湯(中27) 藿香正氣散(中14)
23	哮吼	定喘湯(中55) 清上補下丸(上52)解表二陳湯(中56) 千繙導痰湯(下35)
24	咳逆	丁香柿蒂散(上54) 橘皮竹茹湯(中57) 人參復脈湯(上53)
25	痢後寒噦	補中益氣湯(上22)

12) 積聚

積聚門에서도 <原本>보다 <證脈本>에서는 여러 가지 積聚들이 추가된 게 확인되지만 <對譯本>은 앞의 것과 차이점이 적다.

먼저 항목변화는 <證脈本>을 기준으로 2번 食積, 3번 酒積, 4번 魚蟹積, 5번 果菜積, 6번 水積, 7번 血積, 8번 蟲積이 <原本>보다 추가 삽입되었다.

처방변화는 없고 순서변화는 <對譯本>의 10번 冷積에서 항목 내 처방기재순서의 변화가 보인다.

그 외의 변화로 <對譯本>의 8번 蟲積에서 紫金錠 뒤에 262面以上이란 글귀가 추가 된 게 눈에 띈다.²⁴⁾

이를 도표로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다.

24) <證脈本>에서는 紫金錠을 解毒門에 있다고만 표기한 것이고 <對譯本>에서는 262페이지에 있다고 표기한 것이다.

<原本>

<證脈本>

<對譯本>

1	六鬱	六鬱湯(下38)	1	六鬱	六鬱湯(下38)	1	六鬱	六鬱湯(下38)
			2..	食積	平胃散(下22)	2..	食積	平胃散(下22)
			3	酒積	對金飲子(下28)	3	酒積	對金飲子(下28)
			4	魚蟹積	香蘇散(中17)	4	魚蟹積	香蘇散(中17)
			5	果菜積	平胃散(下22)	5	果菜積	平胃散(下22)
			6	水積	芎夏湯(中100)	6	水積	芎夏湯(中100)
			7	血積	桃仁承氣湯(下13)	7	血積	桃仁承氣湯(下13)
			8	蟲積	紫金錠解毒	8	蟲積	紫金錠262面上
2	積聚	保和丸(下39) 消積正元散(下40) 大七氣湯(下41)	9	積聚	保和丸(下39) 大七氣湯(下41) 消積正元散(下40)	9	積聚	保和丸(下39) 大七氣湯(下41) 消積正元散(下40)
3.	冷積	理中湯(上6) 五積散(中13) 桂薑養胃湯(中16)	10	冷積	理中湯(上6) 五積散(中13) 桂薑養胃湯(中16)	10	冷積	理中湯(上6) 桂薑養胃湯(中16)五積散(中13)

13) 浮腫

浮腫門에서는 세 板本의 차이가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항목변화는 보이지 않고 처방변화가 있는데 2번 腫喘에서 <原本>에서는 分氣飲(中59)이었던 것이 <證脈本>과 <對譯本>에서는 分心氣飲(中83)으로 바뀌었다.²⁵⁾

그 외에 순서변화는 <對譯本> 6번 通治에서 처방기재 순서가 앞의 두 板本에 비해 조금 바뀌었다.

이를 도표로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다.

<原本>

<證脈本>

<對譯本>

1	陰水	實脾散(中58) 復元丹(上56) 理中湯(上6) 壯原湯(上55) 金匱地黃湯(上40)	1	陰水	實脾散(中58) 復元丹(上56) 理中湯(上6) 壯原湯(上55) 金匱地黃湯(上40)	1	陰水	實脾散(中58) 壯原湯(上55) 復元丹(上56) 金匱地黃丸(上40) 理中湯(上6)
2	腫喘	分氣飲(中59)	2	腫喘	分心氣飲(中83)	2	腫喘	分心氣飲(中83)
3	暑腫	清暑六和湯(中36)	3	暑腫	清暑六和湯(中36)	3	暑腫	清暑六和湯(中36)
4	瘡腫	赤小豆湯(下42)	4	瘡腫	赤小豆湯(下42)	4	瘡腫	赤小豆湯(下42)
5	風腫	大羌活湯(下6)	5	風腫	大羌活湯(下6)	5	風腫	大羌活湯(下6)
6	通治	補中治濕湯(中60) 四苓五皮散(下43) 藿令湯(中14)	6	通治	補中治濕湯(中60) 四苓五皮散(下43) 藿令湯(中14)	6	通治	補中治濕湯(中60) 藿令湯(中14) 四苓五皮散(下43)

25) 分氣飲(中59) : 治 腫脹 喘急 , 桔梗 赤茯苓 陳皮
桑白皮 大腹皮 枳殼 半夏 蘇子 蘇葉 草果 甘草

分心氣飲(中83) : 治 七情痞滯 通利大小便 清而疎快 , 蘇葉
甘草 半夏 枳殼 青皮 陳皮 木通 大腹皮 桑白皮 木香 赤茯苓
檳榔 蓬朶 麥門冬 桔梗 桂皮 香附子 藿香

: 方藥合編을 찾아보면 分氣飲(中59)과 分心氣飲(中83)은 엄연히 다른 처방으로 기재되어있다. 主治를 보면 分氣飲은 治 腫脹 喘急 이고 分心氣飲은 治 七情痞滯 通利大小便 清而疎快 이라 되어있는 것을 볼 때 浮腫門의 腫喘항목 뒤에 수록 되어야 할 처방은 分氣飲이 더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原本>에서 <證脈本>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긴 듯하고 이것이 <對譯本>에 그대로 실려진 것으로 추측된다.

14) 脹滿

脹滿門에서는 세 板本간에 항목변화, 처방변화, 순서 변화 등 아무런 변화를 찾을 수 없다.

이를 도표로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다.

〈原本〉

1	穀脹	大異香散(下44)
2	氣脹	三和湯(下45)
3	血脹	人參芎歸湯(中61)
4	寒脹	中滿分消湯(中62)
5	熱脹	七物厚朴湯(下46)
6	蟲脹	消脹飲子(下47)
7	濁氣	木香順氣湯(中63)

〈證脈本〉

1	穀脹	大異香散(下44)
2	氣脹	三和湯(下45)
3	血脹	人參芎歸湯(中61)
4	寒脹	中滿分消湯(中62)
5	熱脹	七物厚朴湯(下46)
6	蟲脹	消脹飲子(下47)
7	濁氣	木香順氣湯(中63)

〈對譯本〉

1	穀脹	大異香散(下44)
2	氣脹	三和湯(下45)
3	血脹	人蔘芎歸湯(中61)
4	寒脹	中滿分消湯(中62)
5	熱脹	七物厚朴湯(下46)
6	蟲脹	消脹飲子(下47)
7	濁氣	木香順氣湯(中63)

15) 消渴

消渴門에서도 〈原本〉과 〈證脈本〉과의 많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證脈本〉과 〈對譯本〉은 차이점이 적었다.

먼저 항목변화는 〈證脈本〉을 기준으로 2번 中消, 3번 下消, 6번 豫防癰疽이 〈原本〉과 비교해 추가되었다.

다음 처방변화는 〈證脈本〉의 1번 上消에서 人參白虎湯(下7), 錢氏白朮散(上120) 두 처방이 추가되었고 5번 通治에서 四物湯(上68) 한 처방이 〈原本〉보다 더해졌다.

그 외에 순서변화가 있는데 〈對譯本〉에서 항목 내 처방기재순서에 변화가 보인다.

이를 도표로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다.

〈原本〉

1	上消	清心蓮子飲(中64) 生津養血湯(中65)
2	實熱	人參白虎湯(下7)
3	通治	活血潤燥生津飲(中66) 生血潤膚飲(中39) 加減八味元(上40)

〈證脈本〉

1	上消	清心蓮子飲(中64) 人參白虎湯(下7) 生津養血湯(中65) 錢氏白朮散(上120)
2	中消	調胃承氣湯(下8)
3	下消	六味地黃丸(上40)
4	實熱	人參白虎湯(下7)
5	通治	活血潤燥生津飲(中66) 生血潤膚飲(中39) 加減八味元(上40) 四物湯(上68)
6	豫 防 癰疽	益元散(下16)

〈對譯本〉

1	上消	清心蓮子飲(中64) 生津養血湯(中65) 人蔘白虎湯(下7) 錢氏白朮散(上120)
2	中消	調胃承氣湯(下8)
3	下消	六味地黃元(上40)
4	實熱	人蔘白虎湯(下7)
5	通治	活血潤燥生津飲(中66) 生血潤膚飲(中39) 加減八味元(上40) 四物湯(上68)
6	豫 防 癰疽	益元散(下16)

16) 黃疸

黃疸門에서는 전체적으로 차이점이 적다.

항목변화에는 〈證脈本〉의 2번 酒疸, 3번 女疸이 〈原本〉보다 추가되었다.

처방변화에는 〈證脈本〉 4번 陰黃에서 君令湯(下10)

한 처방이 〈原本〉보다 추가되었다.

그 외에 〈對譯本〉에서 처방기재순서에 앞에서와 같은 약간의 변화가 있다.

이를 도표로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다.

<原本>			<證脈本>			<對譯本>		
1	濕熱	茵陳五苓散(下48) 加減胃令湯(下49) 大分清飲(下81)	1	濕熱	茵陳五苓散(下48) 加減胃令湯(下49) 大分清飲(下81)	1	濕熱	茵陳五苓散(下48) 大分清飲(下81) 加減胃苓湯(下49)
2	陰黃	茵陳四逆湯(中67) 六味元(上40) 八味元(上40) 理中湯(上6)	2	酒疸	酒蒸黃連丸(下17)	2	酒疸	酒蒸黃連丸(下17)
			3	女疸	滋腎丸(下80)	3	女疸	滋腎丸(下80)
			4	陰黃	茵陳四逆湯(中67) 君令湯(下10) 六味元或八味元 (上40) 理中湯(上6)	4	陰黃	茵陳四逆湯(中67) 六味地黃元或八味元(上40) 君苓湯(下10) 理中湯(上6)

17) 瘡疾

瘡疾門에서도 <原本>과 <證脈本>에서 많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證脈本>과 <對譯本>은 차이점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우선 항목변화에는 <證脈本>의 1번 太陽, 2번 陽明, 3번 少陽, 4번 太陰, 5번 少陰, 6번 厥陰이 <原本>에 없던 것이 六經별로 추가되었다. 그리고 8번 濕瘡, 15번 虛瘡도 <原本>에 없던 것이 추가된 것이다.

다음으로 처방변화는 <證脈本>의 7번 寒瘡에서는 人參養胃湯(中16)이 추가되었고 10번 痰瘡에서는 二陳湯(中99), 柴陳湯(中69) 두 처방이 추가되었고 13번 勞瘡에서는 露薑飲(中70) 한 처방이 추가되었으며 17번 瘡瘡에서는 不換金正氣散(中15)이 <原本>보다 추가되었다.

가되었다.

또, 순서변화도 확인되는데 먼저 항목기재순서의 변화는 <原本>에서 7번 久瘡, 8번 瘡瘡, 9번 風瘡의 순서였던 것이 <證脈本>에서 14번 風瘡이 먼저 나오고 다음 15번 虛瘡이 새로 추가되고 16번 久瘡, 17번 痰瘡의 순서로 바뀌었다. 다음 처방기재순서의 변화는 주로 <對譯本>에서 각 항목 내에서 조금씩 변화를 보인다. 이는 앞에서 언급했듯 옮기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이다. 그 외의 변화로 <證脈本>에서 3번 少陽의 敗毒散(中19)과 11번 食瘡의 養胃湯(中16)이 <對譯本>에서 각각 人蔘敗毒散(中19)과 人蔘養胃湯(中16)으로 바뀐 것이 눈에 띈다.

<原本>			<證脈本>			<對譯本>		
1	寒瘡	果附湯(中68) 麻桂飲(中31) 補陰益氣煎(上10)	1	太陽	五積散(中13) 果附湯(中68)	1	太陽	五積散(中13) 果附湯(中68)
2	熱瘡	爭功散(下50)	2	陽明	柴苓湯(下14)	2	陽明	柴苓湯(下14)
			3	少陽	烏藥順氣散(中10) 敗毒散(中19) 參蘇飲(中26)	3	少陽	烏藥順氣散(中10) 人蔘敗毒散(中19) 參蘇飲(中26)
			4	太陰	異功散(上64) 理中湯(上6)	4	太陰	異功散(上64) 理中湯(上6)
			5	少陰	小柴胡湯(中25)	5	少陰	小柴胡湯(中25)
			6	厥陰	小建中湯(上45) 四物湯(上68)	6	厥陰	小建中湯(上45) 四物湯(上68)
			7	寒瘡	果附湯(中68) 麻桂飲(中31) 補陰益氣煎(上10) 人參養胃湯(中16)	7	寒瘡	果附湯(中68) 補陰益氣煎(上10) 麻桂飲(中31) 人蔘養胃湯(中16)
			8	濕瘡	五苓散(下10)	8	濕瘡	五苓散(下10)
			9	熱瘡	爭功散(下50)	9	熱瘡	爭功散(下50)

		小柴胡湯(中25) 白虎湯(下7)			白虎湯(下7) 小柴胡湯(中25)			小柴胡湯(中25) 白虎湯(下7)
3	痰瘡	柴平湯(中77) 四獸飲(上57) 冷附湯(上58) 露薑飲(中70)	10	痰瘡	柴平湯(中77) 柴陳湯(中69) 四獸飲(上57) 二陳湯(中99) 冷附湯(上58) 露薑飲(中70)	10	痰瘡	柴平湯(中77) 二陳湯(中99) 柴陳湯(中69) 冷附湯(上58) 四獸飲(上57) 露薑飲(中70)
4	食瘡	養胃湯(中16) 平陳湯(中71) 清脾飲(中72)	11	食瘡	養胃湯(中16) 平陳湯(中71) 清脾飲(中72)	11	食瘡	人蔘養胃湯(中16) 清脾飲(中72) 平陳湯(中71)
5	暑瘡	清暑六和湯(中36)	12	暑瘡	清暑六和湯(中36)	12	暑瘡	清暑六和湯(中36)
6	勞瘡	芎歸鱉甲散(中73)	13	勞瘡	芎歸鱉甲散(中73) 露薑飲(中70)	13	勞瘡	芎歸鱉甲散(中73) 露薑飲(中70)
			14	風瘡	小柴胡湯(中25) 瀉清丸(下106)	14	風瘡	小柴胡湯(中25) 瀉清丸(下106)
			15	虛瘡	六君子湯(上69) 補中益氣湯(上22) 十全大補湯(上33) 橘皮煎元(上39)	15	虛瘡	六君子湯(上69) 補中益氣湯(上22) 十全大補湯(上33) 橘皮煎元(上39)
7	久瘡	露薑養胃湯(中74) 十將軍丸(下51) 橘皮煎元(上39) 休瘡飲(上59) 牛膝煎(中78) 何人飲(上60) 追瘡飲(中79)	16	久瘡	露薑養胃湯(中74) 十將軍丸(下51) 橘皮煎元(上39) 休瘡飲(上59) 牛膝煎(中78) 何人飲(上60) 追瘡飲(中79)	16	久瘡	露薑養胃湯(中74) 橘皮煎元(上39) 十將軍丸(下51) 休瘡飲(上59) 牛膝煎(中78) 追瘡飲(中79) 何人飲(上60)
8	瘴瘡	雙解飲子(中75)	17	瘴瘡	雙解飲子(中75) 不換金正氣散(中15)	17	瘴瘡	雙解飲子(中75) 不換金正氣散(中15)
9	風瘡	小柴胡湯(中25) 瀉清丸(下106)	18	通治	六和湯(中36) 柴平湯(中77) 加減清脾飲(中76)	18	通治	六和湯(中36) 正柴胡飲(中24) 柴平湯(中77) 茵朮湯(下52) 加減清脾飲(中76)
10	通治	六和湯(中36) 柴平湯(中77) 正柴胡飲(中24) 茵朮湯(下52) 加減清脾飲(中76)						

18) 邪祟

세 板本간의 내용에서 차이는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證脈本〉과 〈對譯本〉에서 항목명으로 通治라는 글귀만 추가되었고 〈對譯本〉의 처방기재순서가 다른 板

本과 조금 차이를 보이는 게 확인된다.
이를 도표로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다.

〈原本〉

〈證脈本〉

〈對譯本〉

1	星香正氣散(中14) 蘇合香元(中90) 紫金錠解毒
---	----------------------------------

1	通治	星香正氣散(中14) 蘇合香元(中90) 紫金錠解毒
---	----	----------------------------------

1	通治	星香正氣散(中14) 紫金錠262面上 蘇合香元(中90)
---	----	-------------------------------------

19) 身形

身形門에서도 거의 차이점이 없다. 다만 <證脈本>과 <對譯本>에서 2번 老人尿數 腎氣丸(上40)이 추가되

는 항목변화만 보일뿐이다.

이를 도표로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다.

<原本>

1	益壽	瓊玉膏(上61) 斑龍丸(上62)

<證脈本>

1	益壽	瓊玉膏(上61) 斑龍丸(上62)
2	老人尿數	腎氣丸(上40)

<對譯本>

1	益壽	瓊玉膏(上61) 斑龍丸(上62)
2	老人尿數	腎氣丸(上40)

20) 精

精門에서도 <原本>과 <證脈本>간에는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고 <證脈本>과 <對譯本>간에는 차이점이 거의 없다.

우선 항목변화를 보면 <證脈本>의 3번 濕熱과 4번 先天不足過服冷藥 그리고 8번 白溼이 <原本>에 비해 추가

가되었다.

다음으로 처방변화는 <證脈本>의 7번 脊熱夢遺에서 清心元(中7)이었던 것이 <對譯本>에서 牛黃清心元(中7)로 바뀌었다.

그 외에 순서변화는 <對譯本>에서 처방기재순서가 조금 변화를 보이는 게 확인된다.

이를 도표로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다.

<原本>

1	火動	黃連清心飲(中80) 清心蓮子飲(中64) 古庵心腎丸(上36)
2	濕痰	加味二陳湯(下53)
3	固精	秘元煎(上63)
4	每觸 遺精	歸脾湯(上66)
5	脊熱 夢遺	清心元(中7)

<證脈本>

1	火動	黃連清心飲(中80) 清心蓮子飲(中64) 古庵心腎丸(上36)
2	濕痰	加味二陳湯(下53)
3	濕熱	四苓散(下10) 大小分清飲(下81)
4	先天不足 過服冷藥	右歸飲(上46) 八味元(上40)
5	固精	秘元煎(上63)
6	每觸 遺精	歸脾湯(上66)
7	脊熱 夢遺	清心元(中7)
8	白溼	清心蓮子飲(中64)

<對譯本>

1	火動	黃連清心飲(中80) 古庵心腎丸(上36)清心蓮子飲(中64)
2	濕痰	加味二陳湯(下53)
3	濕熱	四苓散(下10) 大小分清飲(下81)
4	先天不足 過服冷藥	右歸飲(上46) 八味元(上40)
5	固精	秘元煎(上63)
6	每觸 遺精	歸脾湯(上66)
7	脊熱 夢遺	牛黃清心元(中7)
8	白溼	清心蓮子飲(中64)

21) 氣

氣門에서도 <原本>과 <證脈本>간에는 비교적 많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고 <證脈本>과 <對譯本>은 차이점이 적다.

우선 항목변화는 <證脈本>의 5번 短氣가 <原本>에 없는데 추가되었고 4번 上氣逆氣가 <原本>에서는 上氣

라는 이름으로 기재되었지만 <證脈本>에서 이름이 바뀌었다.

다음으로 처방변화는 <證脈本>의 1번 七氣에서 四磨湯(下104)이 4번 上氣逆氣에서 滋陰降火湯(中42), 八物湯(上32)이 추가되었고 6번 少氣에서 生脈散(上12), 补中益氣湯(上32), 益胃升陽湯(上23)이 8번 氣痛에서 枳梗湯(中153), 蟬蠅散(下136)이 <原本>과 비교해서 추가된 게 확인된다.

그 다음으로 순서변화도 확인되는데 먼저 항목기재 순서변화는 <原本>에서 4번 氣滯, 5번 上氣, 6번 少氣의 순서로 기재되었던 것이 <證脈本>에서 4번에 上氣逆氣가 먼저 나오고 다음 5번 短氣가 새로 추가된 후에 6번 少氣, 7번 氣滯의 순서로 바뀌어 기재되었다. 다음 처방기재순서에도 앞의 조문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이유로 각각의 板本에서 조금씩 차이가 보인다.

그 외의 변화는 <原本>의 3번 中氣에서 星香正氣散(中4)이 <證脈本>에서 霍香正氣散(中4)으로 바뀌고 <對譯本>에서 다시 星香正氣散(中4)으로 바뀐 것이 확인되고²⁶⁾ <證脈本>의 8번 氣痛에서 枳梗湯(中153)이 <對譯本>에서 桔梗湯(中153)으로 처방이 바뀌어서 기재된 것²⁷⁾이 확인된다.

이를 도표로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다.

<原本>			<證脈本>			<對譯本>		
1	七氣	七氣湯(中81) 四七湯(中82) 分心氣飲(中83)	1	七氣	七氣湯(中81) 四七湯(中82) 分心氣飲(中83) 四磨湯(下104)	1	七氣	七氣湯(中81) 分心氣飲(中83) 四七湯(中82) 四磨湯(下104)
2	九氣	正氣天香湯(中84)	2	九氣	正氣天香湯(中84)	2	九氣	正氣天香湯(中84)
3	中氣	八味順氣散(中85) 星香正氣散(中4)	3	中氣	八味順氣散(中85) 霍香正氣散(中4)	3	中氣	八味順氣散(中85) 星香正氣散(中4)
4	氣滯	橘皮一物湯(中86)	4	上氣 逆氣	滋陰降火湯(中42) 蘇子降氣湯(中87) 八物湯(上32)	4	上氣 逆氣	滋陰降火湯(中42) 八物湯(上32) 蘇子降氣湯(中87)
5	上氣	蘇子降氣湯(中87)	5	短氣	腎氣丸(上40) 人參養榮湯(上35)	5	短氣	腎氣丸(上40) 人參養榮湯(上35)
			6	少氣	四君子湯(上64) 舉元煎(上65) 貞元飲(上49) 生脈散(上12) 補中益氣湯(上22) 益胃升陽湯(上23)	6	少氣	四君子湯(上64) 貞元飲(上49) 舉元煎(上65) 生脈散(上12) 補中益氣湯(上22) 益胃升陽湯(上23)
6	少氣	四君子湯(上64) 舉元煎(上65) 貞元飲(上49)	7	氣滯	橘皮一物湯(中86)	7	氣滯	橘皮一物湯(中86)
7	氣痛	神保元(下54) 三和散(中88)	8	氣痛	神保元(下54) 三和散(中88) 枳梗湯(中153) 蟠葱散(下136)	8	氣痛	神保元(下54) 三和散(中88) 桔梗湯(中153) 蟠葱散(下136)
8	氣鬱	交感丹(中89) 二陳湯(中99)	9	氣鬱	交感丹(中89) 二陳湯(中99)	9	氣鬱	交感丹(中89) 二陳湯(中99)
9	通治	蘇合香元(中90)	10	通治	蘇合香元(中90)	10	通治	蘇合香元(中90)

26) 處方은 바뀌었지만 中統 4번에 있다고 표기된 것은 세 板本이 모두 같다. 실제로 藁香正氣散은 中統 14번에 실려있고 星香正氣散은 中統 4번에 실려있는 것이나 <原本>과 <對譯本>에 星香正氣散으로 실려있는 것을 볼 때 <證脈本>의 誤字를 <對譯本>에서 바로 잡은 것으로 추측된다.

27) 處方은 바뀌었지만 中統 153번에 있다고 표기된 것은 <證脈本>과 <對譯本>이 같다. 中統 153번을 보면 桔梗湯으로 되어있고 枳梗湯은 方藥合編에 존재하지 않는 처방이다. 역시 <證脈本>의 誤字를 <對譯本>에서 바로 잡은 것임을 알 수 있다.

22) 神

神門에서는 세 板本을 비교해 볼 때 추가로 삽입된 항목은 보이지 않으나 <原本>에 비해 뒤의 板本에서 치방들이 추가된 것이 확인된다. <證脈本>의 2번 驚悸에서 五苓散(下10), 茯苓湯(中100)이 3번 恶心에서 十全大補湯(上33), 理陰煎(上11), 逍遙散(中166)이 6번 癲狂에서 防風通聖散(下4), 牛黃清心丸(中7)이 <原本>에 비해 추가되었다. 다음 순서변화가 확인되는데 항목기재순서에는 변화가 없고 항목 내 치방기재순서에서 앞의 조문에서와 같은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그 외의 변화로 <對譯本>의 5번에서 <證脈本>과 비교해보면 追風祛痰丸뒤에 風癇, 龍腦安神丸뒤에 五癇이라는 글귀가 삽입된 게 확인된다.

이를 도표로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다.

<原本>

1	膽虛	仁熟散(上44)
2	驚悸	加味溫膽湯(中91) 加味四七湯(下70)
3	怔忡	四物安神湯(中92)
4	健忘	歸脾湯(上66)
5	癲癇	追風祛痰丸(下55) 龍腦安神丸(下57)
6	癲狂	當歸承氣湯(下58) 桃仁承氣湯(下13)

<證脈本>

1	膽虛	仁熟散(上44)
2	驚悸	加味溫膽湯(中91) 五苓散(下10) 加味四七湯(下70) 茯苓湯(中100)
3	怔忡	四物安神湯(中92) 理陰煎(上11) 十全大補湯(上33) 逍遙散(中166)
4	健忘	歸脾湯(上66)
5	癲癇	追風祛痰丸(下55) 龍腦安神丸(下57)
6	癲狂	當歸承氣湯(下58) 防風通聖散(下4) 桃仁承氣湯(下13) 牛黃清心丸(中7)

<對譯本>

1	膽虛	仁熟散(上44)
2	驚悸	加味溫膽湯(中91) 加味四七湯(下70) 五苓散(下10) 茯苓湯(中100)
3	怔忡	四物安神湯(中92) 十全大補湯(上33) 理陰煎(上11) 逍遙散(中166)
4	健忘	歸脾湯(上66)
5	癲癇	追風祛痰丸(風癇)(下55) 龍腦安神丸(五癇)(下57)
6	癲狂	當歸承氣湯(下58) 桃仁承氣湯(下13) 防風通聖散(下4) 牛黃清心丸(中7)

23) 血

血門에서는 각 板本별로 매우 큰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항목변화를 보면 1번의 항목명이 〈原本〉에서 鮫血인 것이 〈證脈本〉에서 吐血로 바뀌었고 〈對譯本〉에서 다시 鮫血로 바뀌었다.²⁸⁾ 그리고 〈原本〉의 2번 嘔吐血, 3번 胃傷吐血이 〈證脈本〉에서는 제목자체가 바뀌면서 2번 積熱吐血, 3번 陽虛吐血, 4번 勞傷吐血, 5번 陰虛吐血로 보다 세분되어 기재되어 있다. 또, 〈證脈本〉의 10번 항목 齒舌衄은 〈原本〉에서는 齒衄이었던 것이 舌 한 글자가 〈對譯本〉의 6번 항목인 咳唾咯血은 앞의 두 板本에서는 咳唾咯이었던 것이 血 한 글자가 더해졌다. 그리고 〈證脈本〉의 11번 血汗, 12번 九竅出血, 13번 失血眩暈은 〈原本〉에 없던 것인데 추가된 것이다.

다음으로 처방변화를 보면 〈證脈本〉의 1번 吐血의 처방 중 薄荷煎元의 처방번호가 〈原本〉과 〈對譯本〉에는 中統 126번으로 되어있는데 〈證脈本〉에는 中統 136번으로 되어 있고²⁹⁾ 〈原本〉의 2번 嘔吐血과 3번 胃傷吐血에서 伏令補心湯(中93), 七生湯(下61), 歸脾湯(上66), 鎮陰煎(上67), 小調中湯(下68)과 理中湯(上6)으로만 나뉘었던 것이 〈證脈本〉에서는 원인별로 세분화되면서 처방도 추가되었는데 2번 積熱吐血에서 蘇子降氣湯(中87)이 5번 陰虛吐血에서 參令白朮散(上25)과 四君子湯(上64)이 〈原本〉과 비교해 추가된 것이다. 그리고 〈證脈本〉의 6번 積血吐血에서는 七生湯(下61)이 7번 咳唾咯에서는 滋陰降火湯(中42), 八物湯(上32), 六君子湯(上96) 세 처방이 〈原本〉에 비해 추가되었고 8번 尿血에서는 〈原本〉에서는 清腸湯(下63)만 보이는 것이 四物湯(上68), 導赤散(下78), 八正散(下79)이 추가되고 원인을 세분하여 色傷에 腎氣丸(上40), 老人에 六味地黃丸(上40), 夏熱에 升麻葛根湯(中16)을 추가 삽입하였다. 9번 便血에서는 平胃散(下22)이 빠지고 원인별로 세분하여 風清 不換金正氣散(中15), 熱紅 酒蒸黃連丸(下17), 寒黯 平胃散合理中湯(上6), 內傷 平胃散(下22), 勞傷 補中益氣湯(上22)이 추가 삽입된 것이 확인된다. 10번 齒舌衄에서도 처방이 綠袍散(下66)외에 牛黃膏(下162), 調胃承氣湯(下8), 八味元(上40)이 추가되었다.

다음으로 순서변화를 보면 먼저 항목기재순서변화

는 〈原本〉과 〈證脈本〉사이에는 없지만 〈證脈本〉과 〈對譯本〉을 보면 비슷하지만 순서가 좀 바뀐 것이 눈에 띈다. 陰虛吐血과 勞傷吐血이 순서가 바뀌었고 咳唾咯血과 積血吐血이 순서가 바뀌었다. 또, 血汗과 齒舌衄이 순서가 바뀌었다. 다음 처방기재순서변화는 역시 〈證脈本〉과 〈對譯本〉사이에 존재하는데 예전의 활자본에서 현재의 인쇄본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기재순서를 바꾸어 기재한 것이다.

그 외의 변화를 보면 여기서는 脫字가 보인다. 〈證脈本〉의 5번 陰虛吐血에서 煎(上67)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原本〉과 〈對譯本〉에는 鎮陰煎(上67)이라고 되어 있다.³⁰⁾ 이를 도표로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다.

28) 〈原本〉이나 〈對譯本〉에서 鮫血이라고 되어있고 〈證脈本〉에서만 吐血이라고 된 것과 세 板本 모두 2번부터 吐血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볼 때 1번은 鮫血이 맞는 듯하고 〈證脈本〉에서 잘못 기재되었고 〈對譯本〉에서 그것을 바로 잡은 것으로 보인다.

29) 실제로 方藥合編 中統 126번에는 薄荷煎元이 136번에는 赤茯苓湯이 나와 있는 것으로 보아 〈證脈本〉에서 錯誤가 있었던 듯하고 〈對譯本〉에서 그것을 바로 잡은 것으로 보인다.

30) 여기서 上67이라고만 되어있고 處方名이 없어진 것은 〈原本〉이나 〈對譯本〉을 볼 때 鎮 陰 두 글자가 脱字로 보인다.

<原本>

<證脈本>

<對譯本>

1	衄血	沙芎散(下59) 薄荷煎元(下126) 犀角地黃湯(下60)
2	積熱 吐血	小調中湯(下68) 蘇子降氣湯(中87)
3	陽虛 吐血	理中湯(上6)
4	陰虛 吐血	蓼苓白朮散(上25) 四君子湯(上64) 鎮陰煎(上67)
5	勞傷 吐血	茯苓補心湯(中93) 歸脾湯(上66)
6	咳唾 咯血	滋陰降火湯(中42) 八物湯(上32) 六君子湯(上69) 加味道遙散(下62)
7	積血 吐血	七生湯(下61) 桃仁承氣湯(下13)
8	尿血	四物湯(上68) 導赤散(下78) 八正散(下79) 清腸湯(下63) 色傷 腎氣丸(上40) 老人 六味地黃元(上40) 暑熱 升麻煎湯調 益元散(下16)
9	便血	平胃枳榆湯(下64) 厚朴煎(下65) 益胃升陽湯(上23) 風清 不換金正氣散(中15) 熱紅 酒蒸黃連丸(下17) 寒黯 平胃散合理中湯(上6) 內傷 平胃散(下22) 勞傷 補中益氣湯(上22)
10	血汗	黃芪建中湯(上45)
11	齒舌 衄	綠袍散(下66) 牛黃膏(下162) 調胃承氣湯(下8) 八味元(上40)
12	九竅 出血	十全大補湯(上33)
13	失血 眩暈	芎歸湯(上112) 全生活血湯(中156)
14	通治	四物湯(上68)

1	吐血	沙芎散(下59) 犀角地黃湯(下60) 薄荷煎元(下136)
2	積熱 吐血	小調中湯(下68) 蘇子降氣湯(中87)
3	陽虛 吐血	理中湯(上6)
4	勞傷 吐血	伏令補心湯(中93) 歸脾湯(上66)
5	陰虛 吐血	參苓白朮散(上25) 四君子湯(上64) 煎(上67)
6	積血 吐血	七生湯(下61) 桃仁承氣湯(下13)
7	咳唾 咯	滋陰降火湯(中42) 八物湯(上32) 六君子湯(上96) 加味道遙散(下62)
8	尿血	四物湯(上68) 八正散(下79) 導赤散(下78) 清腸湯(下63) 色傷 腎氣丸(上40) 暑熱 升麻煎湯調 老人 六味地黃丸(上40) 益元散(下16)
9	便血	平胃枳榆湯(下64) 厚朴煎(下65) 益胃升陽湯(上23) 熱紅 酒蒸黃連丸(下17) 內傷 平胃散(下22) 風清 不換金正氣散(中15) 寒黯 平胃散合理中湯(上6) 勞傷 補中益氣湯(上22)
10	齒舌 衄	綠袍散(下66) 調胃承氣湯(下8) 牛黃膏(下162) 八味元(上40)
11	血汗	黃芪建中湯(上45)
12	九竅 出血	十全大補湯(上33)
13	失血 眩暈	芎歸湯(上112) 全生活血湯(中156)
14	通治	四物湯(上68)

1	衄血	沙芎散(下59) 犀角地黃湯(下60) 薄荷煎元(下126)
2	嘔吐 血	伏令補心湯(中93) 七生湯(下61) 歸脾湯(上66) 鎮陰煎(上67) 小調中湯(下68)
3	胃傷 吐血	理中湯(上6)
4	積血 吐血	桃仁承氣湯(下13)
5	咳唾 咯	加味道遙散(下62)
6	尿血	清腸湯(下63)
7	便血	平胃枳榆湯(下64) 平胃散(下22) 厚朴煎(下65) 益胃升陽湯(上23)
8	齒衄	綠袍散(下66)
9	通治	四物湯(上68)

24) 夢

夢門에서는 <證脈本>과 <對譯本>에서 六君子湯(上69)이 <原本>에 비해 추가되어진 것이 확인되고 <對譯本>에서 처방기재순서에 변화가 확인된다.
이를 도표로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다.

<原本>			<證脈本>			<對譯本>		
1	不睡	溫膽湯(中94) 歸脾湯(上66)	1	不睡	溫膽湯(中94) 六君子湯(上69) 歸脾湯(上66)	1	不睡	溫膽湯(中94) 歸脾湯(上66) 六君子湯(上69)

25) 聲音

聲音門은 <原本>과 <證脈本>에서는 차이점이 많지만 <證脈本>과 <對譯本>에서는 차이가 적다.

항목변화를 보면 <證脈本>의 1번 風寒失音은 <原本>에서 風寒이었던 것이 바뀐 것이고 2번 色傷, 3번 痘後, 4번 中風, 5번 產後, 6번 老及虛人은 <原本>에

없던 내용이 추가된 것이다.

다음 처방변화를 보면 <證脈本>의 1번 風寒失音에서 參蘇飲(中26), 二陳湯(中99), 小青龍湯(中27), 金水六君煎(上51), 三拗湯(中48) 다섯 개의 처방이 추가되었다. 그 외에 <證脈本>과 <對譯本>사이에 처방기재순서 변화가 존재한다.

이를 도표로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다.

<原本>			<證脈本>			<對譯本>		
1	風寒	荊蘇湯(中95)	1	風寒失音	參蘇飲(中26) 小青龍湯(中27) 三拗湯(中48) 二陳湯(中99) 金水六君煎(上51) 荊蘇湯(中95)	1	風寒失音	參蘇飲(中26) 二陳湯(中99) 小青龍湯(中27) 金水六君煎(上51) 三拗湯(中48) 荊蘇湯(中95)
2			2	色傷	八味元(上40)	2	色傷	八味元(上40)
3			3	病後	腎氣丸(上40)	3	病後	腎氣丸(上40)
4			4	中風	小續命湯(中1)	4	中風	小續命湯(中1)
5			5	產後	茯苓補心湯(中93)	5	產後	茯苓補心湯(中93)
6			6	老及虛人	十全大補湯(上33)	6	老及虛人	十全大補湯(上33)

26) 津液

津液門에서도 <原本>과 <證脈本>에서 차이점이 발견되고 <證脈本>과 <對譯本>에서는 차이가 적다.

항목변화는 없고 처방변화가 있는데 <證脈本>의 2번 盜汗에서 當歸六黃湯(下67)외에 小柴胡湯(中25), 六味丸(上40), 十全大補湯(上33)이 추가되었다. 그 외에 처방기재순서변화가 <對譯本>에서 보이고 <證脈本>에서 六味丸(上40)이 六味地黃元(上40)으로 바뀐 것이 눈에 띈다.

이를 도표로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다.

<原本>			<證脈本>			<對譯本>		
1	自汗	玉屏風散(中96) 小建中湯(上45) 人參養榮湯(上35) 補中益氣湯(上22) 八物湯(上32)	1	自汗	玉屏風散(中96) 小建中湯(上45) 人參養榮湯(上35) 補中益氣湯(上22) 八物湯(上32)	1	自汗	玉屏風散(中96) 補中益氣湯(上22) 小建中湯(上45) 八物湯(上32) 人參養榮湯(上35)
		當歸六黃湯(下67)			當歸六黃湯(下67) 六味丸(上40) 小柴胡湯(中25) 十全大補湯(上33)			當歸六黃湯(下67) 小柴胡湯(中25) 六味地黃元(上40) 十全大補湯(上33)
2	盜汗		2	盜汗		2	盜汗	

27) 痰飲

痰飲門에서도 <原本>과 <證脈本>에서 비교적 많은 차이점이 발견되고 <證脈本>과 <對譯本>간에는 차이점이 적다.

먼저 항목변화를 보면 <原本>에는 1번이 痰厥이지만 <證脈本>과 <對譯本>은 風痰이 1번으로 바뀌고 痰厥은 뒤쪽으로 밀려 流注와 痰塊사이에 위치한다. 그리고 <證脈本>의 3번 濕痰과 8번 酒痰과 9번 驚痰은 <原本>에 없던 것이 추가로 삽입된 것이다. 또, <證脈本>의 13번 痰飲通治는 <原本>에서는 항목명이 通治로 되어 있던 것이 바뀌었다.

다음으로 처방변화를 보면 <證脈本>의 1번 風痰에서 小青龍湯(中27)이 추가되고 2번 寒痰에서 五積散(中13), 理中湯(上6), 二陳湯(中99), 八味元(上40)이 추가되고 13번의 痰飲通治에서는 導痰湯(下3), 小青龍湯(中27) 두 처방이 추가되었다.

그 다음으로 순서변화는 항목기재순서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證脈本>에서 <原本>과 차이를 보이고 <對譯本>과는 차이가 없다. 그리고 <對譯本>에서 항목내 처방기재순서변화가 보인다.

그 외의 변화로 <對譯本>의 11번 痰厥에서 蕁香正氣散(中14)이라고 되어있는 게 <原本>과 <證脈本>에서는 星香正氣散(中14)이라고 되어있던 게 바뀌어 기재된 것이다.³¹⁾ 이를 도표로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다.

31) 痰厥이라는 증상은 痰에 의해 정신을 잃고 일시적으로昏迷해져 쓰러지는 질환이다. 이에 대한 처방으로 <原本>과 <證脈本>에는 星香正氣散(中14)이 <對譯本>에서는 蕁香正氣散(中14)이 기재되어 있다. 方藥合編에서主治를 살펴보면 星香正氣散은 “卒中風 人事稍醒 關節動活後用此理氣”라고 되어있고 蕁香正氣散은 “治傷寒陰症 與身痛 不分表裏 以此導引經絡 不致變動”이라고 되어있어 痰厥의 증상에 비추어 보면 星香正氣散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실제로 中統 14번에 蕁香正氣散이 그리고 中統 4번에 星香正氣散이 기재되어 있어 <對譯本>에서 蕁香正氣散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라 보이는데 中統 14번 蕁香正氣散의 活套에 南星과 木

香을 가하면 星香正氣散이 된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星香正氣散이 中統 14번에 있다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原本>과 <證脈本>이 더 타당해 보여 향후 <對譯本>의 교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原本>

1	痰厥	星香正氣散(中14)
2	風痰	導痰湯(下3)
3	寒痰	半夏溫肺湯(中97) 和胃二陳煎(中98)
4	熱痰	小調中湯(下68) 大調中湯(下68)
5	鬱痰	瓜萎枳實湯(下69) 四七湯(中82)
6	氣痰	加味四七湯(下70) 十六味流氣飲(中140)
7	食痰	正傳加味二陳湯(下 71)
8	流注	控涎丹(下72) 通順散(中154)
9	痰塊	竹瀝達痰丸(下73) 開氣消痰湯(下74)
10	通治	六君子湯(上69) 二陳湯(中99) 芎夏湯(中100) 滾痰丸(下75)

<證脈本>

1	風痰	導痰湯(下3) 小青龍湯(中27)
2	寒痰	半夏溫肺湯(中97) 五積散(中13) 和胃二陳煎(中98) 理中湯(上6) 二陳湯(中99) 八味元(上40)
3	濕痰	二陳湯(中99)
4	熱痰	小調中湯(下68) 大調中湯(下68)
5	鬱痰	瓜萎枳實湯(下69) 四七湯(中82)
6	氣痰	加味四七湯(下70) 十六味流氣飲(中140)
7	食痰	正傳加味二陳湯(下 71)
8	酒痰	小調中湯(下68) 對金飲子(下28)
9	驚痰	滾痰丸(下75)
10	流注	控涎丹(下72) 通順散(中154)
11	痰厥	星香正氣散(中14) 蘇子降氣湯(中87)
12	痰塊	竹瀝達痰丸(下73) 開氣消痰湯(下74)
13	痰 飲 通治	二陳湯(中99) 芎夏湯(中100) 六君子湯(上69) 導痰湯(下3) 滾痰丸(下75) 小青龍湯(中27)

<對譯本>

1	風痰	導痰湯(下3) 小青龍湯(中27)
2	寒痰	半夏溫肺湯(中97) 和胃二陳煎(中98) 五積散(中13) 理中湯(上6) 二陳湯(中99) 八味元(上40)
3	濕痰	二陳湯(中99)
4	熱痰	小調中湯(下68) 大調中湯(下68)
5	鬱痰	瓜萎枳實湯(下69) 四七湯(中82)
6	氣痰	加味四七湯(下70) 十六味流氣飲(中140)
7	食痰	正傳加味二陳湯(下 71)
8	酒痰	小調中湯(下68) 對金飲子(下28)
9	驚痰	滾痰丸(下75)
10	流注	控涎丹(下72) 通順散(中154)
11	痰厥	藿香正氣散(中14) 蘇子降氣湯(中87)
12	痰塊	竹瀝達痰丸(下73) 開氣消痰湯(下74)
13	痰 飲 通治	二陳湯(中99) 芎夏湯(中100) 六君子湯(上69) 滾痰丸(下75) 導痰湯(下3) 小青龍湯(中27)

28) 蟲

蟲門은 세 板本간의 내용에는 차이가 없다. 하지만 <原本>에서는 冷痛 厚朴溫中湯(中143), 食通 養胃湯(中16)이 항목으로 따로 나와 있는데 비해 <證脈本>과 <對譯本>에서는 胸痛안에 포함되어 기재된 것이 차이 점이다.

또, <對譯本>에서 항목 내 치방기재순서의 변화가 확인되는 점도 달라진 점이다.

이를 도표로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다.

<原本>		<證脈本>	<對譯本>	
1	蛔厥	烏梅丸(中101) 安蛔理中湯(上70) 理中湯(上6) 建理湯(上83) 參圓飲(上84) 溫臟丸(中102) 練陳湯(下76)	1	蛔厥 烏梅丸(中101) 安蛔理中湯(上70) 理中湯(上6) 建理湯(上83) 參圓飲(上84) 溫臟丸(中102) 練陳湯(下76)
2	胸痛	手拈散(中130)	2	胸痛 手拈散(中130) 冷痛 厚朴溫中湯 (中143) 食通 養胃湯(中16)
3	冷痛	厚朴溫中湯(中143)		
4	食通	養胃湯(中16)	2	胸痛 手拈散(中130) 冷痛 厚朴溫中湯 (中143) 食通 養胃湯(中16)

29) 小便

小便門에서는 <原本>과 <證脈本>사이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먼저 항목변화에는 <原本>의 4번 孕婦轉脬는 <證脈本>에서 3번 不通 안으로 들어가 있고 <證脈本>의 7번 熱淋, 11번 莖中痺痛, 12번 交腸症³²⁾, 13번 飲卽小便은 <原本>에 없던 것이 추가 삽입된 것이다. 그리고 <原本>에서 8번 虛淋, 9번 血淋, 10번 冷淋 부분이 <證脈本>에서는 8번 血淋 하나의 항목으로 합쳐져 있다. 그리고 虛淋과 冷淋은 <原本>에서는 항목명으로 따로 나오는 것인데 <證脈本>에서는 血淋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눈에 띈다.

다음 치방변화에는 <證脈本>의 1번 不利에서 四物湯(上68)이 추가되고 3번 不通에서 八物湯(上32)이 추가된 후 원인별로 세분화하여 火動 滋陰降火湯(中42), 精竭 八味元(上40), 痰滯 導痰湯(下3), 氣熱 導赤散(下78), 血滯 神保元(下54) 二陳湯(中99), 老人轉脬 六味元(上40), 孕婦轉脬 參朮飲(上115)이 <原本>보다 추가 삽입되었다. 孕婦轉脬는 <原本>에서는 항목으로 따로 되어있고 六味元(上40)이 기재되어 있으나 <證脈本>는 參朮飲(上115)으로 치방이 바뀌었다. 4번 關格에서는 八正散(下79)이 추가되었고 5번 不禁에서는 <原本>의 치방에 脾肺虛 理中湯(上6) 歸脾湯(上66), 肝腎虛 右歸飲(上46) 八味元(上40)이 추가되었다. 8번 血淋은 四物湯(上68)이 추가되고 원인별로 세분화되어 氣淋 益元散(下16), 虛淋 八物湯(上32), 酒淋 補中益氣湯(上22), 冷淋 八味元(上40)이 9번 通治에서는 四苓散(下10)이 추가되

었고 10번 赤白濁에서는 二陳湯(中99), 四物湯(上68)이 <原本>에 비해 추가되었다.

다음으로 순서변화를 보면 항목기재순서변화는 <對譯本>의 2번 不通과 3번 氣虛尿澁이 <原本>과 <證脈本>과 비교해 순서가 바뀌었고 치방기재순서변화는 주로 <對譯本>에서 <證脈本>과 비교해서 항목 내에서 조금씩 바뀌어 있다.

이를 도표로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다.

32) 交腸症 : 大便을 볼때 尿液이 肛門으로 흘러나오고 小便을 볼때는 糞質이 尿道로 배출되는 것을 가리킨다. <證治要訣大小腑門>에서 “交腸症이란 大小便의 위치가 바뀌어 나오는 것인데 이는 氣가 본래의 통로로 나오지 않고 清濁이 뒤섞여 나오기 때문이다.(하략)”고 하였다. (傳統醫學研究所, 東洋醫學大辭典, 成輔社, 2000, p 231.)

〈原本〉			〈證脈本〉			〈對譯本〉		
1	不利	萬全木通湯(下77) 清心蓮子飲(中64) 導赤散(下78)	1	不利	萬全木通湯(下77) 導赤散(下78) 清心蓮子飲(中64) 四物湯(上68)	1	不利	萬全木通湯(下77) 清心蓮子飲(中64) 導赤散(下78) 四物湯(上68)
2	氣虛 尿澀	補中益氣湯(上22)			八正散(下79) 禹功散(下82) 大分清飲(下81) 補中益氣湯(上22) 滋腎丸(下80) 八物湯(上32) 火動 滋陰降火湯(中42) 精竭 八味元(上40) 痰滯 導痰湯(下3) 氣熱 導赤散(下78) 血滯 神保元(下54) 二陳湯(中99) 老人轉脬 六味地黃元(上40) 孕婦轉脬 參朮飲(上115)	2	氣虛 尿澀	八正散(下79) 禹功散(下82) 大分清飲(下81) 補中益氣湯(上22) 滋腎丸(下80) 禹功散(下82) 補中益氣湯(上22) 八物湯(上32) 火動 滋陰降火湯(中42) 精竭 八味元(上40) 痰滯 導痰湯(下3) 氣熱 導赤散(下78) 血滯 神保元(下54) 二陳湯(中99) 老人轉脬 六味地黃元(上40) 孕婦轉脬 參朮飲(上115)
3	不通	八正散(下79) 大分清飲(下81) 滋腎丸(下80) 禹功散(下82) 補中益氣湯(上22)	3	氣虛 尿澀	補中益氣湯(上22)	3	氣虛 尿澀	補中益氣湯(上22) 禹功散(下82) 大分清飲(下81) 滋腎丸(下80) 禹功散(下82) 補中益氣湯(上22) 八物湯(上32) 火動 滋陰降火湯(中42) 精竭 八味元(上40) 痰滯 導痰湯(下3) 氣熱 導赤散(下78) 血滯 神保元(下54) 二陳湯(中99) 老人轉脬 六味地黃元(上40) 孕婦轉脬 參朮飲(上115)
4	孕婦 轉脬	六味元(上40)	4	關格	枳縮二陳湯(下83) 八正散(下79)	4	關格	枳縮二陳湯(下83) 八正散(下79)
5	關格	枳縮二陳湯(下83)	5	不禁	縮泉丸(中103) 蓼芪湯(上71) 補中益氣湯(上22) 六味地黃元(上40) 脾肺虛 理中湯(上6) 歸脾湯(上66) 肝腎虛 右歸飲(上46) 八味元(上40)	5	不禁	縮泉丸(中103) 蓼芪湯(上71) 補中益氣湯(上22) 六味元(上40) 脾肺虛 理中湯(上6) 歸脾湯(上66) 肝腎虛 右歸飲(上46) 八味元(上40)
6	不禁	縮泉丸(中103) 參芪湯(上71) 補中益氣湯(上22) 六味元(上40)	6	小兒 遺尿	鷄腸散(中104)	6	小兒 遺尿	鷄腸散(中104)
7	小兒 遺尿	鷄腸散(中104)	7	熱麻	大分清飲(下81) 八正散(下79) 導赤散(下78) 清心蓮子飲(中64)	7	熱淋	大分清飲(下81) 導赤散(下78) 八正散(下79) 清心蓮子飲(中64)
8	虛淋	八物湯(上32)	8	血淋	增味導赤散(下85) 四物湯(上68) 氣淋 益元散(下16) 虛淋 八物湯(上32) 酒淋 補中益氣湯(上22) 冷淋 八味元(上40)	8	血淋	增味導赤散(下85) 四物湯(上68) 氣淋 益元散(下16) 虛淋 八物湯(上32) 冷淋 八味元(上40)
9	血淋	增味導赤散(下85)	9	通治	五淋散(下84) 四苓散(下10)	9	通治	五淋散(下84) 四苓散(下10)
10	冷淋	八味元(上40)	10	赤白 濁	草薢分清飲(中105) 清心蓮子飲(中64) 二陳湯(中99) 四物湯(上68)	10	赤白 濁	草薢分清飲(中105) 二陳湯(中99) 清心蓮子飲(中64) 四物湯(上68)
11	通治	五淋散(下84)	11	莖中 痒痛	六味地黃元(上40) 八味元(上40) 補中益氣湯(上22) 清心蓮子飲(中64) 導赤散(下78)	11	莖中	六味元(上40)
12	赤白	草薢分清飲(中105)						

濁	清心蓮子飲(中64)				
		龍膽瀉肝湯(下137)			
12	交 腸 症	五苓散(下10)			
		四物湯(上68)			
		補中益氣湯(上22)			
13	飲 卽 小便	補中益氣湯(上22)			
			補中益氣湯(上22)		
			導赤散(下78)		
			八味丸(上40)		
			清心蓮子飲(中64)		
			龍膽瀉肝湯(下137)		
12	交 腸 症	五苓散(下10)			
		補中益氣湯(上22)			
		四物湯(上68)			
13	飲 卽 小便	補中益氣湯(上22)			

30) 大便

이) 大便門은 <原本>과 <證脈本>사이에서 많은 차이가 있고 <證脈本>과 <對譯本>사이에는 약간의 순서변화만 있을 뿐 차이점이 적다.

먼저 항목변화를 보면 <證脈本>의 7번 痰泄, 16번 休息痢, 17번 風痢, 18번 寒痢, 19번 濕痢, 20번 热痢, 21번 氣痢는 <原本>에 없던 것이 추가 삽입된 것이다. <原本>에서 11번에 나오는 暑痢는 <證脈本>과 <對譯本>에서는 삭제되었다. 또, <證脈本>의 25번에서는 <原本>에서는 久痢變水가 따로 항목으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久痢안에 끼워 넣은 것이 눈에 띄고 26번 痘蟲五色痢는 <原本>에서는 항목명이 痘痢였던 것이 바뀐 것이고 32번 热閉는 앞에서 热結閉이던 것이 항목명이 바뀐 것이다.

다음으로 치방변화를 보면 <證脈本>의 1번 滯泄에서 蔡香正氣散(中14)이 3번 寒泄에서 治中湯(上6)이 4번 暑泄에서 益元散(下16), 清暑益氣湯(上13), 升麻葛根湯(中22), 柴苓湯(下14), 火泄 益元散(下16)이 6번 虛泄에서 錢氏白朮散(上120), 參令白朮散(上25)이 <原本>과 비교해 추가되었다. 그리고 8번 滑泄에서는 補中益氣

湯(上22)이 9번 酒傷晨泄에서는 平胃散(下22), 酒蒸黃連丸(下17)이 11번 脾腎泄에서는 脾氣丸(上40), 五積散(中13), 黃芪健中湯(上45)이 <原本>보다 추가된 처방이다. 13번 赤白痢에서는 益元散(下16), 保和丸(下39), 六味地黃丸(上40)이 추가되고 14번 膽血痢에서는 桃仁承氣湯(下13)이 15번 噻口痢에서는 參苓白朮散(上25)이 추가되었다. 22번 虛痢에서는 理中湯(上6), 眞人養臟湯(中109), 四物湯(上68)이 24번 積痢에서는 保和丸(下39), 神保丸(下54)이 추가되었고 26번 疫蟲五色痢의 처방도 人參敗毒散(中19)이 <原本>과 비교해 <證脈本>에서 추가되었다. 28번 通治에서는 倉廩湯(下95), 大承氣湯(下8), 調胃承氣湯(下8)이 추가되고 32번 热閉에서는 四物湯(上68)이 <原本>보다 추가되었다.

그 다음으로 순서변화를 보면 먼저 항목기재순서변화는 <對譯本>에서 <證脈本>과 비교해 16번 休息痢와 17번 風痢가 자리를 바꾼 것 그리고 24번 久痢와 25번 積痢가 자리를 바꾼 것이 다른 점이고 다음 처방기재순서변화는 <對譯本>의 일부 항목 내에서 이전과는 다른 순서로 기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도표로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다.

<原本>			<證脈本>			<對譯本>											
1 滯泄	養胃湯(中16) 平胃散(下22) 胃令湯(下86)	1 滯泄	養胃湯(中16) 平胃散(下22) 胃苓湯(下86) 藿香正氣散(中14)	1 滯泄	人蔘養胃湯(中16) 胃苓湯(下86) 平胃散(下22) 藿香正氣散(中14)	2 濕泄	胃風湯(中106) 胃苓湯(下86) 三白湯(中107) 瀉濕湯(中108) 萬病五金散(下90) 五金散(下10)_	2 濕泄	胃風湯(中106) 胃苓湯(下86) 三白湯(中107) 瀉濕湯(中108) 萬病五金散(下90) 五苓散(下10)_	2 濕泄	胃風湯(中106) 胃苓湯(下86) 三白湯(中107) 萬病五金散(下90) 瀉濕湯(中108) 五苓散(下10)_	3 寒泄	四柱散(上72)	3 寒泄	四柱散(上72)	3 寒泄	四柱散(上72)

		六柱散(上72) 理中湯(上6) 春澤湯(下10)			六柱散(上72) 理中湯(上6) 春澤湯(下10) 治中湯(上6)			六柱散(上72) 理中湯(上6) 治中湯(上6) 春澤湯(下10)
4	暑泄	薷令湯(下87) 清暑六和湯(中36) 香薷散(中35)	4	暑泄	薷令湯(下87) 香薷散(中35) 清暑六和湯(中36) 清暑益氣湯(上13) 柴苓湯(下14) 益元散(下16) 升麻葛根湯(中22) 火泄 益元散(下16)	4	暑泄	薷令湯(下87) 香薷散(中35) 清暑六和湯(中36) 益元散(下16) 清暑益氣湯(上13) 升麻葛根湯(中22) 柴苓湯(下14) 火泄 益元散(下16)
5	風泄	胃風湯(中106) 瀉青丸(下106)	5	風泄	胃風湯(中106) 瀉青丸(下106)	5	風泄	胃風湯(中106) 瀉青丸(下106)
6	虛泄	升陽除濕湯(下88) 君令湯(下10) 錢氏異功散(上19) 四君子湯(上64)	6	虛泄	升陽除濕湯(下88) 君令湯(下10) 錢氏異功散(上19) 四君子湯(上69)33 錢氏白朮散(上120) 參令白朮散(上25)	6	虛泄	升陽除濕湯(下88) 錢氏異功散(上19) 君令湯(下10) 四君子湯(上64) 錢氏白朮散(上120) 蓼苓白朮散(上25)
7	滑泄	八柱散(上73)	7	痰泄	二陳湯(中99) 六君子湯(上64)	7	痰泄	二陳湯(中99) 六君子湯(上69)
8	酒傷 晨泄	理中湯(上6)	8	滑泄	八柱散(上73) 補中益氣湯(上22)	8	滑泄	八柱散(上73) 補中益氣湯(上22)
9	飧泄	蒼朮防風湯(下89) 五德丸(上74)	9	酒傷 晨泄	理中湯(上6) 酒蒸黃連丸(下17) 平胃散(下22)	9	酒傷 晨泄	理中湯(上6) 平胃散(下22) 酒蒸黃連丸(下17)
10	脾腎 泄	四神丸(上75) 三神丸(上75) 二神丸(上75) 胃關煎(上76)	10	飧泄	蒼朮防風湯(下89) 五德丸(上74)	10	飧泄	蒼朮防風湯(下89) 五德丸(上74)
11	暑痢	消暑敗毒散(中19) 香薷養胃湯(中16) 清暑六和湯(中36) 胃令湯(下86)	11	脾腎 泄	四神丸(上75) 三神丸(上75) 腎氣丸(上40) 二神丸(上75) 胃關煎(上76) 五積散(中13) 黃芪健中湯(上45)	11	脾腎 泄	四神丸(上75) 二神丸(上75) 三神丸(上75) 胃關煎(上76) 腎氣丸(上40) 五積散(中13) 黃芪健中湯(上45)
12	赤痢	導赤枳橘湯(下91) 茱連丸(下92)	12	赤痢	導赤枳橘湯(下91) 茱連丸(下92)	12	赤痢	導赤枳橘湯(下91) 茱連丸(下92)
13	赤白 痢	真人養臟湯(中109)	13	赤白 痢	真人養臟湯(中109) 益元散(下16) 保和丸(下39) 六味地黃丸(上40)	13	赤白 痢	真人養臟湯(中109) 益元散(下16) 保和丸(下39) 六味地黃丸(上40)
14	膿血 痢	黃芩芍藥湯(下93) 導滯湯(下94)	14	膿血 痢	黃芩芍藥湯(下93) 桃仁承氣湯(下13) 導滯湯(下94)	14	膿血 痢	黃芩芍藥湯(下93) 導滯湯(下94) 桃仁承氣湯(下13)
15	噤口 痢	倉廩湯(下95)	15	噤口 痢	倉廩湯(下95) 參令白朮散(上25)	15	噤口 痢	倉廩湯(下95) 蓼苓白朮散(上25)
			16	休息 痢	八物湯(上32) 參令白朮散(上25) 補中益氣湯(上22) 真人養臟湯(中109)	16	風痢	倉廩湯(下95) 胃風湯(中106)
			17	風痢	倉廩湯(下95)	17	休息 痢	八物湯(上32) 補中益氣湯(上22) 蓼苓白朮散(上25)

16	虛痢	調中理氣湯(下96) 補中益氣湯(上22) 錢氏異功散(上19)		胃風湯(中106) 理中湯(上6) 五積散(中13) 不換金正氣散(中15)		真人養臟湯(中109) 理中湯(上6) 不換金正氣散(中15) 五積散(中13)		
17	冷痢	胃關煎(上76)	18	寒痢	當歸和血散(下142)	19	濕痢	當歸和血湯(下142)
18	積痢	感應丸(下97) 蘇感丸(下98) 萬億丸(下99) 生熟飲子(中110)	20	熱痢	倉廩湯(下95) 酒蒸黃連丸(下17) 導滯湯(下94) 黃芩芍藥湯(下93)	21	氣痢	倉廩湯(下95) 導滯湯(下94) 酒蒸黃連丸(下17) 黃芩芍藥湯(下93)
19	久痢	實腸散(上77) 水煮木香膏(中111) 橘皮煎元(上39)	22	虛痢	茱連丸(下92) 六磨湯(下104)	23	冷痢	茱連丸(下92) 六磨湯(下104)
20	久痢 變水	補中益氣湯(上22)	24	積痢	調中理氣湯(下96) 錢氏異功散(上19) 補中益氣湯(上22) 理中湯(上6) 真人養臟湯(中109) 四物湯(上68)	22	虛痢	調中理氣湯(下96) 補中益氣湯(上22) 錢氏異功散(上19) 理中湯(上6) 真人養臟湯(中109) 四物湯(上68)
21	疫痢	薑茶湯(下100)	25	久痢	四物湯(上68)	23	冷痢	胃關煎(上76)
22	腹痛 痢	香連丸(下101)	26	疫蟲 五色痢	感應丸(下97) 蘇感丸(下98) 萬億丸(下99) 保和丸(下39) 生熟飲子(中110) 神保丸(下54)	24	久痢	實腸散(上77) 橘皮煎元(上39)
23	通治	六神丸(下102)	27	腹痛 痢	實腸散(上77) 橘皮煎元(上39) 水煮木香膏(中111) 變水 補中益氣湯(上22)	25	積痢	水煮木香膏(中111) 變水 補中益氣湯(上22)
24	便閉	通幽湯(下103) 三和散(中88)	28	通治	薑茶湯(下100) 人參敗毒散(中19)	26	疫蟲 五色痢	真人養臟湯(中109)
25	血結 閉	桃仁承氣湯(下13) 當歸承氣湯(下19)	29	便閉	香連丸(下101)	27	腹痛 痢	六神丸(下102)
26	氣結 閉	四磨湯(下104) 吉梗枳殼湯(中134)	30	血結 閉	六神丸(下102) 大承氣湯(下8) 倉廩湯(下95) 調胃承氣湯(下8)	28	通治	倉廩湯(下95) 大承氣湯(下8) 調胃承氣湯(下8)
27	熱結 閉	防風通聖散(下4)	31	氣結 閉	通幽湯(下103) 三和散(中88)	29	便閉	通幽湯(下103) 三和散(中88)
28	二便 閉	防風通聖散(下4) 涼膈散(下21)	32	熱閉	桃仁承氣湯(下13) 當歸承氣湯(下19)	30	血結 閉	桃仁承氣湯(下13) 當歸承氣湯(下19)
29	老人 秘	濟川煎(上78) 膠蜜湯(上80) 潤血飲(上79)	33	二便 閉	四磨湯(下104) 吉梗枳殼湯(中134)	31	氣結 閉	四磨湯(下104) 桔梗枳殼湯(中134)
			34	老人 秘	防風通聖散(下4) 四物湯(上68)	32	熱閉	防風通聖散(下4) 四物湯(上68)
					涼膈散(下21)	33	二便 閉	防風通聖散(下4) 涼膈散(下21)
					濟川煎(上78)	34	老人 秘	涼膈散(下21)
					膠蜜湯(上80)			濟川煎(上78)
					潤血飲(上79)			膠蜜湯(上80)

33) 四君子湯은 上統 64번에 존재한다. <證脈本>에서 上統 69번이라 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對譯本>에서 바로 잡은 것이다.

31) 頭

頭門을 보면 이전과 비슷한 양상으로 〈原本〉보다 〈證脈本〉에서 많은 추가된 점들이 보이고 〈對譯本〉에서는 〈證脈本〉과 내용면에서는 거의 같으나 훨씬 보기 쉽게 잘 정리된 것이 확인된다.

먼저 항목변화를 보면 〈原本〉과 〈證脈本〉의 비교에서 〈證脈本〉의 6번 陰虛痛, 7번 陽虛痛, 10번 眉稜骨痛, 11번 頭生白屑은 〈原本〉에서 안 보이는 내용이 추가 삽입된 것이다. 〈證脈本〉과 〈對譯本〉과의 비교에서는 〈對譯本〉의 4번 氣量, 5번 熱量, 6번 血量, 7번 老人暈이 虛暈안에서 빠져나와 각자 독립된 항목으로 정리되었고³⁴⁾ 12번 氣血痛은 〈證脈本〉에서 陽虛痛 안에 氣虛痛이 독립항목인 氣血痛으로 바뀌어 정리되어 있다.³⁵⁾ 또, 14번 熱厥痛, 15번 火邪痛, 16번 風寒痛, 17번 濕熱痛이 〈原本〉에서 血虛痛안에 있던 게 빠져나와 각자 독립항목으로 정리되었다.

다음으로 치방변화를 보면 〈證脈本〉의 2번 痰量에서 半夏白朮天麻湯(中115)이 3번 虛量에서는 補中益氣湯(上22), 氣量 七氣湯(中81), 熱量 防風通聖散(下4), 血量 茵歸湯(上112), 老人暈 十全大補湯(上33)이 〈原本〉에 비해 추가되었다. 4번 偏頭痛에서는 二陳湯(中99), 四物湯(上68), 大承氣湯(下8)이 추가되고 5번 痰厥痛에서는 항목명이 痰厥에서 痰厥痛으로 바뀌고 六安煎(中49)이 〈原本〉보다 추가되었다. 7번 陽虛痛에서 〈原本〉에서 항목명으로 氣虛가 나오고 順氣和中湯(中117)이 나오는 것에 비해 氣虛痛으로 바뀌어 陽虛痛안으로 끼워 넣은 것이 눈에 띈다. 8번 血虛痛은 앞의 血虛에서 제목이 바뀌고 熱厥痛 清上瀉火湯(中120), 火邪痛 白虎湯(下7), 風寒痛 茵芷香蘇散(中17), 濕熱痛 防風通聖散(下4)이 〈原本〉보다 추가되었다. 〈證脈本〉과 〈對譯本〉간의 치방변화는 없다.

다음으로 순서변화는 항목기재순서변화는 없고 〈證脈本〉과 비교했을 때 〈對譯本〉에서 약간의 항목 내 치방기재순서변화가 확인된다.

이를 도표로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다.

34) 여기 頭門에서는 〈證脈本〉에서 다른 항목 안에 있던 氣量, 熱量, 血量, 老人暈, 熱厥痛, 火邪痛, 風寒痛, 濕熱痛 등이 〈對譯本〉에서 독립된 항목으로 나와 있다. 전후 흐름을 볼 때 특별히 이 내용들이 다른 항목 내부에 종속되어 있을 이유가 없어 보인다. 〈對譯本〉처럼 따로 독립시켜 놓는 게 탄당해 보인다.

35) 〈原本〉과 〈證脈本〉에서 모두 氣虛痛으로 되어있는 것이 〈對譯本〉에서는 氣血痛으로 바뀐 것인데, 〈對譯本〉안에서 氣血痛 앞뒤로 陽虛痛 血虛痛이 나오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이는 氣虛痛을 옮기는 과정에서 氣血痛으로 잘못 바뀐 것으로 추측된다. 역시 〈對譯本〉의 교정이 필요하다.

<原本>

1	頭風	消風散(中112) 養血祛風湯(中113)
2	痰暈	清量化痰湯(中114)
3	虛暈	滋陰健脾湯(上81)
4	偏頭痛	清上蠲痛湯(中116)
5	痰厥	半夏白朮天麻湯(中115) 芎辛導痰湯(下105) 二陳湯(中99)
6	氣虛	順氣和中湯(中117)
7	血虛	當歸補血湯(中118) 芎烏散(中119)
8	熱厥	清上瀉火湯(中120)
9	便燥血壅	大承氣湯(下8)

<證脈本>

1	頭風	消風散(中112) 養血祛風湯(中113)
2	痰暈	半夏白朮天麻湯(中115) 清量化痰湯(中114)
3	虛暈	補中益氣湯(上22) 滋陰健脾湯(上81) 氣量 七氣湯(中81) 血量 蔡歸湯(上112) 熱量 防風通聖散(下4) 老人量 十全大補湯(上33)
4	偏頭痛	清上蠲痛湯(中116) 二陳湯(中99) 四物湯(上68) 大承氣湯(下8)
5	痰厥痛	半夏白朮天麻湯(中115) 二陳湯(中99) 芎辛導痰湯(下105) 六安煎(中49)
6	陰虛痛	六味元(上40) 八味元(上40)
7	陽虛痛	理中湯(上6) 補中益氣湯(上22) 理陰煎(上11) 氣虛痛 順氣和中湯(中117)
8	血虛痛	當歸補血湯(中118) 芎烏散(中119) 熱厥痛 清上瀉火湯(中120) 風寒痛 川芎香蘇散(中17) 火邪痛 白虎湯(下7) 濕熱痛 防風通聖散(下4)
9	便燥血壅	大承氣湯(下8)
10	眉稜骨痛	二陳湯(中99)
11	頭生白屑	消風散(中112)

<對譯本>

1	頭風	消風散(中112) 養血祛風湯(中113)
2	痰暈	半夏白朮天麻湯(中115) 清量化痰湯(中114)
3	虛暈	補中益氣湯(上22) 滋陰健脾湯(上81)
4	氣量	七氣湯(中81)
5	熱量	防風通聖散(下4)
6	血量	蔡歸湯(上112)
7	老人量	十全大補湯(上33)
8	偏頭痛	清上蠲痛湯(中116) 二陳湯(中99) 四物湯(上68) 大承氣湯(下8)
9	痰厥痛	半夏白朮天麻湯(中115) 芎辛導痰湯(下105) 二陳湯(中99) 六安煎(中49)
10	陰虛痛	八味元(上40) 六味地黃元(上40)
11	陽虛痛	理中湯(上6) 理陰煎(上11) 補中益氣湯(上22)
12	氣血痛	順氣和中湯(中117)
13	血虛痛	當歸補血湯(中118) 芎烏散(中119)
14	熱厥痛	清上瀉火湯(中120)
15	火邪痛	白虎湯(下7)
16	風寒痛	川芎香蘇散(中17)
17	濕熱痛	防風通聖散(下4)
18	便燥血壅	大承氣湯(下8)
19	眉稜骨痛	二陳湯(中99)
20	頭生白屑	消風散(中112)

32) 面

面門을 보면 이전과 비슷하게 전체적으로 <原本>보다 <證脈本>에 추가된 내용이 보이고 <對譯本>에서는 <證脈本>과 내용면에서는 거의 같으나 보기쉽게 잘 정리된 것이 확인된다.

먼저 항목변화는 <證脈本>의 3번 陰虛面浮, 4번 實熱面浮는 <原本>에 없던 항목이 추가 삽입된 것이다. 그리고 <原本>의 5번 風刺는 <證脈本>에서는 風熱 안으로 들어가서 항목이 없어졌지만 <對譯本>에서 다시 독립항목으로 정리되어있다. <對譯本>의 7번 面戴陽도 <證脈本>에서 風熱 안에 있던 것인데 독립되어 항목으로 정리된 것이다.

다음으로 처방변화는 <證脈本>의 1번 面熱에서는 調胃承氣湯(下8)이 2번 面寒에서는 附子理中湯(上9)이 5번 胃風에서는 升麻胃風湯(中123), 消風散(中112), 荊防敗毒散(中19), 清胃散(下120)이 <原本>보다 추가되었고 6번 風熱에서 面戴陽 四逆湯(上8)이 <原本>보다 새로 추가되었다.

그 다음으로 순서변화를 보면 항목기재순서변화가 확인되는데 <證脈本>에서 5번에 있는 胃風이 <對譯本>에서는 4번으로 자리를 이동한 게 눈에 띈다. 그 외의 변화로 이전 두 板本에서 西施玉容散雜方으로 되었는게 <對譯本>에서 西施玉容散 282面上으로 바뀌었다.³⁶⁾

이를 도표로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다.

<原本>

<證脈本>

<對譯本>

1	面熱	升麻黃連湯(中121)	1	面熱	升麻黃連湯(中121) 調胃承氣湯(下8)	1	面熱	升麻黃連湯(中121) 調胃承氣湯(下8)
2	面寒	升麻附子湯(中122)	2	面寒	升麻附子湯(中122) 附子理中湯(上9)	2	面寒	升麻附子湯(中122) 附子理中湯(上9)
			3	陰虛 面浮	胃關煎(上76) 八味元(上40) 參令白朮散(上25) 歸脾湯(上66)	3	陰虛 面浮	胃關煎(上76) 八味元(上40) 參苓白朮散(上25) 歸脾湯(上66)
			4	實熱 面浮	白虎湯(下7) 大分清飲(下81)	4	胃風	升麻胃風湯(中123) 消風散(中112) 荊防敗毒散(中19) 清胃散(下120)
3	胃風	升麻胃風湯(中123) 消風散(中112)	5	胃風	升麻胃風湯(中123) 消風散(中112) 荊防敗毒散(中19) 清胃散(下120)	5	實熱 面浮	白虎湯(下7) 大分清飲(下81)
4	風熱	犀角升麻湯(中9) 清上防風湯(中124)	6	風熱	犀角升麻湯(中9) 清上防風湯(中124) 面戴陽 四逆湯(上8)	6	風熱	犀角升麻湯(中9) 清上防風湯(中124)
5	風刺	西施玉容散雜方			風刺 西施玉容散雜方	7	面戴 陽	四逆湯(上8)
						8	風刺	西施玉容散 282面上

36) <證脈本>에서는 西施玉容散을 雜方門에 있다고만 표기한 것이고 <對譯本>에서는 282페이지에 있다고 표기한 것이다.

33) 眼

眼門도 앞서와 비슷하게 <原本>보다 <證脈本>에 추가된 내용이 보이고 <對譯本>은 <證脈本>과 거의 비슷하다.

먼저 항목변화는 <證脈本>의 1번 内障, 7번 通治는 <原本>에 없던 것이 새로 추가된 항목이다. 그리고 2번 外障 안에 있는 風淚 白彊蠶散(下110)은 <原本>에서는 항목으로 따로 정리된 내용인데 <證脈本>에서는 外障 안으로 들어와 있다.³⁷⁾

다음 치방변화를 보면 <對譯本>에서 4번 眼昏의 처방명이 磁朱丸에서 加味磁朱丸으로 바뀌었다.

다음으로 순서변화는 항목기재순서변화는 없고 <對譯本>에서 항목 내 치방기재순서변화가 눈에 띤다.

그 외의 변화로 6번 點眼에서 珊瑚紫金膏雜方이 珊瑚紫金膏 278面上으로 ³⁸⁾七鍼膏雜方이 七鍼膏雜方 280面上으로 바뀌었다.³⁹⁾

이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原本>			<證脈本>			<對譯本>		
			1 内障	補中益氣湯(上22) 十全大補湯(上33)		1 内障	補中益氣湯(上22) 十全大補湯(上33)	
1 外障	瀉青丸(下106) 石決明散(下107) 洗肝明日湯(下108) 四物龍膽湯(下109) 消風散(中112)		2 外障	瀉青丸(下106) 石決明散(下107) 四物龍膽湯(下109) 消風散(中112) 洗肝明日湯(下108) 風淚 白彊蠶散(下110)		2 外障	瀉青丸(下106) 四物龍膽湯(下109) 石決明散(下107) 消風散(中112) 洗肝明日湯(下108) 風淚 白彊蠶散(下110)	
2 風淚	白彊蠶散(下110)		3 眼疼	夏枯草散(下111)		3 眼疼	夏枯草散(下111)	
3 眼疼	夏枯草散(下111)		4 眼昏	磁朱丸(下112)		4 眼昏	加味磁朱丸(下112)	
4 眼昏	磁朱丸(下112)		5 洗眼	洗眼湯(下113)		5 洗眼	洗眼湯(下113)	
5 洗眼	洗眼湯(下113)		6 點眼	珊瑚紫金膏雜方 七鍼膏雜方		6 點眼	珊瑚紫金膏 278面上 七鍼膏雜方 280面上	
6 點眼	珊瑚紫金膏雜方 七鍼膏雜方		7 通治	四物湯(上68)		7 通治	四物湯(上68)	

37) 風淚는 韓醫學에서 眼疾患을 구분할 때 外障疾患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앞의 조문에서 보면 대부분 <證脈本>에서 항목내로 삽입된 것들은 <對譯本>에서 다시 항목을 분리시켜 따로 기재해서 <原本>의 형식으로 돌아가는 것들이 많으나 여기서는 風淚가 外障疾患에 속함이 명백하기에 그대로 <證脈本>의 형태로 기재되었다.

38) <證脈本>에서는 七鍼膏를 雜方門에 있다고만 표기한 것이고 <對譯本>에서는 280페이지에 있다고 표기한 것이다.

39) <證脈本>에서는 珊瑚紫金膏을 雜方門에 있다고만 표기한 것이고 <對譯本>에서는 278페이지에 있다고 표기한 것이다.

34) 耳

耳門의 내용은 항목변화, 처방변화, 순서변화 등 아 무런 변화가 없이 세 板本 모두 같다.

이를 도표로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다.

<原本>			<證脈本>			<對譯本>		
1	耳聾	磁石羊腎丸(上82) 消風散(中112)	1	耳聾	磁石羊腎丸(上82) 消風散(中112)	1	耳聾	磁石羊腎丸(上82) 消風散(中112)
2	風熱 耳鳴	防風通聖散(下4)	2	風熱 耳鳴	防風通聖散(下4)	2	風熱 耳鳴	防風通聖散(下4)
3	聰瞞	蔓荊子散(中125) 荊芥蓮翹湯(中126)	3	聰瞞	蔓荊子散(中125) 荊芥蓮翹湯(中126)	3	聰瞞	蔓荊子散(中125) 荊芥蓮翹湯(中126)

35) 鼻

鼻門은 <原本>과 <證脈本>에서는 많은 차이가 존재하지만 <對譯本>은 <證脈本>과 거의 비슷하다.

먼저 항목변화는 <證脈本>의 1번 鼻淵鼻鼽는 <原本>에 없던 내용이 추가 삽입된 것이다. 2번 鼻塞鼻痛은 <原本>에서 鼻塞이었던 것이 항목명이 바뀐 것이고 3번 鼻痔鼻瘡도 <原本>에서 鼻瘡이었던 것이 항목명이 바뀐 것이다. <對譯本>의 2번 鼻鼽는 <原本>에서는 독립항목으로 나왔다가 <證脈本>에서는 鼻淵鼻鼽 안으로 들어갔다가 <對譯本>에서 다시 독립된 항목으로 나온 것이 확인된다.

다음 처방변화는 <證脈本>의 2번 鼻塞鼻痛에서 參蘇飲(中26), 二陳湯(中99)이 <原本>보다 추가되었고 3번 鼻痔鼻瘡에서 勝濕湯(上15), 防風通聖散(下4)이 추가되었다.

다음으로 순서변화는 항목기재순서변화는 鼻鼽가 <原本>에서는 3번에 따로 보이는 것인데 <證脈本>에서 鼻淵鼻鼽안에 들어와 있고 처방기재순서변화는 <對譯本>에서 앞의 板本들과 약간 달라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도표로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다.

<原本>			<證脈本>			<對譯本>		
1	鼻塞	麗澤通氣湯(中127) 補中益氣湯(上22)	1	鼻淵 鼻鼽	消風散(中112) 防風通聖散(下4) 柴陳湯(中69) 鼻鼽 清血四物湯(下115)	1	鼻 淵 鼻 験	消風湯(中112) 柴陳湯(中69) 防風通聖散(下4)
2	鼻瘡	黃芩湯(下114) 瀉白散(下33)	2	鼻塞 鼻痛	參蘇飲(中26) 二陳湯(中99) 麗澤通氣湯(中127) 補中益氣湯(上22)	2	鼻 塞	參蘇飲(中26) 二陳湯(中99) 麗澤通氣湯(中127) 補中益氣湯(上22)
3	鼻鼽	清血四物湯(下115)	3	鼻痔 鼻瘡	瀉白散(下33) 黃芩湯(下114) 勝濕湯(上15) 防風通聖散(下4)	3	鼻 痾 鼻 瘡	瀉白散(下33) 勝濕湯(上15) 黃芩湯(下114) 防風通聖散(下4)

36) 口舌

口舌門에서도 이전과 비슷한 변화를 보이는데 <原本>과 <證脈本>에서는 차이점이 존재하지만 <對譯本>은 <證脈本>과 거의 비슷하다.

먼저 항목변화를 보면 <證脈本>의 1번 肺熱口辛, 2번 肝熱口苦는 <原本>에서는 안 보이는 항목인데 추가 삽입되었다. <對譯本>의 2번 心熱口苦와 3번 腎熱口鹹은 <證脈本>에서 肺熱口辛 안에 있던 것인데 독립된 항목으로 기재된 것이다.

다음 처방변화를 보면 <證脈本>의 3번 口糜에서 理中湯(上6), 四物湯(上68), 補中益氣湯(上22) 세 처방이 추가되었다.

순서변화는 <對譯本>에서 항목 내 처방기재순서에 조금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 외의 변화로 <證脈本>과 <對譯本> 3번 口糜에서 凉膈散뒤에 ‘小兒口瘡亦可’라는 글귀가 추가되었다.

이를 도표로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다.

<原本>		<證脈本>		<對譯本>		
1	口糜	移熱湯(下78) 回春涼膈散(下116) 涼膈散(下21) 瀉白散(下33) 牛黃涼膈元(下123)	1 肺熱 口辛	甘吉湯(中128) 瀉白散(下33) 心熱口苦 凉膈散(下21) 腎熱口鹹 滋腎丸(下80)	1 肺 热 口辛	甘吉湯(中128) 瀉白散(下33)
			2 肝熱 口苦	小柴胡湯(中25)	2 心 热 口苦	涼膈散(下21)
			3 口糜	移熱湯(下78) 回春涼膈散(下116) 涼膈散(下21) 小兒口瘡亦可 瀉白散(下33) 牛黃涼膈元(下123) 理中湯(上6) 四物湯(上68) 補中益氣湯(上22)	3 口糜	滋腎丸(下80)
2	舌腫	黃連湯(下117) 清心連子飲(中64)	4 舌腫	黃連湯(下117) 清心連子飲(中64)	4 肝 热 口苦	小柴胡湯(中25)
3	重舌	青黛散(下118) 龍石散(下119)	5 重舌	青黛散(下118) 龍石散(下119)	5 口糜	移熱湯(下78) 瀉白散(下33) 回春涼膈散(下116) 牛黃涼膈元(下123) 涼膈散(下21) 小兒口瘡亦可 理中湯(上6) 四物湯(上68) 補中益氣湯(上22)
					4 舌腫	黃連湯(下117) 清心連子飲(中64)
					5 重舌	青黛散(下118) 龍石散(下119)

37) 牙齒

牙齒門에서는 <原本>과 <證脈本>에서는 차이점이 존재하지만 <對譯本>은 <證脈本>과 똑같다.

여기서는 항목변화만 있는데 <證脈本>의 2번 痰血痛, 3번 痰熱痛, 4번 風熱痛이 <原本>에 없던 내용인데 추가 삽입된 것이고 1번 胃熱痛은 항목명이 胃熱에서 바뀐 것이다.

이를 도표로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다.

<原本>		<證脈本>		<對譯本>	
1	胃熱	清胃散(下120) 瀉胃湯(下121)	1	胃熱痛	清胃散(下120) 瀉胃湯(下121)
			2	痰血痛	犀角地黃湯(下60) 桃仁承氣湯(下13)
			3	痰熱痛	二陳湯(中99)
			4	風熱痛	犀角升麻湯(中9)
2	齦腫	犀角升麻湯(中9) 涼膈散(下21)	5	齦腫	犀角升麻湯(中9) 涼膈散(下21)
3	漱藥	玉池散(下122)	6	漱藥	玉池散(下122)

38) 咽喉

咽喉門을 보면 <原本>보다 <證脈本>에서 추가된 내용이 보이고 <對譯本>은 <證脈本>과 거의 비슷하다.

먼저 항목변화를 보면 <證脈本>의 1번 實乳蛾, 2번 虛乳蛾, 7번 誤吞諸蟲은 <原本>에 없었던 내용이 추가 삽입된 것이고 <對譯本>의 4번 咽瘡은 <證脈本>에서 3번 咽腫안에 있던 것인데 독립항목으로 정리된 것이다.

다음 처방변화에는 <證脈本>의 3번 咽腫에서 咽瘡 清火補陰湯(中129)이 4번 梅核에서 四七湯(中82)이 5번 咽痛에서 荊防敗毒散(中19)이 <原本>과 비교해 추가되었다.

다음으로 순서변화에는 <對譯本>의 5번 咽痛과 6번 梅核이 앞의 두 板本과 비교해 볼 때 순서가 바뀌었고 항목 내 처방기재순서의 변화는 각 판본에 조금씩 존재한다.

그 외의 변화로 <證脈本>의 5번 咽痛에서 甘吉湯뒤에 ‘亦治喉痺失音’ 이란 글귀가 삽입되었다.

이를 도표로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다.

<原本>

1	咽腫	牛黃涼膈元(下123) 龍腦膏(下127) 吹喉散(下124) 青黛散(下118) 龍石散(下119)
2	梅核	荊蘇湯(中95) 加味四七湯(下70)
3	咽痛	必用方甘吉湯(下125) 甘吉湯(中128) 清火補陰湯(中129) 梨硼膏(中51)
4	陰虛 格陽	鎮陰煎(上67)

<證脈本>

1	實乳 蛾	涼膈散(下21) 防風通聖散(下4)
2	虛乳 蛾	四物湯(上68) 千繕湯(下35)
3	咽腫	牛黃涼膈元(下123) 青黛散(下118) 龍腦膏(下127) 吹喉散(下124) 龍石散(下119) 咽瘡 清火補陰湯 (中129)
4	梅核	荊蘇湯(中95) 加味四七湯(下70) 四七湯(中82)
5	咽痛	必用方甘吉湯(下125) 荊防敗毒散(中19) 清火補陰湯(中129) 梨硼膏(中51) 甘吉湯(中128) 亦治喉痺失音
6	陰虛 格陽	鎮陰煎(上67)
7	誤吞 諸蟲	四物湯(上68)

<對譯本>

1	實乳 蛾	涼膈散(下21) 防風通聖散(下4)
2	虛乳 蛾	四物湯(上68) 千繕湯(下35)
3	咽腫	牛黃涼膈元(下123) 青黛散(下118) 龍腦膏(下127) 龍石散(下119) 吹喉散(下124)
4	咽瘡	清火補陰湯(中129)
5	咽痛	必用方甘吉湯(下125) 清火補陰湯(中129) 荊防敗毒散(中19) 梨硼膏(中51) 甘吉湯(中128) 亦治喉痺失音
6	梅核	荊蘇湯(中95) 加味四七湯(下70) 四七湯(中82)
7	陰虛 格陽	鎮陰煎(上67)
8	誤吞 諸蟲	四物湯(上68)

39) 頸項

頸項門의 내용은 세 板本 모두 항목, 처방, 순서 등 모든 면이 똑같다.

이를 도표로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다.

<原本>

1	項強	回首散(下128)
---	----	-----------

<證脈本>

1	項強	回首散(下128)
---	----	-----------

<對譯本>

1	項強	回首散(下128)
---	----	-----------

였다.

그리고 <對譯本>의 처방기재순서가 조금 변한 게 확인된다.

이를 도표로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다.

<原本>

1	背痛	三合湯(下129)

<證脈本>

1	背痛	三合湯(下129) 二陳湯(中99) 四物湯(上68)
2	背寒	導痰湯(下3) 蘇子降氣湯(中87)

<對譯本>

1	背痛	三合湯(下129) 四物湯(上68) 二陳湯(中99)
2	背寒	導痰湯(下3) 蘇子降氣湯(中87)

40) 背

背門의 내용도 <原本>보다 <證脈本>에서 추가된 내용이 보이고 <對譯本>은 <證脈本>과 거의 똑같다.

항목변화는 <證脈本>의 2번 背寒이 <原本>에 없던 게 추가 삽입되었다. 처방변화는 <證脈本>의 1번 背痛에서 四物湯(上68), 二陳湯(中99) 두 처방이 추가되

41) 胸

胸門을 보면 <原本>과 <證脈本> 간에 아주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고 <證脈本>과 <對譯本>은 차이점이 적다.

먼저 항목변화를 보면 <證脈本>의 1번 心脾痛, 2번 心腎痛, 3번 七情痛, 4번 血痛, 5번 氣痛부분은 <原本>에서는 心痛으로만 되어있던 부분인데 세분화시켜서 자세히 풀어놓은 것이고 8번 食痛은 <原本>에서는 積心痛이었던 것이 항목명이 食痛으로 바뀌었고 9번 悸痛, 10번 痰痛, 11번 蟲痛은 <原本>에는 없던 내용이 추가 삽입된 것이다. 12번 虛痛은 앞에서는 없던 항목인데 새로 생기면서 虛痛 안에 <原本>에서는 따로 항목으로 되어있던 劍藥과 胸痞가 들어가 있다. 또, <對譯本>의 12번 風痛, 13번 腎氣上攻, 16번 怯藥, 17번 胸痞는 <證脈本>에서 다른 항목 내에 있던 것인데 <對譯本>에서 따로 항목으로 정리되었다.

다음으로 처방변화를 보면 <證脈本>의 6번 冷痛에서 五積散(中13)이 7번 热痛에서 大承氣湯(下8), 小柴胡湯(中25)의 처방이 <原本>보다 추가되었고 8번 食痛에서는 平胃散(下22), 香砂養胃湯(中43) 두 개의 처방이 추가되었다. 12번 虛痛에서는 <原本>에서 볼 수 없던 二陳湯(中99)이 추가된 것이 확인된다. 또, <對譯本>의 15번 虛痛에서 小建中湯(上45) 한 처방이 <證脈本>보다 추가되었다.

다음 순서변화를 보면 항목기재순서의 변화는 <對譯本>의 14번 痰結痞는 앞의 두 板本에서는 水結胸 앞에 나오던 것이 虛痛 앞으로 자리이동 하였다. 처방기재순서는 역시나 각 판본별로 약간의 차이점을 보인다.

그 외의 변화로서 <對譯本>의 5번 氣痛에서 처방명이 蘇合丸에서 蘇合香元으로 바뀌었다.

이를 도표로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다.

<原本>

1	心痛	手拈散(中130)
2	冷痛	建理湯(上83) 參圓飲(上84) 扶陽助胃湯(上85) 厚朴溫中湯(中143)
3	熱痛	連附六一湯(中131)
4	積心痛	行氣香蘇散(中132)

<證脈本>

1	心脾痛	手拈散(中130)
2	心腎痛	蟠蕊散(下136) 神保元(下54)
3	七情痛	加味四七湯(下70) 分心氣飲(中83)
4	血痛	五積散(中13) 失笑散(下160)
5	氣痛	蘇合香元(中90)
6	冷痛	建理湯(上83) 扶陽助胃湯(上85) 參圓飲(上84) 厚朴溫中湯(中143) 五積散(中13)
7	熱痛	連附六一湯(中131) 大承氣湯(下8) 小柴胡湯(中25)
8	食痛	行氣香蘇散(中132) 平胃散(下22) 香砂養胃湯(中43)
9	悸痛	加味四七湯(下70) 四七湯(中82) 七氣湯(中81)
10	痰痛	芎夏湯(中100) 五苓散(下10)
11	蟲痛	二陳湯(中99)
12	風痛	分心氣飲(中83)
13	腎氣上攻	五苓散(下10)

<對譯本>

1	心脾痛	手拈散(中130)
2	心腎痛	蟠蕊散(下136) 神保元(下54)
3	七情痛	加味四七湯(下70) 分心氣飲(中83)
4	血痛	五積散(中13) 失笑散(下160)
5	氣痛	蘇合香元(中90)
6	冷痛	建理湯(上83) 扶陽助胃湯(上85) 參圓飲(上84) 厚朴溫中湯(中143) 五積散(中13)
7	熱痛	連附六一湯(中131) 大承氣湯(下8) 小柴胡湯(中25)
8	食痛	行氣香蘇散(中132) 平胃散(下22) 香砂養胃湯(中43)
9	悸痛	加味四七湯(下70) 四七湯(中82) 七氣湯(中81)
10	痰痛	芎夏湯(中100) 五苓散(下10)
11	蟲痛	二陳湯(中99)
12	風痛	分心氣飲(中83)
13	腎氣上攻	五苓散(下10)

5	劫藥	倉卒散(中133)
6	胸痞	桔梗枳殼湯(中134)
7	痰結 痞	柴梗半夏湯(中135) 柴陳湯(中69)
8	水結 胸	赤茯苓湯(中136)

14	痰結 痞	柴梗半夏湯(中135) 柴陳湯(中69)
15	虛痛	二陳湯(中99) 小建中湯(上45)
16	劫藥	倉卒散(中133)
17	胸痞	桔梗枳殼湯(中134)
18	水結 胸	赤茯苓湯(中136)

14	痰結 痞	柴梗半夏湯(中135) 柴陳湯(中69)
15	虛痛	二陳湯(中99) 小建中湯(上45)
16	劫藥	倉卒散(中133)
17	胸痞	桔梗枳殼湯(中134)
18	水結 胸	赤茯苓湯(中136)

42) 乳

乳門은 변화가 비교적 적은 부분이다.

항목변화는 <證脈本>의 5번 消乳가 <原本>에 없던 것이 추가된 항목이다. 처방변화는 <證脈本>의 2번 乳癰에서 八物湯(上32)이 <原本>보다 추가되었다.

순서변화는 <對譯本>의 2번 乳巖과 3번 乳癰이 앞의 두 板本과 비교해 자리를 바꾸었고 항목 내 처방기 재순서에 약간의 변화가 보인다.

이를 도표로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다.

<原本>

<證脈本>

<對譯本>

1	下乳	通乳湯(中137)
2	乳癰	神效瓜萎散(中138) 加味芷貝散(中139)
3	乳巖	十六味流氣飲(中140)
4	乳核	清肝解鬱湯(中141) 芷貝散(中142)

1	下乳	通乳湯(中137)
2	乳癰	神效瓜萎散(中138) 八物湯(上32) 加味芷貝散(中139)
3	乳巖	十六味流氣飲(中140)
4	乳核	清肝解鬱湯(中141) 芷貝散(中142)
5	消乳	四物湯(上68)

1	下乳	通乳湯(中137)
2	乳巖	十六味流氣飲(中140)
3	乳癰	神效瓜萎散(中138) 加味芷貝散(中139) 八物湯(上32)
4	乳核	清肝解鬱湯(中141) 芷貝散(中142)
5	消乳	四物湯(上68)

43) 腹 附臍

腹門은 제목부터 차이점이 보인다. <原本>에서는 ‘腹’이라고만 되어 있는 게 <證脈本>과 <對譯本>에서는 ‘腹’ 뒤에 ‘附臍’라는 글귀가 더해졌다.

우선 항목변화를 보면 <證脈本>의 1번 脘築症, 3번 虛痛, 4번 脘腹은 <原本>에 없던 내용이 새로이 추가되어진 항목이다. 또, <對譯本>의 2번 热痛(下93), 3번 痰痛, 4번 血痛, 5번 食通, 6번 實痛이 <證脈本>에서는 모두 寒痛 안에 있던 것들인데 <對譯本>에서 각자 항목으로 따로 정리되어 있는 것이 차이점이다.

다음 처방변화를 보면 <證脈本>의 2번 寒痛에서 五積散(中13), 理中湯(上6) 두 처방이 더해졌고 热痛 黃芩

芍藥湯(下93), 痰痛 芎夏湯(中100), 血痛 失笑散(下160), 食通 平胃散(下22), 實痛 大柴胡湯(下9)의 내용과 처방이 추가되었다.

다음으로 순서변화는 <對譯本> 10번 脘築症이 <證脈本>에서 1번에 나오던 것인데 자리이동이 있고 <對譯本>의 항목내 처방기재순서에 약간의 변화가 확인된다.

이를 도표로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다.

<原本>			<證脈本>			<對譯本>		
			1	臍築症	理中湯(上6)	1	寒痛	建理湯(上83) 當歸四逆湯(中152) 厚朴溫中湯(中143) 五積散(中13) 理中湯(上6) 大柴胡湯(下9)
1	寒痛	建理湯(上83) 厚朴溫中湯(中143) 當歸四逆湯(中152)	2	寒痛	建理湯(上83) 厚朴溫中湯(中143) 理中湯(上6) 當歸四逆湯(中152) 五積散(中13) 熱痛 黃芩芍藥湯 (下93) 痰痛 芎夏湯(中100) 食通 平胃散(下22) 血痛 失笑散(下160) 實痛 大柴胡湯(下9)	2	熱痛	黃芩芍藥湯(下93)
			3	虛痛	小建中湯(上45) 理中湯(上6)	3	痰痛	芎夏湯(中100)
			4	臍腹	四逆湯(上8) 五積散(中13)	4	血痛	失笑散(下160)
2	嘔泄	黃連湯(中144)	5	嘔泄	黃連湯(中144)	5	食通	平胃散(下22)
3	通治	芍藥甘草湯(上86)	6	通治	芍藥甘草湯(上86)	6	實痛	大柴胡湯(下9)
						7	虛痛	小建中湯(上45) 理中湯(上6)
						8	臍腹	四逆湯(上8) 五積散(中13)
						9	嘔泄	黃連湯(中144)
						10	臍築症	理中湯(上6)
						11	通治	芍藥甘草湯(上86)

44) 腰

腰門에서 우선 항목변화를 보면 <證脈本>의 1번 腎虛痛은 제목이 腎虛에서 바뀌었고 2번 痰痛, 3번 食痛, 4번 風痛은 <原本>에서 없던 항목이 추가되었다.

다음 처방변화를 보면 <證脈本>의 1번 腎虛痛에서 六八味元(上40)이 <原本>보다 추가되었다.

순서변화는 <對譯本>에서 약간의 처방기재순서의 변화만 보인다.

그 외의 변화는 <證脈本>의 5번 挫閃에서 五積散뒤에 ‘亦治寒濕及瘀血’ 이란 글귀가 <原本>보다 더해진 것과 <對譯本>의 1번 腎虛痛의 처방 중 八味元이 <證脈本>에서 六八味元이었던 것이 바뀐 것이 달라진 점이다.

이를 도표로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다.

<原本>			<證脈本>			<對譯本>		
1	腎虛	青娥丸(上87)	1	腎虛痛	青娥丸(上87) 六八味元(上40)	1	腎虛痛	青娥丸(上87) 八味元(上40)
			2	痰痛	芎夏湯(中100) 二陳湯(中99)	2	痰痛	芎夏湯(中100) 二陳湯(中99)
			3	食痛	四物湯(上68)合 二陳湯(中99)	3	食痛	四物湯(上68)合 二陳湯(中99)
			4	風痛	烏藥順氣散(中10) 五積散(中13)	4	風痛	烏藥順氣散(中10) 五積散(中13)
2	挫閃	如神湯(中145) 立安散(中146) 五積散(中13)	5	挫閃	如神湯(中145) 五積散(中13) 亦治寒濕及瘀血 立安散(中146)	5	挫閃	如神湯(中145) 立安散(中146) 五積散(中13) 亦治寒濕及瘀血

45) 脇

脇門을 보면 먼저 항목변화는 <증脈本>의 5번 實痛, 6번 虛痛은 <原本>에 없던 항목이 추가된 것이다.

다음 처방변화는 <증脈本>의 1번 氣痛에서 小柴胡湯(中25)이 3번 右痛에서 神保元(下54)이 <原本>보다 추가되었고 또, <對譯本>의 2번 左痛에서 小柴胡湯(中25)이 5번 虛痛에서 五積散(中13)이 <증脈本>보다 추가되었다. 그 외에는 변화가 없다.

이를 도표로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다.

<原本>			<證脈本>			<對譯本>		
1	氣痛	神保元(下54) 小柴胡湯(中25)	1	氣痛	神保元(下54)	1	氣痛	神保元(下54) 小柴胡湯(中25)
2	左痛	枳芍散(中147)	2	左痛	枳芍散(中147)	2	左痛	枳芍散(中147) 小柴胡湯(中25)
3	右痛	推氣散(中148) 神保元(下54)	3	右痛	推氣散(中148)	3	右痛	推氣散(中148) 神保元(下54)
4	兩脇痛	分心氣飲(中83)	4	兩脇	分心氣飲(中83)	4	兩脇痛	分心氣飲(中83)
5	實痛	小柴胡湯(中25)				5	實痛	小柴胡湯(中25)
6	虛痛	四物湯(上68)				6	虛痛	四物湯(上68) 五積散(中13)

46) 皮

皮門에서 우선 항목변화를 보면 <증脈本>의 2번 癪疹, 3번 內傷發癩은 <原本>에 없던 항목이 추가 삽입된 것이다.

다음 처방변화는 <증脈本>의 1번 癪疹에서 烏藥順氣散(中10)이 8번 麻木에서는 二陳湯(中99), 四物湯(上68), 香蘇散(中17)의 처방이 <原本>과 비교해 추가되었다.

다음으로 순서변화를 보면 항목기재순서의 변화는 <原本>에서 虛痒, 陰症發癩, 癪痒, 丹毒의 순으로 나

오던 것이 <證脈本>과 <對譯本>에서는 陰症發癥, 丹毒, 虛症, 癪痺의 순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처방기재순서의 변화는 역시 <對譯本>에서 확인된다.

이를 도표로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다.

<原本>		<證脈本>	<對譯本>
1	癪痺	清肌散(中149) 防風通聖散(下4) 荊防敗毒散(中19) 十神湯(中18) 升麻葛根湯(中22) 回春涼膈散(下116)	清肌散(中149) 防風通聖散(下4) 荊防敗毒散(中19) 十神湯(中18) 升麻葛根湯(中22) 回春涼膈散(下116) 烏藥順氣散(中10)
2	虛症	四物湯(上68)	人參白虎湯(下7) 升麻葛根湯(中22)
3	陰症 發癥	理中湯(上6) 八味元(上40)	黃芪健中湯(上45)
4	癩痺	消風散(中112)	理中湯(上6) 八味元(上40)
5	丹毒	犀角消毒飲(下130) 犀角升麻湯(中9) 黃連解毒湯(下12)	犀角消毒飲(下130) 犀角升麻湯(中9) 黃連解毒湯(下12)
6	虛症	四物湯(上68)	四物湯(上68)
7	癩痺	消風散(中112)	開結舒經湯(下131) 二陳湯(中99)
8	麻木	開結舒經湯(下131)	四物湯(上68) 香蘇散(中17)
9	氣虛 麻木	補中益氣湯(上22)	香蘇散(中17) 補中益氣湯(上22)

47) 手

手門에서는 먼저 항목변화를 보면 항목명이 <原本>의 氣滯, 痰滯에서 <證脈本>에서 氣滯臂痛, 痰滯臂痛으로 바뀌었고 <原本>에서 항목으로 따로 정리된 癪痺가 <證脈本>에서 痰滯臂痛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게 눈에 띈다. <對譯本>의 3번 癩痺와 4번 虛症은 <證脈本>에서는 痰滯臂痛 안에 들어있던 것이 따로 항목으로 정리된 것이다.

다음 처방변화를 보면 <證脈本>에서 虛症 建理湯(上83)이 새로 생겨서 痰滯臂痛 안에 자리하고 있다. 그 외의 변화는 없다.

이를 도표로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다.

<原本>		<證脈本>	<對譯本>
1	氣滯	舒經湯(下133)	氣滯 臂痛 舒經湯(下133)
2	痰滯	半夏今朮湯(下132)	痰滯 臂痛 半夏今朮湯(下132)
3	癩痺	木香保命丹(下5)	癩痺 木香保命丹(下5)

48) 足

足門에서 먼저 항목변화는 <證脈本>의 1번 濕熱脚氣는 앞에서 濕熱이었던 것이 항목명이 바뀐 것이고 이것이 다시 <對譯本>에서 濕滯脚氣⁴⁰⁾로 바뀌었다. <證脈本> 4번 寒濕과 7번 通治은 <原本>에는 없던 것인데 새로이 추가 삽입된 항목이다. 또, <對譯本> 5번 血熱과 6번 痰滯은 <證脈本>에서 寒濕안에 있던 내용인데 따로 독립된 항목으로 정리되었다.

다음 처방변화는 <證脈本>의 3번 濕滯에서 胃苓湯(下86) 한개 처방이 5번 衝上에서 四磨湯(下104), 入心三和散(中88), 入肺 小青龍湯(中27), 入腎 八味元(上40)의 내용과 처방이 <原本>보다 추가되었고 8번 鶴膝風에서는 五積散(中13), 八味元(上40) 두개 처방이 <原本>에 비해 추가되었다.

<原本>

1	濕熱	淸熱瀉濕湯(下134)
2	風濕	大羌活湯(下6) 楨蘇散(下135) 疏風活血湯(中5) 獨活寄生湯(上88)
3	濕滯	五令散(下10)
4	衝上	木萸湯(中150) 紫蘇飲(中160)
5	四氣流注	四蒸木瓜丸(中151)
6	鶴膝風	大防風湯(上89) 三氣飲(上16)
7	癲痺	木香保命丹(下5)

<證脈本>

1	濕熱脚氣	淸熱瀉濕湯(下134)
2	風濕	大羌活湯(下6) 楨蘇散(下135) 疏風活血湯(中5) 獨活寄生湯(上88)
3	濕滯	五令散(下10) 胃苓湯(下86)
4	寒濕	五積散(中13) 小續命湯(中1) 血熱 四物湯(上68) 痰滯 五積散(中13)
5	衝上	木萸湯(中150) 四磨湯(下104) 紫蘇飲(中160) 入心 三和散(中88) 入肺 小青龍湯(中27) 入腎 八味元(上40)
6	四氣流注	四蒸木瓜丸(中151)
7	通治	烏藥順氣散(中10) 不換金正氣散(中15)五積散(中13)
8	鶴膝風	大防風湯(上89) 五積散(中13) 三氣飲(上16) 八味元(上40)
9	癲痺	木香保命丹(下5)

<對譯本>

1	濕滯脚氣	淸熱瀉濕湯(下134)
2	風濕	大羌活湯(下6) 疏風活血湯(中5) 楨蘇散(下135) 獨活寄生湯(上88)
3	濕滯	五苓散(下10) 胃苓湯(下86)
4	寒濕	五積散(中13) 小續命湯(中1)
5	血熱	四物湯(上68)
6	痰滯	五積散(中13)
7	衝上	入腹 木萸湯(中150) 紫蘇飲(中160) 四磨湯(下104) 入心 三和散(中88) 入肺 小青龍湯(中27) 入腎 八味元(上40)
8	四氣流注	四蒸木瓜丸(中151)
9	通治	烏藥順氣散(中10) 五積散(中13) 不換金正氣散(中15)
10	癲痺	木香保命丹(下5)
11	鶴膝風	大防風湯(上89) 三氣飲(上16) 五積散(中13) 八味元(上40)

40) <原本>과 <證脈本>에서는 각각 濕熱, 濕熱脚氣 였던 항목명이 <對譯本>에서는 濕滯脚氣로 바뀌었다. 처방을 보면 세판본 모두 동일하게 淸熱瀉濕湯(下134)이 나오고 있다. 이처방이 濕熱의 문제를 해결하는 처방이니 만큼 濕滯脚氣가 아닌 濕熱 또는 濕熱脚氣가 맞는 것임이 自明하다. 따라서 <對譯本>의 수정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순서변화를 보면 <對譯本>의 10번 癲痺와 11번 鶴膝風은 앞의 두 판본과 비교해 서로 자리를 바꾸었다.

그 외의 변화로 <對譯本>의 7번 衝上에서 木萸湯 앞에 ‘入腹’이라는 글귀가 추가된 것이 보인다.

이를 도표로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다.

49) 前陰

前陰門에서 먼저 항목변화를 보면 <證脈本>의 6번 通治, 8번 陰冷, 10번 囊濕, 11번 陰戶出, 12번 陰戶腫 13번 陰痒은 <原本>에 없던 항목이 새로이 추가된 것이다. 9번 囊腫은 <原本>에서는 항목명이 陰腫이었던 것이 바뀐 것이고 4번 瘡疽은 <原本>에서 癰疽이었던 것인데 <證脈本>과 <對譯本>에서는 항목명이 바뀌었다. 또, <對譯本>의 4번 氣疽과 5번 狐疽은 <證脈本>에서 血疽 안에 있던 내용인데 따로 항목으로 정리된 것이고 7번 奔拖疽은 <證脈本>에서 瘡疽 안에 있던 내용인데 따로 항목으로 정리되었다.

다음 치방변화를 보면 <證脈本>의 1번 寒疝에서 五積散(中13) 한개 치방이 2번 筋疽에서 清心連子飲(中64)이 3번 血疽에서 桃仁承氣湯(下13), 氣疽 蟠葱散(下136), 狐疽 二陳湯(中99)이 4번 瘡疽⁴¹⁾에서는 神保元(下54), 五苓散(下10), 奔拖疽 理中湯(上6)이 5번 劫藥에서는 神聖代鍼散(下138)이 <原本>보다 추가되었다.

다음으로 순서변화는 먼저 항목기재순서변화는 <原本>에서 5번 陰腫, 6번 偏墜, 7번 囊濕, 8번 劫藥의 순서였던 것이 <證脈本>과 <對譯本>에서는 5번 劫藥, 6번 通治, 7번 偏墜, 8번 陰冷, 9번 囊腫, 10번 囊濕의 순서로 바뀌었다. 다음 치방기재순서변화는 <對譯本>의 항목 내에서 확인된다.

이를 도표로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다.

41) 瘡 : 古病名. 痘病의 일종.

<靈樞 經脈>에서 “足厥陰肝脈이 병들면 腰痛으로 인해 허리를 구부리거나 펴지 못하며 남자의 경우는 瘡疽이 발생하고 여자의 경우는 少腹部가 뜻는다.”고 하였다. 후대에는 대개 陰囊이 크게 뜻거나 혹은 진물러서 膽血이 흐르는 병증을 가리킨다.....(하략)

癰 : 痘名. “癰”을 “頰”로 적기도 한다.

① 寒濕邪가 下注하여 야기된 陰囊腫大를 가리킨다. <儒門事親>卷二에서 “癰疽이란 陰囊이 마치 되나 말처럼 뜻고 가렵지도 아프지도 않는 것이다. 地氣의 卑濕함을 얻어 발생하므로 江淮之間혹은 뜻이나 연못에 인접한 지역에 이려한 질병이 많다. 祛濕藥 으로 攻下해야 한다.”고 하였다.(하략)

② 여성의 少腹部가 뜻거나 陰戶가 돌출되는 痘症을 가리킨다. <素門 脈解篇>에서 “厥陰經이 병들어 이른바 남자에게는 癰疽이 여자에게는 少腹部가 뜻다고 함은 厥陰이 月建으로는 辰이며....”라고 하였다.....(하략)

③ 陰疽을 가리킨다. <聖濟總錄>에서 “邪氣가 陰中에 올려 陰器가 뜻고 아픈 경우를 陰疽이라 하며 癰疽이라고 한다.”고 하였다.

(傳統醫學研究所, 東洋醫學大辭典, 成輔社, 2000, pp 2422~2423.)

<原本>

1	寒疝	蟠葱散(下136) 當歸四逆湯(中152) 理中湯(上6) 緩肝煎(上90) 小建中湯(上45)
2	筋疝	龍膽瀉肝湯(下137)
3	血疝	神聖代鍼散(下138)
4	癩疝	橘核丸(下139)
5	陰腫	三疝湯(下140) 五令散(下10)
6	偏墜(42)	茴香安腎湯(上91)
7	囊濕	活血驅風散(下150)
8	劫藥	梔附湯(中133)

<證脈本>

1	寒疝	蟠葱散(下136) 當歸四逆湯(中152) 理中湯(上6) 緩肝煎(上90) 小建中湯(上45) 五積散(中13)
2	筋疝	龍膽瀉肝湯(下137) 清心連子飲(中64)
3	血疝	神聖代鍼散(下138) 桃仁承氣湯(下13) 氣疝 蟠葱散(下136) 狐疝 二陳湯(中99)
4	癩疝	橘核丸(下139) 五令散(下10) 神保元(下54) 奔拖疝 理中湯(上6)
5	劫藥	梔附湯(中133) 神聖代鍼散(下138)
6	通治	二陳湯(中99) 五令散(下10)
7	偏墜	茴香安神丸(上91)
8	陰冷	八味元(上40)
9	囊腫	五苓散(下10) 合 三仙湯(下140) ⁴³⁾
10	囊濕	活血驅風湯(下150)
11	陰戶出	補中益氣湯(上22) 歸脾湯(上66) 龍膽瀉肝湯(下137) 柴胡四物湯(中163)
12	陰戶腫	四物湯(上68) 加味逍遙散(下62)
13	濕痒	歸脾湯(上66) 加味逍遙散(下62)

<對譯本>

1	寒疝	蟠葱散(下136) 緩肝煎(上90) 當歸四逆湯(中152) 小建中湯(上45) 理中湯(上6) 五積散(中13)
2	筋疝	龍膽瀉肝湯(下137) 清心連子飲(中64)
3	血疝	神聖代鍼散(下138) 桃仁承氣湯(下13)
4	氣疝	蟠葱散(下136)
5	狐疝	二陳湯(中99)
6	癩疝	橘核丸(下139) 神保元(下54) 五苓散(下10)
7	奔拖疝	理中湯(上6)
8	劫藥	梔附湯(中133) 神聖代鍼散(下138)
9	通治	二陳湯(中99) 五苓散(下10)
10	偏墜	茴香安神湯(上91)
11	陰冷	八味元(上40)
12	囊腫	五苓散(下10) 合 三仙湯(下140)
13	囊濕	活血驅風湯(下150)
14	陰戶出	補中益氣湯(上22) 歸脾湯(上66) 龍膽瀉肝湯(下137) 柴胡四物湯(中163)
15	陰戶腫	四物湯(上68) 加味逍遙散(下62)
16	濕痒	歸脾湯(上66) 加味逍遙散(下62)

42) 偏墜 : 痘名. <中藏經>卷二. 대부분 痰濕, 瘀血, 食積 痘은 肝火亢盛으로 인해 發病하며 耳下腺炎을 앓은 후에 발생하기도 한다. 그 증상은 한쪽 痤丸이 둇고 아프며 처지는 것이다. 左側에서 발생한 경우는 대부분 瘀血이나 肝火로 인한 것이고 右側에서 발생한 경우는 대부분 痰濕이나 食積으로 인한 것이다.(하략) (傳統醫學研究所, 東洋醫學大辭典, 成輔社, 2000, p 2447.)

43) 方藥合編에서 下統 140번을 찾아보면 三疝湯으로 되어 있다. 처방명에 痘이라는 글자가 나와 있는 만큼이 부분에서는 三仙湯이 아닌 三疝湯이 합당하다. <證脈本>과 <對譯本>의 誤謬이다.

50) 後陰

後陰門에서 먼저 항목변화는 <證脈本>의 2번 虛痔는 <原本>에 없던 항목이 새로 추가된 것이고 <原本>의 3번 腸熱은 <證脈本>에서 腸風 안으로 들어갔다가 <對譯本>에서 다시 항목으로 따로 정리된 것도 확인된다. 또, <證脈本>의 3번 腸風 안에 있던 濕毒도 <對譯本>에서는 따로 항목으로 정리되었다.

다음 치방변화를 보면 <證脈本>의 3번 腸風에서 敗毒散(中19), 四物湯(上68), 腸熱 黃連解毒湯(下12), 濕毒 黃連湯(下117)의 내용과 치방이 추가되었고 5번 脫肛에서는 四物湯(上68), 六味地黃湯(上40), 升陽除濕湯(下88), 八味元(上40) 네 개의 치방이 추가되었다.

다음으로 순서변화는 먼저 항목기재순서변화는 <證脈本>에서 腸風, 日久 순서였던 것이 <對譯本>에서 둘 사이 순서가 바뀌었고 다음 치방기재순서변화는 역시 <對譯本>에서 약간의 변화가 보인다.

이를 도표로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다.

<原本>

1	痔瘻	秦艽蒼朮湯(下141)
2	虛痔	腎氣丸(上40) 十全大補湯(上33) 補中益氣湯(上22)
3	腸風	當歸和血湯(下142) 升陽除濕和血湯(下143) 敗毒散(中19) 胃風湯(中106) 平胃散(下22) 四物湯(上68) 腸熱 黃連解毒湯 (下12) 濕毒 黃連湯(下117)
4	日久	參苓白朮散(上25) 益胃升陽湯(上23)
5	脫肛	參芪湯(上92) 補中益氣湯(上22) 四物湯(上68) 升陽除濕湯(下88) 六味地黃湯(上40) 八味元(上40)

<證脈本>

1	痔瘻	秦艽蒼朮湯(下141)
2	虛痔	
3	腸風	當歸和血湯(下142) 升陽除濕和血湯(下143) 胃風湯(中106) 平胃散(下22)
4	腸熱	黃連解毒湯(下12)
4	日久	參苓白朮散(上25) 益胃升陽湯(上23)
5	脫肛	參芪湯(上92) 補中益氣湯(上22)

<對譯本>

1	痔瘻	秦艽蒼朮湯(下141)
2	虛痔	腎氣丸(上40) 補中益氣湯(上22) 十全大補湯(上33)
3	日久	蓼苓白朮散(上25) 益胃升陽湯(上23)
3	腸風	當歸和血湯(下142) 胃風湯(中106) 升陽除濕和血湯(下143) 平胃散(下22) 人蔘敗毒散(中19) 四物湯(上68)
4	腸熱	黃連解毒湯(下12)
5	濕毒	黃連湯(下117)
7	脫肛	參芪湯(上92) 補中益氣湯(上22) 四物湯(上68) 六味地黃元(上40) 升陽除濕湯(下88) 八味元(上40)

51) 癰疽

癰疽門에서 먼저 항목변화를 보면 <증脈本>의 5번 附骨疽는 앞에서 없던 항목인데 추가로 삽입되었고 3번 貼藥의 치방들은 <原本>에서는 通治, 挿藥 등에서 보이는 불이는 약들을 한데모아 재구성하였다. <原本>의 5번 懸癰은 <原本>에서는 따로 항목으로 되어있는 것이 <증脈本>에서 肺癰안으로 들어갔고 6번 痰腫은 이름이 痰盛으로 바뀌어 <증脈本>의 2번 煩渴 안으로 들어갔다. <原本>의 7번 通治의 치방들은 <증脈本>에서 3번 貼藥으로 들어가면서 항목은 삭제되었다. 또, <對譯本>의 2번 始終, 4번 煩渴, 5번 毒氣上攻, 6번 痰盛, 8번 挿藥, 10번 肝癰, 11번 腎癰, 12번 懸癰은 <증脈本>에서는 다른 항목 내에 있던 것들인데 각자 항목으로 따로 정리된 것이다.

<原本>

1	初發	連翹敗毒散(中19) 托裏消毒飲(上93) 三仁膏(下144)
2	潰後	加味十全湯(上94) 十全大補湯(上33) 滋腎保元湯(上95)
3	貼藥	神聖餅(下145)
4	肺癰	桔梗湯(中153)
5	懸癰	國老膏(上96)
6	痰腫	通順散(中154) 消痰膏雜方
7	通治	神異膏雜方 萬應膏雜方 雲母膏雜方 無憂膏雜方

<證脈本>

1	初發	連翹敗毒散(中19) 托裏消毒飲(上93) 三仁膏(下144) 始終 國老膏(上96)
2	潰後	加味十全湯(上94) 十全大補湯(上33) 滋腎保元湯(上95) 煩渴 八物湯(上32) 毒氣上攻 六君子湯(上69) 痰盛 通順散(中154)
3	貼藥	神異膏雜方 萬應膏雜方 雲母膏雜方 消痰膏雜方 無憂膏雜方 挿藥 神聖餅(下145)
4	肺癰	桔梗湯(中153) 參蘇飲(中26) 小青龍湯(中27) 腎癰 八味元(上40) 肝癰 小柴胡湯(中25) 懸癰 國老膏(上96)
5	附骨疽	通順散(中154) 合 二陳湯(中99)

<對譯本>

1	初發	連翹敗毒散(中19) 三仁膏(下144) 托裏消毒飲(上93) 國老膏(上96)
2	始終	加味十全湯(上94) 十全大補湯(上33) 滋腎保元湯(上95) 八物湯(上32)
3	潰後	六君子湯(上69)
4	煩渴	通順散(中154)
5	毒氣上攻	神異膏 268面上 萬應膏 275面上 雲母膏 271面上 萬病無憂膏 269面上 消痰膏 276面上
6	痰盛	桔梗湯(中153)
7	貼藥	參蘇飲(中26) 小青龍湯(中27) 小柴胡湯(中25)
8	挿藥	神聖餅(下145)
9	肺癰	桔梗湯(中153) 參蘇飲(中26) 小青龍湯(中27) 小柴胡湯(中25)
10	肝癰	八味元(上40)
11	腎癰	國老膏(上96)
12	懸癰	通順散(中154) 合 二陳湯(中99)
13	附骨疽	

다음 치방변화를 보면 <증脈本>의 1번 初發에서는 始終 國老膏(上96)가 추가되고 2번 潰後에서는 煩渴 八物湯(上32), 毒氣上攻 六君子湯(上69), 痰盛 通順散(中154)의 내용이 추가되었다. 4번 肺癰에서는 參蘇飲(中26), 小青龍湯(中27), 肝癰 小柴胡湯(中25), 腎癰 八味元(上40)이 <原本>보다 추가되었다.

다음으로 순서변화는 항목들이 없어지고 생겨나긴 했지만 항목기재순서변화는 없고 치방기재순서변화는 <對譯本>의 일부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외의 변화로는 <對譯本>의 7번 貼藥에서 앞에서는 雜方이라고만 되어있는 게 치방 바로 뒤에 몇 쪽에 기입되어있는지 표시된 것이 차이점이다.

이를 도표로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다.

52) 諸瘡

諸瘡門에서는 먼저 항목변화를 보면 <證脈本>의 1번 大風瘡, 5번 瘰瘤, 7번 飲蝕瘡⁴⁴⁾, 8번 噛瘡, 10번 諸瘡은 <原本>에 없던 것인데 새로이 추가된 항목이다. 2번 楊梅瘡에서는 항목명이 楊梅에서 바뀌었다.

다음으로 처방변화를 보면 <證脈本>의 2번 楊梅瘡에서 防風通聖散(下4) 亦治疥癬이 4번 結核에서는 二陳湯(中99)이 6번 頭瘡에서는 防風通聖散(下4)이 9번 腎風瘡⁴⁵⁾에서는 腎氣丸(上40), 四物湯(上68)이 <原本>보다 추가되었다. 순서변화는 항목기재순서에는 변화가 없고 <對譯本>에서 처방기재순서에 차이점이 존재한다.

이를 도표로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다.

	<原本>	<證脈本>	<對譯本>
1 楊梅	仙遺糧湯(下146) 丹粉丸(下147)	1 大風瘡 2 楊梅瘡 3 瘰瘤 4 結核 5 瘰瘤 6 頭瘡 7 陰蝕瘡 8 噛瘡 9 腎風瘡 10 諸瘡	1 大風瘡 2 楊梅瘡 3 瘰瘤 4 結核 5 瘰瘤 6 頭瘡 7 陰蝕瘡 8 噛瘡 9 腎風瘡 10 諸瘡
2 瘰瘤	梔子清肝湯(下148) 夏枯草散(中155)	仙遺糧湯(下146) 防風通聖散(下4) 亦治疥癬 丹粉丸(下147)	仙遺糧湯(下146) 丹粉丸(下147) 防風通聖散(下4) 亦治疥癬
3 結核	開氣消痰湯(下74)	防風通聖散(下74) 二陳湯(中99)	開氣消痰湯(下74) 二陳湯(中99)
4 頭瘡	酒歸飲(下149)	十六味流氣飲(中140) 酒歸飲(下149) 防風通聖散(下4)	十六味流氣飲(中140) 酒歸飲(下149) 防風通聖散(下4)
5 腎風瘡	活血驅風散(下150)	龍膽瀉肝湯(下137) 八正散(下79) 八物湯(上32) 連翹敗毒散(中19) 活血驅風散(下150) 四物湯(上68) 腎氣丸(上40) 升麻葛根湯(中22)合人參敗毒散(中19)	龍膽瀉肝湯(下137) 八正散(下79) 八物湯(上32) 連翹敗毒散(中19) 活血驅風湯(下150) 腎氣丸(上40) 四物湯(上68) 升麻葛根湯(中22)合人參敗毒散(中19)

44) 陰蝕瘡 : 痘名. <神農本草經>의 石硫黃 煅, 蝙疽, 陰中生瘡, 陰瘡, 陰癰, 癰, 陰蝕瘡이라고도 한다. 情志鬱火로 肝脾가 손상되고 濕熱이 下注하여 鬱結되어 薰蒸함으로 인해 虫이 생겨 陰中을 잠식한 것이다. 陰部가 진물러 潰瘍이 발생하고 膜血이 방울방울 떨어지거나 아프거나 혹은 가려우며 腫脹墜痛 증상이 발생하는데 대개 赤白帶下 등이 수반된다. (傳統醫學研究所, 東洋醫學大辭典, 成輔社, 2000, p 1766.)

45) 腎風瘡 : 證候名. <素門 風論>에서 “腎風의 증상은 땀을 많이 흘리고 바람을 싫어하며 얼굴에 부종이 발생하고 腰脊부의 통증으로 똑바로 서지 못하며 얼굴은 회색이고 小便이 순조롭지 못하다. 진찰시에 턱을 자세히 살펴보면 褐色을 띈다.”고 하였다. (하락) (傳統醫學研究所, 東洋醫學大辭典, 成輔社, 2000, p 1346.)

53) 救急

救急門은 <原本>에서만 존재하는 내용이다. 備急丸(下151)과 紫金錠만 보이는데 <證脈本>과 <對譯本>에서는 救急門은 삭제되어 있다.

54) 婦人

婦人門은 <活套鍼線> 중 가장 긴 부분이고 각 板本 별로 차이점도 상당히 많이 발견된다.

먼저 항목변화를 살펴보자. <原本>과 <證脈本>을 비교해보면 <證脈本>의 7번 五臟虛下, 14번 妊娠禁忌, 18번 下死胎, 23번 子淋, 29번 子瘡, 34번 血崩, 35번 雜血, 37번 不語, 38번 謂語, 43번 鬱冒, 45번 頭痛, 47번 泄痢, 50번 主治는 <原本>에는 없던 것이 <證脈本>에서 새로 추가 삽입된 것이다. <證脈本>과 <對譯本>을 비교해보면 <對譯本>의 3번 血閉, 4번 血枯, 5번 產後閉, 6번 濕痰, 7번 鬱火, 8번 鬱怒, 9번 經來身痛은 <證脈本>에서는 모두 血閉 안에 존재하는 내용인데 소제목으로 따로 정리된 것이고⁴⁶⁾ 11번 積痰은 <證脈本>에서 帶濁 안에 보이던 것인데 따로 항목으로 정리되었다. 12번 虛寒 補中益氣湯(上22)는 새로 추가 삽입된 것이고 17번 瘦怯者, 18번 肥盛者는 <證脈本>에서는 求嗣 안에 있는 내용이었는데 따로 항목으로 정리된 것이고 50번 熱入血室, 51번 感冒風寒은 앞에서는 發熱 안에 있던 것이 따로 항목으로 정리된 것이다.

다음으로 처방변화를 보면 <原本>과 <證脈本>을 비교 했을 때 <證脈本>의 2번 血閉에서 血枯 補中益氣湯(上22), 產後閉 十全大補湯(上33), 濕痰 導痰湯(下3), 鬱火 歸脾湯(上66), 鬱怒 加味歸脾湯(上98), 經來身痛 五積散(中13)의 내용과 처방이 추가되고 6번 帶濁에서는 積痰 二陳湯(中99)이 추가되었다. 8번 求嗣에서는 瘦怯者 四物湯(上68), 肥盛者 導痰湯(下3)의 내용 및 처방이 추가되었다. 9번 惡阻에서는 二陳湯(中99)이 추가되었고 15번 保產에서는 菖歸湯(上112)이 없어지고 紫蘇飲(中160)이 추가되었다. 17번 催產에서는 藿香正氣散(中14)가 없어졌고 22번 子腫에서는 平胃散(下22)가 추가되었고 24번 孕婦轉脬에서는 六味元(上40), 君令湯(下10)이 추가되었다. 26번 子痢에서는 胃風湯(中106), 香連丸(下101)이 추가된 게 확인되고 30번 傷寒에서는 小

46) <對譯本>에서 婦人門을 보면 4번 血枯가 <證脈本>에서 血閉 안에 있던 것 같이 <證脈本>에서는 항목 내에서 질환에 대한 원인으로 세분해서 내부에 존재했던 내용들이 <對譯本>에서는 따로 항목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들이 눈에 띈다. <對譯本>의 편재가 그러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역시 <證脈本>과 같이 항목 내부에 속해 있는 것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게 확인된다. 따라서 이는 <對譯本>의 誤謬인 것으로 판단되고 수정이 필요하다.

柴胡湯(中25)이 추가되었고 31번 產後虛老에서는 十全大補湯(上33)이 추가되었다. 32번 兒枕痛에서는 血虛四物湯(上68), 胃虛 六君子湯(上69)이 33번 血暈에서는 菖歸湯(上112), 全生活血湯(中156), 花藥石散(諸傷)이 추가된 것이고 36번 喘嗽에서는 菖歸湯(上112)이 추가되고 39번 發熱에서는 热入血室 小柴胡湯(中29), 感冒風寒 五積散(中13)의 내용과 처방이 추가되었고 41번 陰脫에서는 四物湯(上68), 補中益氣湯(上22), 失笑散(下160), 菖歸湯(上112)이 추가되었다. 44번 風瘡에서는 八物湯(上32), 四物湯(上68)이 추가되었다. 48번 便秘에서는 八物湯(上32), 加味逍遙散(中166)이 추가되었고 49번 浮腫에서는 四君子湯(上64)이 추가되었다. <證脈本>과 <對譯本>을 비교해보면 <對譯本>의 21번 胎動에서는 補中益氣湯(上22)이 22번 半產에서는 八物湯(上32)이 추가되었다. 25번 保產에서는 <證脈本>에서는 빠졌지만 <原本>에서는 볼 수 있었던 菖歸湯(上112)이 다시 보이고 佛手散(上111)이 추가되었다. 27번 催產에서도 <證脈本>에서는 빠졌지만 <原本>에서는 볼 수 있었던 藿香正氣散(中14)이 다시 보이고 29번 胞衣不下에서는 菖歸湯(上112)이 30번 子癟에서는 四物湯(上68)이 33번 子淋에서는 補中益氣湯(上22)이 <證脈本>에 비해 추가되었다. 35번 孕婦轉脬에서는 八味元(上40)이 추가되었고 57번 頭痛에서는 菖歸湯(上112)가 추가되었다. 그리고 60번 便秘의 처방 중에서 加味逍遙散이 <證脈本>에서는 中統 166번에 있다고 되어 있던 게 <對譯本>에서는 下統 62번으로 바뀌었다.⁴⁷⁾

다음으로 순서변화를 보면 먼저 항목기재순서변화는 <對譯本>의 2번 經遲가 <證脈本>에서는 血閉 뒤에 있던 것인데 자리가 앞으로 당겨졌고 10번 帶濁은 <證脈本>에서 崩漏 뒤에 있던 것이 앞으로 이동했고 43번 血崩, 44번 血暈은 <證脈本>과 비교했을 때 <對譯本>에서 자리를 바꾸었다. 다음 처방기재순서변화는 주로 <對譯本>에서 일부 항목 내 기재순서가 바뀐 것이 확인된다.

그 외의 다른 변화로는 <原本>의 25번 孕婦傷寒 항목 내에 ‘凡產前諸症依大科同治只忌禁忌藥隨症治之’,라는 글귀가 확인되는데 이것이 <證脈本>과 <對譯本>에서는 ‘凡孕婦產前諸症一依大科治但不用禁忌藥’,라고 약간 바꿔어 기재되어있고 <證脈本>의 49번 浮腫에서는 ‘凡產後難症以未治之當先補氣血隨症加減’라는 글귀가 보이는데 <原本>에는 보이지 않는 글귀이고 <對譯本>에서는 원문 그대로가 아닌 한글로 번역되어 실려 있는 게 확인된다.

47) 方藥合編을 살펴보면 中統 166번에는逍遙散이 실려 있고 下統 62번에는 加味逍遙散이 실려 있다. 따라서 <證脈本>의 내용이 잘못된 것으로 보이고 이를 <對譯本>에서 바로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를 도표로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다.

<原本>		<證脈本>		<對譯本>	
1	不調	調經散(上97) 四物湯(上68) 四製香附丸(下152) 七製香附丸(下153)	1	不調	調經散(上97) 四物湯(上68) 四製香附丸(下152) 七製香附丸(下153)
2	血閉	通經湯(下154) 加味歸脾湯(上98)	2	血閉	通經湯(下154) 加味歸脾湯(上98) 血枯 補中益氣湯(上22) 濕痰 導痰湯(下3) 鬱火 加味歸脾湯(上98) 產後閉 十全大補湯(上33) 鬱火 歸脾湯(上66) 經來身痛 五積散(中13)
3	經遲	大營煎(上47)	3	經遲	大營煎(上47)
4	血瘕	歸朮破癥湯(下155)	4	血瘕	歸朮破癥湯(下155)
5	崩漏	益胃升陽湯(上23) 全生活血湯(中156) 壽脾煎(上99) 復元養榮湯(上100) 歸脾湯(上66) 參令白朮散(上25) 舉元煎(上65) 秘元煎(上63)	5	崩漏	益胃升陽湯(上23) 全生活血湯(中156) 壽脾煎(上99) 復元養榮湯(上100) 歸脾湯(上66) 參令白朮散(上25) 舉元煎(上65) 秘元煎(上63)
6	帶濁	秘元煎(上63) 毓麟珠(上102)	6	帶濁	秘元煎(上63) 毓麟珠(上102) 積痰 二陳湯(中99)
7	求嗣	調經種玉湯(上101) 毓麟珠(上102) 附益地黃丸(上103) 四物黃狗丸(上104)	7	五臟虛下	胃風湯(中106) 五積散(中13)
8	惡阻	保生湯(上105)	8	求嗣	調經種玉湯(上101) 毓麟珠(上102) 附益地黃湯(上103) 四物黃狗丸(上104) 瘦怯者 四物湯 (上68) 肥盛者 導痰湯 (下3)
9	胎漏	膠艾芎歸湯(上106) 膠艾四物湯(上107)	9	惡阻	保生湯(上105) 二陳湯(中99)
10	胎動	安胎飲(上108)	10	胎漏	膠艾芎歸湯(上106) 膠艾四物湯(上107)
11	半產	金櫃當歸散(上109)	11	胎動	安胎飲(上108)
12	妊娠通治	加味八珍湯(上110) 芎歸湯(上112)	12	半產	金櫃當歸散(上109)
			13	妊娠通治	加味八珍湯(上110) 芎歸湯(上112)
			14	妊娠禁忌	見下統
			15	保產	達生散(中157) 紫蘇飲(中160)

13	保產	達生散(中157) 芎歸湯(上112)
14	少腹 常墜	補中益氣湯(上22)
15	催產	紫蘇飲(中160) 單鹿茸湯(上113) 佛手散(上111) 藿香正氣散(中14)
16	胞依 不下	牛膝湯(下156)
17	子瘤	羚羊角湯(下157)
18	子煩	竹瀝湯(中158)
19	子腫	鯉魚湯(上114) 澤瀉湯(下158) 藿令湯(中14)
20	孕婦 轉脬	參朮飲(上115)
21	子嗽	紫菀湯(中159)
22	子痢	當歸芍藥湯(下159) 調中理氣湯(下96)
23	子瘧	養胃湯(中16) 八物湯(上32)
24	子懸	紫蘇飲(中160)
25	孕婦 傷寒	芎蘇散(中21) 凡產前諸症依大科同治只 忌禁忌藥隨症治之
26	產後 虛勞	補虛湯(上116) 當歸羊肉湯(上117)
27	兒枕 痛	失笑散(下160) 起枕散(下161)
28	產後 血量	荊芥散(中161)

16	少腹 常墜	補中益氣湯(上22)
17	催產	紫蘇飲(中160) 佛手散(上111) 單鹿茸湯(上113)
18	下死 胎	平胃散(下22)
19	胞依 不下	牛膝湯(下156)
20	子瘤	羚羊角湯(下157)
21	子煩	竹瀝湯(中158)
22	子腫	鯉魚湯(上114) 澤瀉湯(下158) 藿令湯(中14) 平胃散(下22)
23	子淋	芎歸湯(上112)
24	孕婦 轉脬	參朮飲(上115) 君令湯(下10) 六味元(上40)
25	子嗽	紫菀湯(中159)
26	子痢	當歸芍藥湯(下159) 胃風湯(中106) 調中理氣湯(下96) 香連丸(下101)
27	子瘧	養胃湯(中16) 八物湯(上32)
28	子懸	紫蘇飲(中160)
29	子瘡	四物湯(上68)
30	傷寒	芎蘇散(中21) 小柴胡湯(中25) 凡孕婦產前諸症一依大科 治但不用禁忌藥
31	產後 虛勞	補虛湯(上116) 十全大補湯(上33) 當歸羊肉湯(上117)
32	兒枕 痛	失笑散(下160) 起枕散(下161) 血虛 四物湯(上68) 胃虛 六君子湯 (上69)
33	血暈	荊芥散(中161) 芎歸湯(上112) 全生活血湯(中156) 花藥石散(諸傷)
34	血崩	芎歸湯(上112) 四物湯(上68)
35	衄血	犀角地黃湯(下60) 荊芥散(中161)
36	喘嗽	小參蘇飲(中162) 芎歸湯(上112)
37	不語	伏令補心湯(中93)
24	妊娠 禁忌	見 278面 妊娠禁忌
25	保產	達生散(中157) 芎歸湯(上112) 紫蘇飲(中160) 佛手散(上111)
26	少腹 常墜	補中益氣湯(上22)
27	催產	紫蘇飲(中160) 單鹿茸湯(上113) 佛手散(上111) 藿香正氣散(中14)
28	下死 胎	平胃散(下22)
29	胞依 不下	牛膝湯(下156) 芎歸湯(上112)
30	子瘤	羚羊角湯(下157) 四物湯(上68)
31	子煩	竹瀝湯(中158)
32	子腫	鯉魚湯(上114) 藿令湯(中14) 澤瀉湯(下158) 平胃散(下22)
33	子淋	芎歸湯(上112)
34	子嗽	補中益氣湯(上22)
35	孕婦 轉脬	參朮飲(上115) 六味地黃元(上40) 君苓湯(下10) 八味元(上40)
36	子痢	當歸芍藥湯(下159) 調中理氣湯(下96) 胃風湯(中106) 香連丸(下101)
37	子瘧	人參養胃湯(中16) 八物湯(上32)
38	子懸	紫蘇飲(中160)
39	子瘡	四物湯(上68)
40	傷寒	芎蘇散(中21) 小柴胡湯(中25) 凡孕婦產前諸症一依大科 治但不用禁忌藥
41	產後 虛勞	補虛湯(上116) 當歸羊肉湯(上117) 十全大補湯(上33)
42	兒枕 痛	失笑散(下160) 起枕散(下161) 血虛 四物湯(上68) 胃虛 六君子湯 (上69)
43	血崩	芎歸湯(上112) 四物湯(上68)
44	血暈	荊芥散(中161) 芎歸湯(上112) 全生活血湯(中156) 花藥石散 341面上

29	産後 喘嗽	小參蘇飲(中162)	38	譫語	蘇合元(中90) 八物湯(上32)	45	衄血	犀角地黃湯(下60) 荊芥散(中161)
			39	發熱	柴胡四物湯(中163) 牛黃膏(下162) 熱入血室 小柴胡湯 (中29)	46	喘嗽	小蓼蘇飲(中162) 芎歸湯(上112)
					感冒風寒 五積散 (中13)	47	不語	茯苓補心湯(中93)
30	産後 發熱	柴胡四物湯(中163) 牛黃膏(下162)	40	血虛 發熱	逍遙散(中166)	48	譫語	蘇合香丸(中90) 八物湯(上32)
31	血虛 發熱	逍遙散(中166)	41	陰脫	當歸黃芪湯(上118) 補中益氣湯(上22) 失笑散(下160) 四物湯(上68) 芎歸湯(上112)	49	發熱	柴胡四物湯(中163) 牛黃膏(下162)
			42	食滯	理脾湯(下163) 五積散(中13)	50	熱入 血室	小柴胡湯(中29)
			43	鬱冒	全生活血湯(中156)	51	感冒 風寒	五積散(中13)
32	産後 食滯	理脾湯(下163) 五積散(中13)	44	風瘡	愈風湯(中164) 豆淋酒(中165) 八物湯(上32) 四物湯(上68)	52	血虛 發熱	逍遙散(中166)
33	産後 脫陰	當歸黃芪湯(上118)	45	頭痛	四物湯(上68)	53	陰脫	當歸黃芪湯(上118) 四物湯(上68) 補中益氣湯(上22) 八物湯(上32) 失笑散(下160) 芎歸湯(上112)
34	産後 風瘡	愈風湯(中164) 豆淋酒(中165)	46	遺尿	參朮膏(上119)	54	食滯	理脾湯(下163) 五積散(中13)
35	産後 遺尿	參朮膏(上119)	47	泄痢	四物湯(上68) 當歸芍藥湯(下159) 芎歸湯(上112) 八物湯(上32) 四磨湯(下104)	55	鬱冒	全生活血湯(中156)
36	産後 便秘	芎歸湯(上112) 四磨湯(下104)	48	便秘	加味逍遙散(中166) 理中湯(上6) 四君子湯(上64) 凡產後難症以末治之當先 補氣血隨症加減	56	風瘡	愈風湯(中164) 豆淋酒(中165) 八物湯(上32) 四物湯(上68)
37	産後 浮腫	理中湯(上6)	49	浮腫		57	頭痛	四物湯(上68) 芎歸湯(上112)
			50	主治	補虛湯(上106)	58	遺尿	參朮膏(上119)
						59	泄痢	四物湯(上68) 當歸芍藥湯(下159) 芎歸湯(上112) 四磨湯(下104) 八物湯(上32) 加味逍遙散(下62)
						60	便秘	理中湯(上6) 四君子湯(上64) ※대개 산후의 잡병은 산 제로 다스리되 먼저 기와 혈을 보하고 중세에 따라 가감하는 것이 마땅하다.
						61	浮腫	
						62	主治	補虛湯(上106)

小兒門에서는 <原本>과 <證脈本>과의 차이점은 많아 보이지만 <證脈本>과 <對譯本>과의 차이점은 적다.

먼저 항목변화를 보면 <證脈本>의 1번 客忤中惡, 2번 夜啼, 6번 痰瘡, 12번 痰喘, 13번 泄痢, 14번 腹痛, 15번 腹脹, 16번 48盤腸痛, 17번 五軟, 18번 解顱, 19번 頸墳, 20번 頸陷, 21번 齒不生, 22번 龜胸, 23번 丹毒 등 총 15개의 항목이 <原本>에 없던 내용으로서 추가 삽입되었다. 그리고 <對譯本>의 18번 五硬은 <證脈本>에서 17번 五軟 안에 있던 것이 따로 항목으로 정리된 것이다.

다음으로 처방변화는 <證脈本>의 4번 驚風에서 蘇合香元(中90)과 龍腦安神丸(下57) 두개 처방이 <原本>보다 추가되었고 8번 痘疾에서는 八物湯(上32)이, 9번 諸熱에서는 燥青丸(下106), 導赤散(下78), 燥白散(下33), 六味地黃丸(上40), 四君子湯(上64), 錢氏白朮散(上120), 補中益氣湯(上22), 水土丹(中167) 8개의 처방이 <原本>과 비교해 추가되었다. 또, 10번 吐瀉에서는 四君子湯(上64), 平胃散(下22), 白虎湯(下7), 異功散(上64), 補中益氣湯(上22) 5개 처방이 11번 感冒에서는 參蘇飲(中26) 하나가 24번 諸瘡에서는 五福化毒丹(下178), 防風通聖散(下4), 犀角地黃湯(下60) 세 개 처방이 <原本>보다 추가되었다. 그리고 <對譯本>의 10번 吐瀉에서 理中湯(上6)이 19번 解顱에서 十全大補湯(上33)이 <證脈本>보다 추가되었다.

다음으로 순서변화를 보면 먼저 항목기재순서변화는 <對譯本>의 3번 驚風과 4번 肝氣가 <證脈本>과 비교해 자리를 바꾸었고 처방기재순서변화는 주로 <對譯本>에서 일부 항목 내에서 순서변화가 존재한다.

그 외의 변화로는 <證脈本>의 4번 驚風의 처방 중 抱龍丸과 牛黃抱龍丸의 처방번호가 <原本>에서는 각각 下統 164번과 下統 165번 이었던 것이 <證脈本>에서는 中統 175번과 中統 176번으로 바뀌었고 7번 癲癇의 처방 중 紫霜丸이 <原本>에서는 下統 166번이었던 것이 <證脈本>에서는 中統 177번으로 바뀌었다. 또 8번 痘疾의 처방 중 五福化毒丹의 처방번호도 <原本>에서 下統 167번이었던 것이 <證脈本>에서 中統 178번으로 바뀌었고 9번 諸熱의 처방 중 天乙丸도 <原本>에서 下統 168번이었던 것이 <證脈本>에서 中統 179번으로 바뀌었다. 10번 吐瀉의 처방 중 燒鍼丸도 마찬가지로 <原本>에서 下統 169번이었던 것이 <證脈本>에서 中統

48) 盤腸痛 : 痘證名. <嬰童百問>. 盤腸氣痛, 腸痛이라고도 한다. 小兒가 脾氣가 부족한 데다 寒邪 風冷을 感受하여 腸間에 鬱結됨으로 인해 발생한다. 腹痛이 허리까지 파급되어 울음을 그치지 않고 젖을 먹지 않으며 안색이 창백하고 양 미간을 찌푸리며 푸른 뜙을 설사하고 이마에 땀이 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傳統醫學研究所, 東洋醫學大辭典, 成輔社, 2000, p 683.)

180번으로 바뀌었다.⁴⁹⁾ <對譯本>의 처방번호는 <證脈本>과 동일하다.

이를 도표로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다.

49) <原本>의 처방은 上統은 原方 123方, 附方 32方, 諸傷 8方, 解毒 2方, 雜方 14方, 製造法 26方로 구성되고 中統은 原方 181方, 附方 33方로 下統은 原方 161方, 附方 38方, 諸種禁忌 5件으로 구성되었다. <原本>에 下統에 161번을 넘어서는 처방번호는 없어야 하기 때문에 <證脈本>과 <對譯本>이 맞는 것으로 볼 수 있다.

〈原本〉

1	肝氣	芍藥甘草湯(上86)
2	驚風	抱龍丸(下164) 瀉青丸(下106) 牛黃抱龍丸(下165)
3	慢驚	錢氏白朮散(上120)
4	癲癇	紫霜丸(下166)
5	疳疾	肥兒丸(中167) 五福化毒丹(下167)
6	諸熱	小兒清心元(中168) 天乙丸(下168)
7	吐瀉	燒鍼丸(下169)
8	感冒	人參羌活散(中169) 芍藥甘草湯(上86)

〈證脈本〉

1	客忤 中惡	蘇合香元(中90)
2	夜啼	抱龍丸(中175) 導赤散(下78)
3	肝氣	芍藥甘草湯(上86)
4	驚風	蘇合香元(中90) 龍腦安神丸(下57) 抱龍丸(中175) 瀉青丸(下106) 牛黃抱龍丸(中176)
5	慢驚	錢氏白朮散(上120)
6	瘡瘍	理中湯(上6) 烏藥順氣散(中10) 小續命湯(中1)
7	癲癇	紫霜丸(中177)
8	疳疾	肥兒丸(中167) 八物湯(上32) 五福化毒丹(中178)
9	諸熱	小兒清心元(中168) 瀉青丸(下106) 瀉白散(下33) 天乙丸(中179) 導赤散(下78) 六味地黃丸(上40) 四君子湯(上64) 補中益氣湯(上22) 錢氏白朮散(上120) 水土丹(中167)
10	吐瀉	燒鍼丸(中180) 四君子湯(上64) 白虎湯(下7) 補中益氣湯(上22) 平胃散(下22) 異功散(上64)
11	感冒	人參羌活散(中169) 參蘇飲(中26) 芍藥甘草湯(上86)
12	痰喘	瀉白散(下33) 導痰湯(下3) 清金降火湯(下34) 抱龍丸(中175)
13	泄痢	黃芩芍藥湯(下93) 六神丸(下102) 益元散(下16)
14	腹痛	黃芩芍藥湯(下93) 安蛔理中湯(上70) 理中湯(上6) 練陳湯(下76)
15	腹脹	實 紫霜丸(中177) 虛 六君子湯(上69)
16	盤腸 痛	蘇合香元(中90)

〈對譯本〉

1	客忤 中惡	蘇合香元(中90)
2	夜啼	抱龍丸(中175) 導赤散(下78)
3	驚風	蘇合香元(中90) 瀉青丸(下106) 龍腦安神丸(下57) 牛黃抱龍丸(中176) 抱龍丸(中175)
4	肝氣	芍藥甘草湯(上86)
5	慢驚	錢氏白朮散(上120)
6	瘡瘍	理中湯(上6) 小續命湯(中1) 烏藥順氣散(中10)
7	癲癇	紫霜丸(中177)
8	疳疾	肥兒丸(中167) 五福化毒丹(中178) 八物湯(上32)
9	諸熱	小兒清心元(中168) 天乙丸(中179) 瀉青丸(下106) 導赤散(下78) 瀉白散(下33) 六味地黃丸(上40) 四君子湯(上64) 錢氏白朮散(上120) 補中益氣湯(上22) 水土丹(中167)
10	吐瀉	燒鍼丸(中180) 理中湯(上6) 四君子湯(上64) 平胃散(下22) 白虎湯(下7) 異功散(上64) 補中益氣湯(上22) 錢氏異功散(上120)
11	感冒	人參羌活散(中169) 芍藥甘草湯(上86) 參蘇飲(中26)
12	痰喘	瀉白散(下33) 導痰湯(下3) 清金降火湯(下34) 抱龍丸(中175)
13	泄痢	黃芩芍藥湯(下93) 益元散(下16) 六神丸(下102)
14	腹痛	黃芩芍藥湯(下93) 理中湯(上6) 安蛔理中湯(上70) 練陳湯(下76)
15	腹脹	實 紫霜丸(中177) 虛 六君子湯(上69)
16	盤腸 痛	蘇合香元(中90)

9	諸瘡	牛黃解毒丹(中171) 生料四物湯(中170)	17 五軟 解顱 頸墳 頸陷 齒不生 龜胸 丹毒 諸瘡	補中益氣湯(上32) 四君子湯(上64) 腎氣丸(上40) 五硬 烏藥順氣散(中10) 八味元(上40) 腎氣元(上40) 八物湯(上32) 補中益氣湯(上22) 瀉青丸(下106) 補中益氣湯(上32) 十全大補湯(上33) 十全大補湯(上33) 瀉白散(下33) 二陳湯(中99) 犀角地黃湯(下60) 犀角解毒飲(下130) 升麻葛根湯(中22) 牛黃解毒丹(中171) 生料四物湯(中170) 五福化毒丹(下178) 犀角地黃湯(下60) 防風通聖散(下4)	17 五軟 五硬 解顱 頸墳 頸陷 齒不生 龜胸 丹毒 諸瘡	補中益氣湯(上22) 腎氣丸(上40) 四君子湯(上64) 烏藥順氣散(中10) 八味元(上40) 十全大補湯(上33) 腎氣元(上40) 八物湯(上32) 補中益氣湯(上22) 瀉青丸(下106) 補中益氣湯(上22) 十全大補湯(上33) 十全大補湯(上33) 腎氣丸(上40) 瀉白散(下33) 二陳湯(中99) 犀角地黃湯(下60) 升麻葛根湯(中22) 犀角解毒飲(下130) 牛黃解毒丹(中171) 生料四物湯(中170) 五福化毒丹(下178) 防風通聖散(下4) 犀角地黃湯(下60)	17 五軟 五硬 解顱 頸墳 頸陷 齒不生 龜胸 丹毒 諸瘡

56) 瘡疹

痘疹門에서는 일단 제목부터 차이점이 보인다. <原本>에서는 瘡疹이 따로 하나의 조문으로 독립되어 정리되어 있지만 <證脈本>과 <對譯本>에서는 바로 이전 제목인 小兒門안에 속해있다.⁵⁰⁾

먼저 항목변화를 보면 우선 <原本>과 <證脈本>을 비교해보면 <證脈本>의 3번 氣脹貫膿, 4번 收瞼⁵¹⁾, 7번 驚搐, 8번 嘔吐, 9번 泄瀉, 10번 煩渴, 11번 寒戰咬牙, 12번 痘後瘡, 14번 宜食物 이 <原本>에 없던 것이 추

50) <原本>에서는 瘡疹門이 따로 나온다. 그러나 <證脈本>과 <對譯本>에서는 小兒門 안에 나온다. <證脈本>과 <對譯本>에서 瘡疹門 내용을 보면 반드시 小兒에게만 해당하는 내용만 보이지 않고 '孕痘'라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볼 때 비록 瘡疹이 小兒에 多發하기는 하나 小兒門안에 넣는 것보다 따로 독립된 제목으로 정리 하는게 타당해 보인다. 따라서 本論文에서는 瘡疹門을 따로 독립시켜 <原本>에準하여 세 板本을 비교하였다.

51) 收瞼 : 痘에 땁지가 생기는 것은 毒이 완전히 제거되어 장차 나으려는 것이다. 清代의 翟良은 <痘科類編釋意>에서 "痘는 9-10월 사이가 되면 진물이 가득하여 蒼蠟色을 띠고 반드시 發熱하여 薫蒸하는데 이는 回漿하려는 증후로서 燒漿 혹은 乾漿이라고도 한다. 대개 真陽이 運化되고 그 진물이 저절로 없어져 땁지가 있는데 만약 제때에 回漿하여 땁지가 생겨야 함에도 생기지 않고 환자의 몸과 손발이 차며 脈이 沈遲한 경우는 元氣가 부족한 虛寒證이다."라고 하였다. (傳統醫學研究所, 東洋醫學大辭典, 成輔社, 2000.)

가 삽입 되었다. <證脈本>과 <對譯本>을 비교하면 <對譯本>의 3번 出痘 保元湯(上121), 11번 痰喘 抱龍丸(中177), 14번 失血 犀角地黃湯(下60), 15번 尿澀 導赤散(下78), 17번 眼翳 瀉青丸(下106)이 <證脈本>에서는 다른 항목 내부에 자리하던 것이 각자 항목으로 따로 정리되어 있는 게 눈에 띈다.⁵²⁾

다음 처방변화를 보면 <原本>과 <證脈本>사이에서 <證脈本>의 2번 初熱에서 參蘇飲(中26), 抱龍丸(中175), 瀉青丸(下106), 出痘 保元湯(上121) 그리고 6번 解毒에서 犀角地黃湯(下60), 虛中有毒 九味神功散(上122)의 처방이 <原本>보다 추가되었다. <證脈本>과 <對譯本>사이에는 거의 처방변화가 보이지 않는데 <對譯本>의 5번 收瞼에서 異功散(上64)이 <證脈本>보다 추가된 것이 눈에 띈다.

다음 순서변화는 항목기재순서변화는 <原本>과 <證脈本>사이에서 확인되는데 <原本>의 2번 預方이 <證脈本>에서는 1번에 나오고 5번 通治가 <證脈本>에서는 解毒의 앞으로 자리를 옮겼다. 처방기재순서변화는 <證脈本>과 <對譯本>사이에서 보인다.

그 외의 변화로는 <證脈本> 19번 宜食物에서 <證脈

52) 여기서 항목이 따로 독립된 것을 <對譯本>을 살펴보면 따로 독립시켜 번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앞뒤 문맥에서도 다른 항목내부에 있는 것이 어색하므로 이것은 <證脈本>보다 <對譯本>이 타당한 것 같다.

『方藥合編』中 <活套鍼線>에 관한 板本學的 考察

本>에서는 見下統이 <對譯本>에서는 見 279面 痘瘡宜食物이라고 되어있다. 그리고 앞의 小兒門에서처럼 五福化毒丹과 抱龍丸의 처방번호가 <原本>에서와 <證脈

本>과 <對譯本>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를 도표로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다.

<原本>		<證脈本>		<對譯本>	
1	初熱	升麻葛根湯(中22) 柴歸飲(中172)	1	預方	稀痘兎紅丸(中173) 消毒保嬰丹(中174)
2	預方	稀痘兎紅丸(中173) 消毒保嬰丹(中174)	2	初熱	升麻葛根湯(中22) 參蘇飲(中26) 柴歸飲(中172) 抱龍丸(中175) 瀉青丸(下106) 出痘 保元湯(上121)
3	解毒	五福化毒丹(下167) 龍腦安神丸(下57)	3	起脹 貫膿	保元湯(上121) 四物湯(上68)
4	眼翳	瀉青丸(下106)	4	收癰	龍腦膏(下127)
5	通治	保元湯(上121) 柴歸飲(中172)	5	通治	保元湯(上121) 柴歸飲(中172)
6	虛中 有毒	九味神功散(上122)	6	解毒	五福化毒丹(中178) 犀角地黃湯(下60) 龍腦安神丸(下57) 虛中有毒 九味神功散(上122)
7	孕痘	安胎飲(上123)	7	驚搐	瀉青丸(下106) 導赤散(下78)
8	宜食 物	見下統	8	嘔吐	理中湯(上6)
9			9	泄瀉	異功散(上64) 參苓白朮散(上25) 補中益氣湯(上22) 痰喘 抱龍丸(中175)
10			10	煩渴	參苓白朮散(上25) 保元湯(上121)
11			11	寒戰 咬牙	保元湯(上121) 失血 犀角地黃湯(下60) 尿瀦 導赤散(下78)
12			12	痘後 瘡	四物湯(上68) 甘吉湯(中128) 十全大補湯(上33) 眼翳 瀉青丸(下106)
13			13	孕痘	安胎飲(上123)
14			14	宜食 物	見下統
					見 279面 痘瘡宜食物

57) 麻疹

麻疹門에서도 일단 제목부터 차이점이 보인다. <原本>에서는 麻疹이 따로 하나의 조문으로 정리되어 있지만 <證脈本>과 <對譯本>에서는 바로 이전 제목인 小兒門안에 속해있다.⁵³⁾

먼저 항목변화를 보면 <原本>과 <證脈本>을 비교해 보면 2번 咳嗽, 3번 咽痛, 4번 嘔吐腹痛, 5번 血症, 6번 通治, 8번 水痘는 없던 항목이 새로 추가된 것이고 <證脈本>과 <對譯本>을 비교 했을때는 <對譯本>의 2번 傷風, 3번 汗渴, 4번 煩躁, 5번 譚語, 8번 泄瀉, 9번 痘疾이 <證脈本>에서 初熱 안에 있던 것이 따로 항목으로 독립되어 정리되었다.⁵⁴⁾

다음 처방변화를 보면 <證脈本>의 1번 初熱에서 扁角地黃湯(下60), 傷風 四苓散(下10), 汗渴 人蔘白虎湯(下7), 煩躁 黃連解毒湯(下12), 譚語 辰砂益元散(下16)은 <原本>보다 새로 추가된 처방들이다.

이條文에서 순서변화는 없다. 그 외의 변화로 <證脈本> 1번 初熱 내부에 煩燥 黃連解毒湯(下12)라고 한글자가 빠져 있던게 <對譯本>에서 항목이 분리되면서 黃連解毒湯이라고 고쳐져 있다.⁵⁵⁾

<原本>		<證脈本>	<對譯本>
1	初熱	升麻葛根湯(中22) 扁角地黃湯(下60) 傷風 四苓散(下10) 煩躁 黃連解毒湯(下12) 汗渴 人蔘白虎湯(下7) 譚語 辰砂益元散(下16)	升麻葛根湯(中22) 扁角地黃湯(下60)
2		參蘇飲(中26) 防風通聖散(下4)	四苓散(下10)
		甘吉湯(中128) 清金降火湯(下34) 泄瀉 柴苓湯(下14) 痘疾 黃芩芍藥湯(下93)	人蔘白虎湯(下7)
		白虎湯(下7) 益元散(下16)	黃連解毒湯(下12)
		扁角地黃湯(下60) 黃連解毒湯(下12)	辰砂益元散(下16)
		四物湯(上68) 四君子湯(上64)	麥蘋飲(中26)
2	孕麻	紫蘇飲(中160)	喘嗽 防風通聖散(下4)
		麥湯散(中181)	甘吉湯(中128)
			清金降火湯(下34)
			柴苓湯(下14)
			黃芩芍藥湯(下93)
			白虎湯(下7)
			益元散(下16)
			扁角地黃湯(下60)
			黃連解毒湯(下12)
			四物湯(上68)
			四君子湯(上64)
			紫蘇飲(中160)
			麥湯散(中181)

53) 麻疹門도 <對譯本>과 <證脈本>에서 ‘孕麻’라는 내용이 나오는 것으로 볼 때 小兒門안에 있는 것보다 따로 독립된 조문으로 정리 하는게 타당해 보인다. 따라서 本論文에서는 <原本>에準하여 麻疹門을 따라 독립시켜 세 板本을 비교하였다.

54) 여기서 항목이 따로 독립된 것을 <對譯本>을 살펴보면 따로 독립시켜 번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앞뒤 문맥에서도 다른 항목내부에 있는 것이 어색하므로 이것은 <證脈本>보다 <對譯本>이 타당한 것 같다.

55) <證脈本>을 보면 같은 조문인 麻疹 내에서도 下統 12번이 黃連解毒湯이라고 되어 있다. 이는 <證脈本>에서 脫字이고 <對譯本>에서 수정한 것이다.

58) 麻疹 以後

麻疹 이후의 내용을 보면 <原本>에서는 순서대로 諸傷, 解毒, 雜方, 製造 已上 見上統下 六陳良藥, 忌鐵藥, 忌銅鐵藥, 忌銅藥, 忌鹽藥, 不見火藥, 清藥法, 胎中禁忌藥, 痘瘡宜食物, 附子炮法, 乾薑炮法, 服藥法 已上 見下統下 이렇게 기재되어있고 <證脈本>에서는 諸傷, 解毒 已上 見上統 救急 見第一層藥性綱領 備急丸(下 151), 雜方, 製造 已上 見五統附諸法, 藥性綱領, 隨症用藥, 諸虛用藥, 汗劑, 吐劑, 下劑, 七方十劑, 六陳良藥, 救飢法 已上 見第一層藥性綱領, 服藥食忌, 飲食禁忌, 製藥禁忌 已上 見下統 이렇게 기재되어있다. <對譯本>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모두 빠져있고 麻疹門으로 끝난다.

4. 考察

우리 민족은 역사적으로 편리성과 실용성을 중요시한 민족이다. 醫學에서도 그런 영향으로 《東醫寶鑑》을 비롯하여 舍岩鍼法이나 五運六氣學說, 四象體質醫學 등을 통해 인체에 대한 추상적인 접근이 아닌 실제적이고 실용적이며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인체에 다가갈 수 있게 노력하였다. 이런 실용적인 의학으로서 朝鮮末期의 대표적인 方書가 바로 《方藥合編》이다. 이는 새로이 도입된 실증적인 西洋醫學에 대응하여 방대하고 추상적인 東洋醫學을 보다 簡易케 하고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韓醫學의 大衆化에 큰 역할을 하였다. 이런 《方藥合編》은 學理가 부족한 庸醫들의 출현을 가능케 한 逆作用을 함께 하였으나 東洋醫學의 활용도를 높여 東洋醫學의 簡易大衆化에 큰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 그 醫學史의 意義가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方藥合編》의 구성을 보면 《方藥合編》의 原本인 《醫方活套》는 각 질환에 따른 빈용처방집인 〈活套鍼線〉과 〈活套鍼線〉의 많은 처방들을 上(179方), 中(214方), 下(201方) 三統으로 나누어 기재함으로써 醫方을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편제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中國 및 日本에서도 거의 없는 독창적인 시도인데 처방들을 三統으로 나누어서 그것을 도표식으로 알기 쉽게 하였는데 특색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특히 《方藥合編》의 처음에 나오는 〈活套鍼線〉은 종래에 이용되던 처방 중에 각 질환별로 유효한 처방들을 골라 정리한 것으로 黃度淵의 의학사상이 집약된 《方藥合編》의 精髓라 할 수 있다.

《東醫寶鑑》의 〈內景扁〉의 순서와 《方藥合編》의 〈活套鍼線〉의 순서를 비교해보면 이러한 黃道淵의 의

학사상 및 人體觀이 명확해진다. 《東醫寶鑑》의 〈內景扁〉은 身形, 精, 氣, 神... 등의 순서로 서술된 반면 《方藥合編》의 〈活套鍼線〉을 보면 風, 寒, 暑, 濕, 燥, 火, 內傷...의 순서로 서술되어있다. 이는 《東醫寶鑑》이 精氣神論에 근본을 두고 內景扁을 일괄하여 서술하면서 의술의 본의를 정신수양과 摄生에 두고 服藥과 치료를 2차적 의의로 생각하여 지금의 心身醫學의 인특색이 있는 반면 《方藥合編》은 〈活套鍼線〉에서 보면 六氣에 의한 감기증상과 內傷 즉 소화기이상을 처음에 두어 실제로 일반적으로 임상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감기, 소화불량에 그 중요성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를 볼 때 《方藥合編》이 《東醫寶鑑》에 비해 보다 실제적이고 실용성을 중요시 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러한 《方藥合編》은 그 韓醫學의 중요성에 걸맞게 수십여 종의 增補板들이 간행되었다. 그리고 각 板本마다 다양한 특징들을 지니고 있어 《方藥合編》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들이 생겨나게 되면서 《方藥合編》 연구의 다양성이 확보되어 더욱 臨床韓醫學의 필수적인 서적이 되어 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方藥合編》의 내용도 黃度淵이 처음 著述했던 《醫方活套》의 내용과는 板本別로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에 따라 현재 多用되는 《方藥合編》의 내용이 처음 黃度淵이 책을 간행 할 때의 眞意와는 다른 왜곡된 내용이 실려 있는 게 확인된다. 다른 분야가 아닌 醫學에서의 錯誤 또는 왜곡은 醫學이 인체를 다루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치료율의 저하 뿐만 아니라 氣血 불균형에 따른 새로운 질병을 초래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왜곡들을 바로잡고 錯誤를 수정하는 것의 중요성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III. 結論

『方藥合編』의 수많은 增補板 중 의미 있는 세 개의 板本인 1869年 最初로 著述된 黃度淵의 原著인 『惠庵心書古今三統醫方活套鍼線』과 후에 1887年 玄公廉이 增補한 『證脈方藥合編』中 〈隨症用藥比舊加詳〉, 그리고 1977年 南山堂에서 刊行한 『對譯證脈方藥合編辨證增補板』중 〈活套鍼線〉을 비교하여 板本學의 연구를 진행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惠庵心書古今三統醫方活套鍼線』과 『證脈方藥合編』中 〈隨症用藥比舊加詳〉은 비교적 많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고 〈隨症用藥比舊加詳〉과 『南山堂本對譯證脈方藥合編』은 大同小異하여 차이가 적다. 즉, 『南山堂本對譯證脈方藥合編』의 내용은 〈隨症用藥比舊加詳〉과 내용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고 〈隨症用藥比舊加詳〉에서 잘못 記載되어있는 것을 바로 잡고 더 보기 쉽게 정리 되어진 것이다. 따라서, 『南山堂本對譯證脈方藥合編』은 『惠庵心書古今三統醫方活套鍼線』이 아닌 『證脈方藥合編』中 〈隨症用藥比舊加詳〉을底本으로 著述된 것으로 추정된다.

2. 세 板本간의 條文 내에서 항목상의 변화가 있다. 예를 들어 血門을 보면 『惠庵心書古今三統醫方活套鍼線』에서 항목명이 鮫血인 것이 〈隨症用藥比舊加詳〉에서 吐血로 바뀌었고 『南山堂本對譯證脈方藥合編』에서 다시 鮫血로 바뀌었다. 이는 〈隨症用藥比舊加詳〉에서만 吐血이라고 된 것과 세 板本 모두 다음부터 吐血에 관한 내용들이 다시 나오는 것을 볼 때 鮫血이 맞는 듯하고 〈隨症用藥比舊加詳〉에서 잘못 기재되었고 『南山堂本對譯證脈方藥合編』에서 그것을 바로 잡은 것이다. 그리고 『惠庵心書古今三統醫方活套鍼線』의 嘔吐血, 胃傷吐血이 〈隨症用藥比舊加詳〉에서는 항목명 자체가 바뀌면서 積熱吐血, 陽虛吐血, 勞傷吐血, 陰虛吐血로 보다 세분되어 기재되어 있다. 또, 〈隨症用藥比舊加詳〉의 齒舌齦 항목은 『惠庵心書古今三統醫方活套鍼線』에서는 齒齦이었던 것이 舌 한 글자가 추가된 것이고 『南山堂本對譯證脈方藥合編』의 咳唾咯血 항목은 앞의 두 板本에서는 咳唾咯이었던 것이 血 한 글자가 더해졌다. 그리고 〈隨症用藥比舊加詳〉에서 血汗, 九竅出血, 失血眩暈은 『惠庵心書古今三統醫方活套鍼線』에 없던 것인데 추가된 것이다. 보통 이러한 변화가 항목변화에 존재하고 다른 條文도 비슷한 형식이다.

3. 세 板本간의 처방변화가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

痰飲門을 보면 〈隨症用藥比舊加詳〉의 風痰에서 小青龍湯(中27)이 추가되고 寒痰에서 五積散(中13), 理中湯(上6), 二陳湯(中99), 八味元(上40)이 추가되고 痰飲通治에서는 導痰湯(下3), 小青龍湯(中27) 두 처방이 『惠庵心書古今三統醫方活套鍼線』에 비해 추가되었고 痰厥항목에서 『惠庵心書古今三統醫方活套鍼線』과 〈隨症用藥比舊加詳〉에는 星香正氣散(中14)이 『南山堂本對譯證脈方藥合編』에서는 蕁香正氣散(中14)이 기재되어 있다. 痰厥의 증상에 비추어 보면 星香正氣散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되는데 다만 실제로 中統 14번에 蕁香正氣散이 그리고 中統 4번에 星香正氣散이 기재되어 있어 『南山堂本對譯證脈方藥合編』에서 蕁香正氣散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라 보이는데 中統 14번 蕁香正氣散의 活套에 南星과 木香을 가하면 星香正氣散이 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星香正氣散이 中統 14번에 있다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南山堂本對譯證脈方藥合編』의 교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條文들의 처방변화도 이러한 형식이다.

4. 세 板本 간에는 순서변화가 존재한다. 이 순서변화에는 條文 내 항목기재순서의 변화와 항목 내 처방기재순서의 변화가 있는데 먼저 條文 내 항목기재순서의 변화는 咳嗽門을 예로 들어보면 『惠庵心書古今三統醫方活套鍼線』의 痰喘, 水咳의 항목순서가 〈隨症用藥比舊加詳〉에서는 水咳, 痰喘氣喘으로 순서가 바뀌었고 〈隨症用藥比舊加詳〉에서 痰喘氣喘, 火喘의 항목순서가 『南山堂本對譯證脈方藥合編』에서 火喘, 痰喘氣喘으로 순서가 바뀐 게 확인된다. 다음 항목 내 처방기재순서의 변화는 風門을 예로 보면 癪瘍항목내에서 〈隨症用藥比舊加詳〉에서는 加味大補湯(上3), 四物湯(上68), 十全大補湯(上33), 六君子湯(上69), 獨活寄生湯(上88)의 순서로 기재되어 있지만 『南山堂本對譯證脈方藥合編』에서는 加味大補湯(上3), 十全大補湯(上33), 四物湯(上68), 六君子湯(上69), 獨活寄生湯(上88)의 순서로 기재되어 있다. 이것은 앞의 板本들은 옛 古書의 형식을 그대로 담아 순서를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우측에서 좌측으로 써내려가서 처방을 기재하는 순서도 마찬가지 순서인데 『南山堂本對譯證脈方藥合編』은 최근에 진행한 인쇄본이므로 이 순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 그냥 근래의 인쇄본 책을 보는 순서대로 처방을 기재해서 순서의 차이가 보이는 것이다. 모든 韓醫書가 그렇듯 처방순서는 질환별로 처방의 활용도도 포함된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처방기재순서는 신중히 하여야 할 부분이다.

5. 세 板本간에는 세부적으로 글자들 간의 차이점

과 誤脫字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蔘의 경우 『惠庵心書古今三統醫方活套鍼線』과 <隨症用藥比舊加詳>에서는 參으로 쓰여 있는 게 『南山堂本 對譯證脈方藥合編』에서는 蔘으로 되어있고 苓의 경우는 『惠庵心書古今三統醫方活套鍼線』에서는 令으로 쓰고 <隨症用藥比舊加詳>에서는 습과 苓이 혼용되고 『南山堂本 對譯證脈方藥合編』에는 苓으로 바뀌어있다. 그 외에 茯은 苓과 비슷한 변화가 薑, 桔, 蔗은 蔘과 비슷한 변화를 보인다. 또한 『南山堂本 對譯證脈方藥合編』에서 前陰門의 囊腫항목에 있는 三仙湯은 三疝湯이어야 하는게 誤자가 있는 것이고 頭門의 氣血痛항목은 氣虛痛이어야 하는게 역시 誤자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隨症用藥比舊加詳>에서 癥疹門의 初熱 내부에 煩燥 黃解毒湯(下12)라고 되어있어 한 글자가 脱자가 있는 것이다.

『方藥合編』은 韓醫學에 몸담고 있으면 누구나 가지고 있고 耷讀하는 韓醫書이다. 이런 『方藥合編』이 많은 增補板 및 國譯板들이 刊行되어 黃度淵이 著述한最初原本의 모습에서 많은 變化가 있었던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方藥合編』의 變化像에 대한 정리는 原著者인 黃度淵의 眞意를 파악함은 물론 治療醫學으로서의 韩醫學의 미래를 지향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IV. 참고문헌

1. 金斗鍾, 『韓國醫學史』, 探求堂, 1966.
2. 金斗鍾, 『韓國醫學文化大年表』, 探求堂, 1966.
3. 金斗鍾, 『東西醫學史大綱』, 探求堂, 1981.
4. 金聲均, 『韓國最新百年史』, 國民書館, 1990.
5. 金義乾, 『增補 國譯最新方藥合編』, 東洋綜合 通信教育院, 1976.
6. 金鎬逸, 『韓國民族史』, 螢雪出版社, 1981.
7. 南都泳, 『韓國史』, 法正學會, 1977.
8. 盧正佑, 『韓國醫學史』, 韓國文化史大系, 高大民研所, 1978.
9. 東西文化研究所, 『韓國學』, 玄岩社, 1980.
10. 申載鏞, 『方藥合編解說』, 成輔社, 1988.
11. 安德均, 『醫宗損益』, 醫學社, 1962.
12. 廉泰煥, 『國譯方藥合編』, 杏林出版, 1975.
13. 廉泰煥, 『增註國譯方藥合編』, 醫學社, 1977.
14. 愈鎮贊, 『增補辨證方藥合編』, 世昌書館, 1928.
15. 李基白, 『韓國史新論』, 一潮閣, 1978.
16. 李常和, 『辨證方藥合編』, 杏林書院, 1962.
17. 李泰浩, 『辨證方藥正傳』, 杏林書院, 1961.
18. 李泰浩, 『新訂對譯大方藥合編』, 杏林書院, 1977.
19. 趙憲泳, 『通俗韓醫學原論』, 醫文社, 1965.
20. 許浚, 『東醫寶鑑』, 南山堂, 1969.
21. 玄公廉, 『增訂方藥合編』, 大昌書館, 1926.
22. 洪元植, 『中國醫學史』, 東洋醫學研究院, 1984.
23. 黃度淵, 『醫宗損益』, 醫學社, 1976.
24. 黃度淵, 『醫方活套』, 賛化堂, 1869.
25. 黃度淵, 『對譯證脈方藥合編辨證增補板』, 南山堂編輯局, 1977.
26. 黃度淵, 『辨證論治方藥合編』, 南山堂, 1987.
27. 謝觀, 『中國醫學大辭典』, 金泳出版社, 1975.
28. 『東洋醫學大辭典』, 成輔社, 2000.
29. 『漢韓大字典』, 民衆書林, 2003.
30. 『虛辭大辭典』, 成輔社, 2001.
31. 金勳, 「韓國最近世 東洋醫學의 學術的 特徵에 關한 研究」, 慶熙大 大學院, 1981.
32. 許津, 「許浚의 生涯와 東醫寶鑑에 對한 研究」, 慶熙大 大學院, 1985.
33. 許津, 「東醫寶鑑의 辨證에 關한 研究」, 慶熙大 大學院, 1989.
34. 金亨泰, 「方藥合編에 대한 연구」, 大田大 大學院, 1991.
35. 이선아, 「黃度淵의 方藥合編에 關한 연구」, 2001.